이슬람에서의
가족



터키 종교부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슬람에서의
가족

작가
후리예 마르트 교수
파트마 바이락타르 카라한 박사
무루벳 악타스
할리메 카라불르트
야샤르 이이트 교수
후세인 오레신
메흐멧 딘츠
이스마일 오즈괴렌
엘리프 아슬란 박사
아이셰누르 오즈칸

터키 종교부 출판사-1755
국민도서: 425

발행 권
쿠루트 파티흐

코디네이션
육셀 유누스

프로젝트
종교 업무 총국

편집장
마르트 후리예 교수

옮긴이
손 데리야, 손태성

교정
알데미르 제이넵

그래픽 디자인
알툰토프 우우르

발행
Çağlayan A.Ş.
Sartıç Yolu No: 7 Gaziemir/İZMİR
전화: +90 232 274 22 15

1. 인쇄, 이즈미르-2020

작품 검수 협회 결정: 05.02.2020/13

2020-35-Y-0003-1755
ISBN: 978-605-7751-47-8
인증 번호: 12930

연락처
종교출판 총국
외국어 및 방언 간행부
Dini Yayınlar Genel Müdürlüğü
Yabancı Dil ve Lehçelerde Yayınlar Daire Başkanlığı
Üniversiteler Mah. Dumlupınar Bulvarı
No:147/A 06800 Çankaya/ANKARA
전화: +90 312 295 72 81
팩스: +90 312 284 72 88
이메일: yabancidiller@diyanet.gov.tr

목차

머리말

가족은 유년 시절부터 젊은 시절까지, 성인시절부터 노년시절까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위대한 조합의 이름이다. 서로 다른 삶을 같은 지붕 밑에서 만나게 하는 가족은 그 삶을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관계를 통해 가족들을 서로 상호 연결하고 통합하고 강화시킬 수 있다. 비록 다른 집에서 살아도 실제로 안 보이는 투명한 지붕 밑에서 함께 만나는 사람으로서 친척도 이 관계의 일부이다. 사람들은 가족과 친척들 덕분에 보호 받는 것, 사랑과 존경 받는 것, 믿고 신뢰하는 것, 고통과 행복을 나누는 것 그리고 평화를 얻는 것을 즐긴다. 그의 가족으로부터 그의 윤리, 신념, 문화, 전통 및 가치를 상속 받는다. 감정을 가족이라는 학교에서 배우고 첫 습관을 또한 가족으로부터 배운다. 또한 첫 방책도 가족으로부터 시도한다. 간단히 말해서, 가족은 단일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함께 안녕을 의미한다.

가족에 대한 현대의 가장 중대한 작용은 단일성의 감각을 해치고 가족의 유대관계를 풀어 사람들이 외로움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쓴 경험 중 하나는 경제적 자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계속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이 된다는 주장으로 가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은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서로를 필요로 한다. 서로를 먹이고 옷을 입히고, 대피시키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양육하는 일에도 책임이 있다. 가족이란 "함께지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고 같이" 사는 것이다.

가족 단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행복을 가지고 오는 것은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의 사랑 및 존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은 자신의 성격, 경험, 우선 순위, 꿈, 아이디어 및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가족의 평화는 이러한 모든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풍족으로 변환하는 감수성을 보여주고 건강한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 이 책은 가족의 설립, 가족을 보호 및 강화시키기를 위한 사회 과학과 종교 자원에 문의하는 것과 가정이 직면한 위험의 영역을 고려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 있는 이 책은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 가족의 가치를 기억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 행복하고 안전하며 인내심이 강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초대한다.

편집장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마스지드나 시장이나 여행 중이 아니었을 때 무엇을 하셨는가? 그는 집에서 무엇을 하며 바빴으며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가?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벗어나 숭배로 바빴을까? 아니면 한 구석에서 명상에 잠겨서 시간을 보냈을까? 호기심을 극복할 수 없는 교우가,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사랑하는 아내 아이샤에게로 와서 물었다: "알라(하나님)의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집에서 무엇을 했는가?" 아이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알라(하나님)의 메신저는 가족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가족을 위해 일을 했다. 예배 시간이 왔을 때도 예배를 했었다."[1]

가족과 나

마르트 후리에 교수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다. 오, 하나님! 당신에게 나의 종교, 가족과 재산에 대한 용서와 건강을 구합니다."

(아부 다우드, 아답, 100-101)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은 사람들이 삶에 눈을 뜨게 될 때 사람들을 포용하고, 보호하고 안아 주는 그 독특한 단일성의 이름이다. 가족은 이 시끄럽고 커다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 하는 조그마한 아기가 가진 첫 번째 신뢰이며 느끼는 첫 번째 평화이자 첫 번째 행복이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그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속삭인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너는 혼자가 아니고 지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너의 옆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한다.

아이는 가족이 자신에게 여는 창문에서 세상을 본다. 세월이 흘러 어린 시절을 살고, 젊음을 맛보고 어른이 된다. 가족은 모든 단계에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 수 있기 위해 격려하고 교육하며 인생에 준비시키는 학교이다. 그에게 희생, 충성, 도덕 및 신앙을 가르치는 가장 오래 지속되는 교육장이다. 사람은 그의 가족으로부터 그의 문화, 전통 및 가치를 상속 받는다. 그는 가족과 함께 죽음의 슬픔과 결혼식의 기쁨을 공유한다. 책임감, 정의와 존엄성을 가족에서 본다. 감정을 배우고 첫 습관을 들인다. 또한 첫 방책도 시도한다. 그래서 가족은 삶의 근원이다.

가족의 탄생

그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식물 또는 동물에게 짝을 선물하셨다. 그 분은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인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인간에게도 짝을 주셨다. 가족으로 "평화"로운 삶과 만나고 알라(하나님)에 의해 남성과 여성 사이의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하여 꾸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너희 자신들로부터 배필을 창조하여 그 배필과 함께 살게 하심도 그분 예증의 하나이며 그분은 또한 너희간에 사랑과 자비를 주셨으니 실로 그 안에는 생각하는 백성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2]

지구의 첫 번째 가정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이브)의 삶은 집에서 하나가 된다. 인생은 시험이며, 아담의 아들과 하와의 딸은 이 시험의 물질적과 정신적 어려움을 함께 충족시키기 위해 같이 움직인다. 왜냐하면 서로를 지지하고 보완하며 보호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표현으로 **"그들은 비슷하고 보완적인 전체의 두 반쪽입니다."**[3]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독실과 너희 가운데의 성실한 하인과 하녀들을 결혼시켜주라."**[4] 라는 아야(꾸란 구절)로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같은 집을 나누는 것을 원하신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결혼이 자기 순나(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말하며 젊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결혼하라. 왜냐하면 결혼은 하람(금지된 것)에서 눈을 돌리고 순결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5]결혼으로 세워질 건강한 가정은 영혼을 치유하는 축복이다. 군중 속에 홀로 남겨진 마음은 짝을 필요로 한다 ...

두 가지 분리된 삶, 두 개의 분리된 인생이 결혼으로 결합된다. 그들의 결혼을 위해 기도를 한다. "오, 하나님!

이 협약을 상서롭고 비옥하게 만들어 주시길. 새로 결혼한 부부를 친숙하고 애정스런 마음과 충성심으로 조화시켜 주시길. 그들 사이에 미움, 선동 및 이별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길. 아담과 하와(이브),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와 카디자, 알리와 파띠마를 서로 하나로 만드신 것처럼."

결혼으로 새로운 권리와 위치를 얻게 된다. 그러나 만들어진 가정이 평화롭게 지속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다는 뜻이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하라! 그대들이 아내들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실로 아내들도 그대들에게 권리가 있노라.**"[6]

결혼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 모두를 위한 강력한 보호소가 생긴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알라(하나님)가 순결과 존엄성을 보존하기 위해 가족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을 확실히 도울 것이라는 복음을 전달하신다.[7] 그래서 가족이 생긴 것으로 반갑고 가정을 지원하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알라(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가족은 무작위적이고 평범한 생활 공간이 아니며 알라(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보호되고 그분께서 주신 자녀들과 함께 번성하고 아름다워지는 귀중한 제도이다. 가족은 사회의 핵심, 본질 및 구성물이다. 결혼으로 두 몸이 보호될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깨끗한 세대를 갖게 된다. 가족 만든다는 것은 두 명을 합친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건설한다.

> 가족에서 계산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키워라. "그렇게 하면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라는 조건 없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라고 제한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넓은 사랑을 키워라. 가족을 믿고 가족에게 신뢰를 주어라.



가족의 성숙

결혼 증명서, 증인, 손님, 접대, 희망, 기도… 가족 단합의 설립에는 간혹 결혼식, 연회, 북, 협회 어떨 때도 간소하고 작은 의식이 수반된다. 사실, 그것들은 모두 똑같은 것을 말한다: 이제 두 사람은 결혼이란 "무거운 계약"[8]에 서명하여 부부가 되었다. 그는 이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사람을 찾은 것이다. 이제 그들은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하고 자신의 책임을 깨닫고, 성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실은 가족을 만드는 것만큼 가족이 된다는 것도 중요하다. 같은 지붕 밑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나 같은 성(姓)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같은 감정과 생각의 세계에서 만나는 것이 가끔 가능하지 않아도 서로의 감정을 듣는 것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블라나가 말했듯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다!"

가족은 육체의 근접만큼 영혼의 근접도 필요로 한다. 그들은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 동안 매우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 한 대륙만큼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많은 부부들이 있다! "함께지만 혼자"인 가족 구성원들은 슬퍼한다.

꾸란에서 **"남녀 신앙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한 보호자라 그들은 선을 행하고 사악함을 멀리한다."**[9] 라고 나온다. 친절한 협력의 예로서 이므란(요아킴) 가족에 관해 알려 주신다. 꾸란은 그들을 선으로 기억할 것이다.[10] 우리 하나님은, 신자들과 무슬림의 종들에게 **"너희와 그리고 아내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기뻐하리라."**[11]라고 말씀하실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꾸란에서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를 괴롭히는 위험한 계획으로 서로를 지원한 아부 라합과 그의 아내가 어떻게 지옥의 불에 처해질 것인지를 알려준다.[12]

따라서 가족이란 결혼과 피를 넘어서는 감정과 생각의 유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에 합당한 삶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함께 있을 의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가족에게 아이가 태어나다.

마음이 있는 짝이 있으면 아이도 갖기를 원한다. 세대를 지속하는 것과 부모가 된다는 것을 맛보고 내일을 위해 흔적을 남기기를 원한다. 예언자 자카리야(사가랴) 같이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한다: **"오,하나님! 훌륭한 당신의 자손을 제게 주옵소서 당신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나이다."**[13]



기도들이 받아들여지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으로 첫 번째 생의 매듭이 강화된다. 아이는 가족이라는 생각을 한 매듭씩 매여 깊게 강화시킨다. 가족 중심에 자리 잡고 가족 모험에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어떤 결정이든 아이의 필요를 고려해서 기획은 아이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짠다. 낮, 밤, 물품, 노력은 아이를 위해 희생된다 ...

아이를 가진 여자는 "어머니가"된다는 행복을 느낀다. 하나님의 이 소중한 선물을 자비로 안아 준다. 들고 출산하고 수유한 이 작은 삶을 자신보다 먼저 생각한다. 그의 고통이나 그와의 이별을 견딜 수 없다. 그의 이 상태는 꾸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명령하여 부모를 존경하라 했거든 그의 어머니는 태아를 가짐과 이년간 젖을 먹이므로 말미암아 허약하여지니라 내게 감사하고 그리고 네 부모님에게 감사하라 내게로 옴이 최후이니라."**[14]

첫날부터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독특한 유대가 형성되고 유대를 손상시키는 모든 것은 건강한 사람이 자라지 못하게 할 정도로 위험하다. 그래서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께서는

우리를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어머니와 자식을 분리시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한 부활의 날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시키실 겁니다."** [15]

어머니를 볼 때 희생과 성실을 배운다. 터키에서 "자비로운 어머니와 동등한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자기 노력을 계산없이 자식에게 주는 존재를 어머니라고 한다. 제한없이, 조건없이, 질투없이 제공된 사랑의 이름…

실수하고 어머니를 슬프게 해도 또 다시 어머니에게 피난한다. 터키에서 "아무것도 어머니의 사랑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어머니는 용서, 동정심, 관용의 이름이다. 참을성으로 훈련된 교육의 이름...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천국은 어머니에게 한 걸음만큼 가깝다.[16] 그리고 접대와 친절을 가장 많이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들이다.[17]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어머니를 보호하신다... 그에게 무례하게 하고, 의미없는 다툼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적대적인 태도로 그의 기억을 무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신다.[18]

남자라면 아이가 생겼을 때 그는"아버지"가 된 것의 영광을 가지게 된다.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과 온갖 악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가족의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예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이시다… 그의 복음은 그의 귀에 공명한다: **"어느 누군가 오로지 알라(하나님)로부터 보상을 구하며 그의 가정을 위해 금전을 사용한다면 그 지출은 그를 위해 사다까(자선)가 되느니라."**[19]

그러나 가족들의 배를 부르게 하고 옷을 입히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얌전한 성격을 가지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들로 사회에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질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동정심 교육을 받았으며 좋은 도덕을 갖추고 문화와 가치를 채택한 세대를 훈련시켜야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유산은 좋은 성품이니라."**[20]

아버지와 함께 살 때 존중을 배운다. 아버지란 수원이 사랑인 존경과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신뢰 및 평화를 느끼게 하는 권위의 이름이다. 아버지의 존재로써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느낀다. "아버지에게서 도움, 자녀에게서 효도"라고 말한다. 아버지란 노력의 땀, 할랄(허용 된) 소득과 결심이다.

정의, 동정심과 자비를 아버지를 보면서 배운다. 폭력은 아버지와 동일해지고,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억되며, 자녀가 가정에서 폭력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러나 꾸란에서 나오는 선지자 아브라함, 선지자 야곱과 선지자 루끄만과 같이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아버지의 삶을 찾는다. 자녀에게 **"사랑하는 우리 아들/딸"** 이라고 부르는 것을 읽는다. 자녀와 함께 웃고 놀고 꼬욱 포옹하고 뽀뽀하며, 업고 산책시키며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나 쿠트바(설교)를 읽을 때 손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사랑하는 기도로 키우는 사랑 가득 찬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모습을 알고 있다. 아름다운 감정을 자기 자식으로부터 숨기는, 그의 좋은 행동을 칭찬하지 않고 아예 말을 하지 않는, 예뻐하기는 커녕 때리는 아버지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모범에서 어떤 것도 배울 수 없는 자다.

자녀와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꿈을 꾸어라!왜냐하면 자녀의 평생 가질 수 있는 믿음과 가치의 기초는 학교 전 시절에 가족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하나님!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 저의 부모와 믿음이 있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는 날에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21] 우리 중 누구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부모님과 의미 있고 평생 지속되는 가족 여행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는지 우리는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삼각관계에서 어떠한 관계를 발전시킬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 가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의 기초를 선한 관계로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그분 외에는 경배하지 말라 했으며 부모에게 효도하라.**"[22]

가족은 기탁이다

가족에서 눈을 뜨거나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것은 실제로 기탁의 사슬로 연결되는 것이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특히 배우자와 자녀는"재산 유대"가 아니라 "기탁의 의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영혼의 유일한 소유자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하셔서 서로에게 맡겨주셨다. 그렇기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무책임하게 행동할 권리가 없다. 최고 창조주의 기탁을 보관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은 기탁의



소유자에게 기탁의 책임에 대한 설명해야할 날이 올 것임을 잊지 않은 것이 아닐까?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고별순례 때 군중에게 부르며 기탁의 주인을 다음과 같이 상기시킨다. **"여성에 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실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그분의 말씀에 따라 (결혼해서) 합법적인 부인으로 (할랄 부인) 맞아들였다."**[23] 그러므로 배우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무제한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편리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도록 그를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부모가 됨으로써 지구 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인간을 키우는 후보자들이다. 처리할 광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로새기기를 기다리는 이 귀중한 광석은 연약한 기탁이기도 한다. 이 작은 자녀는 관심, 사랑, 관용 및 교육이 필요하여 자녀가 클수록 우리의 책임도 커진다.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자손은 현세의 장식에 불과하다."**[24] 라고 말씀하시고 추가로, **"너희 재산과 자손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불과하나니 실로 큰 보상은 하나님이 주시니라."**[25]라고 하신다.

가족을 "기탁 의식"으로 포옹해라.
용서하는 자가 되라.

분노를 삼켜라.

수치심을 가려라.

실수를 했을 때 사과하라.

가족은 시험이다.

가족은 우리 시험이다.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한 심각한 시험... 우리의 역할은 인생에서 변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아이라면 내일은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오늘은 자녀이라면 내일은 아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이 지속하는 동안 가족에 대한 필요성과 가족과의 시험은 계속된다. 그래서 가족 유대는 시간과 공간으로 제한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족 생활은 죽음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훨씬 넘어서 내세까지 가는 삶이다. 분개, 거절, 소유했던 모유가 하람이 되겠다는* 말을 하거나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서약으로 친척과 가족을 인생에서 내던져 버릴 수 없다! 가족을 영혼에서 버릴 수 없다.

때때로 사람들은 가족 바쁨 내에서 길을 잃게 된다. 질병, 시험, 출생, 사망, 기쁨 및 슬픔이 차례로 이어서 온다. 부부들은 서로에게 시험이다! 모든 나이 때의 어린이는 모든 규모의 시험을 뜻한다! 우리는 이 지독한 염려를 따라 가면서 꾸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 재물과 너희 자손들로 인하여 너의가 하나님을 염원함에 벗어나서는 아니되나니 그렇게 하는 자 누구든 손실자들이라."**[26]

물론,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족 생활의 권리만큼의 책임, 자유만큼의 한계가 있다. 압박하지 않는 것과 슬프게 하지 않는 것만큼의 압박을 받지 않는 것과 슬프지 않은 것이 필요하다. 가족은 정의가 필요하다! 집에 들어 오면 가면을 벗고 모두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배우자, 자녀, 부모와 함께 잘 지내는 것은 직장, 시장 또는 학교에서 공손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것들을 참는 것보다

* 엄마가 아이를 위해 (아이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수고와 모유를 먹임으로써 아이에게 생긴 그의 권리를 힘으로 보고 그 권리를 이용하고 협박하는 부정한 일

더 힘들다. 그래서 자비의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너희들 중 가장 훌륭한 자는 가족에게 가장 훌륭히 대하는 자이니라."**[27] 라고 말씀하셨다.

가족의 총체적 보호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노력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능하다. 때로는 배우자와 어울리는 것이 어려우며 때로는 배우자를 잃을 때 가족의 부담을 스스로 짊어지게 된다. 어떨 때 좋은 자식을 키우려고 평생 노력을 하고 어떨 때는 그의 자식의 죽음으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슬퍼도 참는다. 모든 상황에서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경고이다: **"가족은 그대들에게 권리가 있다!"**[28]

존경을 원하는가?
먼저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고 모범이 되어라. 그들이 "당신과 다른 성격과 생각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해되는 것을 원하는가?
가족 구성원과 대화할 때 비난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자신의 느낌을 알려주는 간단하고 친밀한 문장을 선택하라.

당신의 말을 듣게 하고 싶은가?
말 장난하고 조롱하고 모욕과 비난, 냉소적과 공격적인 태도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가족 구성원들과 명확하고 정중하고 정직한 말투를 써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서로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라! 가족 구성원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들의 해결책 제공에 대한 존중과 좋은 의도를 가져라.



결국,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여! 인간과 돌들이 연료가 되어 타고 있는 불로부터 너희 자신과 너희 가족을 구하라!"**[29] 아야를 (꾸란 구절) 자주 기억하여 자신과 그의 가족을 악과 악행으로부터 멀리하는 책임이 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 시험에서 가족을 무시하지 말고 행복을 집 밖에서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신혼 부부들에게 "현세와 내세에서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기도한다. 현세와 내세에서의 행복을 원한다면,

소비하지 않고 영양을 공급하는

약화시키지 않고 강화시키는

지루하게 하지 않고 인생의 기쁨을 불어 넣는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상처 주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평화로운 가정 생활을 위한 노력의 가치가 있다!

1 부카리, 아단 44.
2 로움, 30/21.
3 아부 다우드, 타하라, 94.
4 누르, 24/32.
5 부카리, 니카흐, 1, 3.
6 티르미디,라다아' , 11.
7 나사이, 지하드, 12.
8 니싸아, 4/21.
9 타우바, 9/71.
10 이므란, 3/33-34.
11 주크루프, 43/70.
12 마싸드, 111/1-5.
13 이므란, 3/38.
14 루끄만, 31/14.
15 티르미디, 부유, 52.
16 나사이, 지하드, 6.
17 부카리, 아답, 2.
18 부카리, 아답, 6.
19 부카리, 이만, 41.
20 티르미디, 비르와 슬라, 33.
21 이브라함, 14/41.
22 이스라, 17/23.
23 무슬님, 핫즈, 147.
24 카흐프, 18/46.
25 안팔, 8/28.
26 무나피쿤, 63/9.
27 티르미디, 메나큽, 63
28 부카리, 아답, 86.
29 타흐림, 66/6.

어린 소년의 얼굴에 슬픔이 있었다. 자신의 슬픔을 이해할 어른과 안부를 묻고 위로할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했다. 아나스 이븐 말리크의 형제였으며 그의 이름은 아부 우메이르였다.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종종 그들의 집을 방문하여 아부 우메이르와 시간을 보내주셨다. 그는 또한 누아이르라는 작은 참새의 안부도 물었다."아부 우메이르! 네 참새는 뭐 해?"[1]

아부 우메이르이 슬픈 눈을 밑으로 내렸던 그 날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다시 더 물어보셨다. 왜 이렇게 슬픈거냐? 하나님의 메신저는 언제나 아이들이 슬픈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이 대답했다. "그의 참새가 죽었으니 이렇게 슬프다." 자비로우신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아부 우메이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위로해주고 참새를 위해 명복을 빌어주셨다. 아부 우메이르의 마음은 편해졌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셨기 때문이다.

가족에 한 아이가 있다

위원회



"오,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아내와
자손들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정직한 사람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자들이라."
(푸르깐, 25/74)

아이란 누굴까?

아이는 인생의 기쁨, 집의 축복, 가족의 희망이다. 탄생 소식을 받은 첫날부터 마음에 따뜻한 기쁨과 사랑은 생긴다. 따뜻한 기쁨에 책임감이 추가된다. 시간이 지나며 영혼들은 출산으로 이 새로운 삶의 도착을 준비한다. 그리고 집에 제일 귀한 손님이 온다. 그의 미소, 울음, 숨쉬는 것, 눈 깜박임, 기어 다니는 것, 말하는 것, 즉 모든 모습으로 함께 집에 살게 된다.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중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다. 꾸란의 표기로 "눈의 빛"이다. 부모의 소망은 작품을 미래에 남겨두고, 그들의 이름을 유지하고 그들의 세대를 계속하는 소원이다. **"오, 하나님! 훌륭한 당신의 자손을 제게 주옵소서 당신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나이다."** 그런 후 사가랴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하길 "주여 훌륭한 당신의 자손을 제게 주옵소서 당신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나이다."[2] 라는 기도의 답이다. 아이는 축복이다. 신성한 선물의 이름이며 축복의 맛이다…

아이는 모든 축복같이 부담도 같이 가지고 온다. 먼저 인내심으로 기다리던 개월이 지난다. 꾸란의 말에 따르면, **"고통 위에 고통" 이라는** 어머니의 어려운 시간이

끝나면 잠들지 않는 밤이 시작된다.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동정심 덕분에 자녀의 보살핌, 청소 및 교육이 촉진된다. 겉보기에는 어려워 보여도 어머니는 자기가 먹지 않아도 자녀에게 먹이며 아버지는 옷을 입지 않아도 자녀를 입힐 것이다…

아이는 시험이다. 그의 존재도 부재도 아주 힘든 시험이다. 꾸란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너희 재산과 자손들은 하나의 시험에 불과하나니 실로 큰 보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니라."**[3]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이다. 우선 아이가 생기기 위해 기도를 하고 그 다음 그 아이의 건강, 성공, 아름다운 도덕,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기도를 한다. 예언자 자카리야(사가랴)의 아들인 요한(야히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억하라! 이므란(요아킴) 가족이 자녀를 가지기 위해 했던 간곡함과 마리아는 이 간곡함에 대한 응답으로 가족에게 맡겨진다는 생각을 해보아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다시 돌려받으신 것은 부모를 위한 제일 힘들고 강한 인내심의 시험이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자기 목숨을 잃게 된 아들인 이브라힘을 묻고 계실 때 조용히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하라.

아이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시험이다. 우리의 팔에서 자신의 형태를 가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깨끗하고 신선한 삶이 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그리고 아름다운 종이 되도록 그를 도와줄까? 이 까다로운 기탁을 신념의 본성에 따라 키우고 온갖 악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아깝게 사라지게 나둘 것인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털보다 얇고 칼보다 날카로운 다리를 걷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자식은 사람의 천국 열쇠 또는 좌절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족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기탁이다. 아이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삶이다. 꾸란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하늘과 대지의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어 그분께서 뜻을 두시고 계획한 것을 두시고 계획한 것을 창조 하시며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남아와 여아를 주시니라. 그분은 남성과 여성을 다같이 두시고 또한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불임으로 두시니 실로 그분은 아심과 능력으로 충만하시니라."**[4]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 아름답게 자라고 교육하는 데 도움을 준 임무자이며 기탁자, 자원 봉사자이다.

어린 시절은 우주의 중심인 인간의 가장 결백한 시절이다. 부모는 자녀의 존재를 존중하고**"하나님의 기탁"** 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행동해야 한다. 아 '아이는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대로 행동할 것이다! ' 라고 말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는 것이다. 자녀가 기탁이라면 부모들은 기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자녀를 다치게 하거나 무시했는지? 그는 우리 측에서 모욕이나 칭찬을 들었는지? 우리 손으로 맞았는지, 할랄 (허용 된) 음식을 먹었는지? 우리 돈으로 하람 옷을 입었는지, 깨끗한 옷을 입었는지?

아이는 또한 사회에도 맡겨진 기탁이다. 그를 보호하고, 권리를 존중하며 성장과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인 만큼 사회의 의무이기도 한다. 고아와 가족을 잃고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을 껴안고 보호하는 것은 인류의 의무이다.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무슬림들 가운데 가장 축복스러운 집은 고아를 잘 대하는 집이다. 무슬림들 가운데 가장 최악의 집은 고아가 학대를 당하는 집이다."**[5]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상처 있고 외로운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요구이다. 행하는 노력으로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회의 미래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

부모가 되는 것은 종종 빠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기본적은 능력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부모라는 것은 자녀를 먹이고, 옷 입히고, 교육시키며 취업시키고 결혼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이의 몸을 키우고 입히는 것처럼 더위와 추위로 그리고 아픔으로부터 보호하고 심장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알라(하나님)의 메신저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유산은 좋은 성품이니라."**[6] 라고 말씀하신다.

각 아이는 별도의 개인이다. 그는 자신의 선택, 습관, 취향, 아이디어 및 결정을 가지고 있다. 그가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아이는 우리의 최소화된 사본이 아니다. 그래서 그를 인생에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인식함으로써 그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과 창조의 기본 기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이는 적어도 한 명의 성인만큼 존경 받을 가치가 있다. 그는 또한 가장 존경 받는 존재로 창조된 인류 세대의 일원이며, 완벽하다…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아이들과 관계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모범이 된다. 아이를 보면 무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인사하며 안부 묻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가장 훌륭한 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그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아이들의 의견을 얻으며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그들에게 간식을 주고, 기도하고, 포옹하고, 껴안고 뽀뽀한다. 아이를 이슬람 초대의 대담자로 받아 들일 수 있을 만큼 또한 충성을 맹세하기에 충분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다" 고 생각하셨다. 왜냐하면 오직 존경하는 사람, 대담자로 여기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들리는 아이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말씀하시길 **"모든 아이들은 피트라(인간의 타고난 본성)의 상태로, 즉 무슬림으로 태어납니다. 그 후 그의 부모는 그를 유대교, 기독교 또는 배화교로 만드느니라."**[7] 피부색, 인종 및 성별에 관계없이 인간은 선하고 진실함으로 열성이 있게 창조된다. 모든 어린이는 선과 친절을 좋아한다. 아름다움과 미를 향해 간다. 선과 아름다움의 권리는 갖게 된다.

어린이는 성인과 다르다.

어린이들은 특별하다.

성인들이 서로 다르듯이 어린이들도 서로 다르다. 본성은 다르고 창조 코드도 다르다. 모든 어린이는 특별하다. 일부는 침착하고 일부는 활동적이다. 어떤 일부는 식욕이 있고 다른 일부는 조심스러워한다. 어떤 어린이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어린이는 독서를 좋아한다. 어떤 어린이는 부엌을 좋아하고 어떤 어린이는 장난감을... 그들 각자는 성격 특성, 능력, 약점 및 강점을 적절히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행해야 한다.

아이들은 보면서 배운다.

아이들은 성인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흉내를 내며, 우리를 따른다. 아이들은 작은 카메라와 같다. 아주

세밀하게 보고, 사진을 찍고, 명심하고, 여러 번 본다. 그들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 우리가 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쉽게 잊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잊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를 교육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자녀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아이들은 쉽게 믿는다.

아이들은 실제로 성인을 믿고 그들의 말을 쉽게 믿는다. 왜냐하면 성장하기를 열망하며 부모를 찬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목격하면 아주 큰 실망을 하게 된다. 그런 일 다음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잃는다. 그러므로 그들을 정직하게 대해야 한다.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호기심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삶의 모든 것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이다. 물건, 감정, 사람, 동물, 기계… 그들은 관심과 호기심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끝없는 질문을 통해 배우고 세상을 알고 싶어 한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리고 참을성 있게 대답해야 한다. 그들의 질문에 대충 대답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친구 또는 인터넷에서 답을 찾거나 틀린 답변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의 감정을 격려해야 하지만 또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존중하고 한도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은 추상적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

어린아이에 대한 시간, 생각, 감정이 혼란스러운 것이다. 그는 어제 대신 내일을 말하며 슬프다 대신 화가 났다고 말한다. 그는 동화 속의 영웅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요정, 마술, 용 또는 전설적인 존재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문학적 단어, 긴 문장 및 단어 게임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면 의사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 그들이 상상하는 세상에서 생산한 것을 들으면서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다.

모든 아이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모든 것이 그에게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은 그의 봉사할 책임이 있고, 그의 가족 및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안락함을 위해서만 사는 줄 안다. 항상 우선 순위를 원하며 첫 번째가 되기를 갈망한다. 우리의 조상은 "배고픈 사람은 없다는 것을 대답으로 받을 줄 모르고 아이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받아들을 줄 모른다"라고 말했다. 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고 참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자라면서 나누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감정을 숨길 수 없다.

아이들은 너무 결백해서 감정을 숨길 수 없다. 그들은 기쁨, 고통, 슬픔 및 분노를 활기 넘치게 느낀다. 장난감이 깨지면 보고 있는 영화를 끄면, 원하는 과자를 사주지 못하면 아이를 미치게 만들 수 있다. 반면에 작은 칭찬, 한 박스 사탕 또는 풍선,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 오는 순간 그 아이에게 명절 같은 행복을 줄 수 있다. "왜 이렇게 많이 슬프냐?" 또는 "왜 이렇게 화나냐?" 라고 말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라!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왜냐하면 자녀들이 감정을 소중히 하고 통제하는 법을 부모에게 배울 것이다.

아이들은 활력이 넘친다.

작은 몸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통제하기가 어렵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들을 인생에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 에너지이다. 언제나 경고를 주는 압력솥과 같은 폭발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자녀를 조심스럽게 돌보는 법을 배우고 에너지를 재앙으로 바꾸지 않기 위해 현명하게 행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랑으로 훈련된 질서 방법을 사용하여 환경에도 어린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이 운동과 열정을 올바르게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 뿐만 아니라 당신도 귀찮은 결과를 만날 수 있다.

아이의 인식은 성인과 다르다.

아이들은 다른 창을 통해 삶을 본다. 전에 모든 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것이라고 말을 했었다. 이 혁신은 그들을 흥분시킬 뿐만 아니라 불안하게 만든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경험이 없거나 초보자, 무능한 사람, 방책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며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현명하고 차분하고 자발적이고 일관되게 성인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한다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아이는 연령대에 따라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어린 시절은 서로 다른 기간으로 구성되며 어린이는 성장 단계를 거치면서 각 기간의 독특한 특성을 나타낸다. 세 살 때 손을 놓아두고 싶지 않은 아이는 네 살 때 손을 잡기를 거부한다. 청소년 시절에, 당신과 함께 걷거나 친척과 친구들이 있는 공간에 오고 싶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놀랍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유년기와 각 기간의 기본 특성을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아이를 관찰하고 자녀에게 기대할 때 적당해야한다.

아이들과 의사소통할 때 무엇에 주의해야 할까?

의사 소통은 인간이 자신을 표현하고 주변의 살아있는 생물과 물건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이다. 의사 소통은 말로만 또는 단어로만 된 것이 아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종종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해석한다. 미소, 찡그림, 눈 깜박임, 등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많은 행동은 아이와 의사소통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아이와 부모 사이의 소통은 자궁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화끈하고, 가장 가까우며, 가장 귀중하며 가장 직접적인 의사 소통이다.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의 부모와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다양해진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그들과 어떤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웠다면, 같은 방법으로 인생의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건강한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부모는 아이가 평생 소원과 필요를 상처를 주지도 입지도 않으면서 충족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자녀와의 건강한 의사 소통에서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가?

그들이 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른들은 자녀가 만든 문장, 그의 걱정, 두려움 및 실수를 이해해야 한다. 그가 "어린이"임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반응해야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대추 야자 나무로 돌을 던지는 아이를 다른 이들이 자신에게 처벌받을 수 있게 데려왔을 때 그 아이와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불만을 듣고 나서 아이에게 눈을 돌리면서 **"왜 나무로 돌을 던지냐?"**라고 물으셨다.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게 되자 **"대추 야자 나무에 돌을 던지지 말고 밑에 떨어진 열매를 먹어라."**라고 하시며 그에게 바른 것을 가르쳤으며 그를 처벌하지 않고 그의 머리를 어루만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기의 배를 부르게 해주십시오."**[8] 라고 기도하셨었다. 그는 화를 내지 않고 모욕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아이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하셨고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아이에게 가능한 빨리 자신의 실수에 대한 보상받을 기회를 주었다.

먼저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듣는 것은 예술이다. 어른들은 본인이 말을 하기 전에 아이의 말을 들어야 한다. 듣는 척하는 대신 실제로 들어야 하며 크고 중요한 사람을 듣는 것처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녀는 자기 생각대로 정당하고 유효한 이유가 있음을 명심하며 친절한 방법으로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너를 이해한다.",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장난감을 나누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다" 와 비슷한 표현으로 자녀가 의사 소통을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 아이는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몰아내거나

꾸짖는 것보다 하고 있는 대화를 미루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좋다.

우리 자녀들이 피난처를 취하고 자기 상태를 말하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우리 밖에 또 있는가? 자녀들이 말을 할 때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가? 말을 중단하고 비판하고 질문하고, 질책하고 또는 조롱하면 어떻게 그들이 다시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가?

간단하고 건설적인 문장으로 이야기하자.

아이들의 인생 경험이 적을 뿐만 아니라 아는 어휘도 좁다. 그들은 긴 문장, 속담 및 관용구 같은 비유를 종종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해되기를 원한다면 짧고 간단한 대화를 해야 한다. 간접적인 말을 그만하고 직접적인 문장을 만들어야 되고 어조가 불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야기할 때 온몸으로 아이에게로 돌아보면 우리의 말을 더 잘 듣게 해줄 것이다. 자녀의 손을 잡고, 등이나 어깨를 만지고, 눈을 보고, 서 있으면 그의 키만큼 허리를 굽히면서 말하는 것은 아이가를 안전시키고 편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작은 전술이다.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며 사랑을 하며 사랑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한다. 그들이 이것을 듣지 못하거나 보거나 느끼지 못하면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귀중하고 특별하며 빠뜨릴 수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들을 형제나 친구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한

아기가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한 만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가득한 태도가 그 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 지역에서 가족의 어른들이 있는 곳에서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가? 그러나 사랑을 보여주는 것과 말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습관이다. "저는 열 명의 자녀가 있지만 그 중 어느 한 명에도 뽀뽀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돌아보며 **"자비가 없는 자에게는 자비가 없다!"**[9] 라고 말씀하신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였다. 이 이야기는 특히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귀중한 메시지인가!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비싼 옷이나 장난감이 필요하지 않다.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작은 칭찬으로 기분을 좋게 하고, 달콤한 말로 마음을 얻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모든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조언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자녀에게 사랑을 제공한다면 그는 건방지지 않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한 무릎에 우사마를 다른 한 무릎에 손자 하산을 앉게 해서 껴안고 **"오 하나님! 이 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나는 그들에게 동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10] 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자리는 대체할 수 없다.

어머니가 돈보이긴 해도 아버지는 자녀의 성장에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한다. 존재와 부재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 그림자 같은 아버지의 이미지는 소녀와 소년 모두를 위해서 유아기로부터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자기 자식에게 시간을 주며 안심하게 그를 포옹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에 침착하여 참을성 있고 건설적인 아버지는 자녀의 삶의 시금석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

(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삶을 읽을 때 아버지는 자비의 상징이라는 것을 본다. 그는 지도를 하고 규칙을 정하지만 징계와 폭력을 혼동하지 않는다.

우리의 어린 기탁은 삶의 투쟁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얻는 것과 자신감과 건전한 성 정체성을 발전하기 위해 그의 어머니만큼은 아버지도 필요하다. 아버지와 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고 희망으로 인생을 바라 본다. 반대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아버지의 관심을 잃으면 팔이 부러지고 물질적과 영적 위험에 취약해진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와 그의 막내 딸 파띠마의 관계가 이에 대한 좋은 예이다. 파띠마가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맞은 편에 서서, 이마에 뽀뽀하고 그녀를 본인 오른쪽에 앉게 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젊은 처녀, 결혼부터 모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서 딸을 지원했다. 그러한 관심에 어떤 마음이 무관심할 수 있나? 파띠마는 아버지 덕분에 존경하는 딸, 재치 있는 어머니와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다.

아이에게는 권리가 있다

지구의 명예로운 대리인으로 창조된 인간은 모든 연령대에서 소중하며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린이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가족과 살고 있는 사회의 의무 즉 우리 의무이다.

생명 권리

"모든 어린이는 삶과 발전의 권리가 있다." 사실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만 아이는 그들에게 큰 놀라움을 줄 수도 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섬세한 기탁을 받아드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의 존재를 부모님도 본인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삶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핍의 두려움으로 너희 자손을 살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나니 너희에게도 마찬가지라. 그럼으로 그들을 살해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11] 라고 경고하시니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반면에, 단지 소녀였기때문에 슬퍼하고 수치심을 느끼며 괄시를 받고 굴욕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되는 자손도 있다. 꾸란은 이러한 부도덕함을 이런식으로 설명한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이 검어지며 슬픔으로 가득 차더라. 그에게 전해온 나쁜 소식으로(!) 그는 수치스러워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숨기며 그 치용을 참을 것인가 아니면 흙 속에 묻어 버릴 것인가! 생각하였나니 그들이 판단한 것에 불행이 있으리라!"**[12] 그러나 가족들은 이 아름다운 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탁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딸들에게 잔인한 사람들에게 내세에서 그들에 행동에 대해 심판을 할 것을 알려준다. 부모가 되는 것은 생명과 생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름에 대한 권리

"모든 아이는 태어날 때 인간의 존엄성에 어울리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게 귀에 잘 들리는 음과 뜻이 좋은, 자식이 부끄럽지 않을 이름을 지어야 한다. 이름이 아름답고 자기가 아름다운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신생아를 데리고 왔을 때 이름을 짓고 선의 기도를 하셨다. 또한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뜻이 안 좋은 이름을 바꾸기도 하셨다.

"심판의 날에 당신은 당신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어라."[13]

부모를 알 권리

"모든 아이는 부모를 알고 그들로부터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람에게는 자기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족을 아는 것은 아이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개성을 향상시키며, 자신을 인식하고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혈연이라는 것은 신의 뜻이다. 따라서 아무도 자식을 부인할 권리가 없으며, 아무 자녀도 부모 이외의 다른 혈통에서 왔다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

"누구 일부러 자기 자식을 부인한다면 알라(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그로부터 멀리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망실시킬 것이다."[14]

가족과 함께 살 권리

"모든 아이는 가족과 함께 살 권리가 있다." 어머니의 품과 아버지의 집의 따뜻함을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 어떠한 좋은 조건으로 자라도 한 자녀는 부모의 관심, 신뢰와 애정을 필요로 한다. 그런 이유로 부모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사회는 생계 때문에 힘들어 하는 가족이 약해지지 않거나 완전성을 잃지 않기 위해 지원하고 부모를 자녀로부터 분리시키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누가 어머니와 자녀를 분리 시킨다면 알라(하나님)께서도 심판의 날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할 것이다."[15]



생각이 중요시될 권리

"모든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때때로 어린이의 아이디어는 어른들에게 웃기고 단순하게 들릴 수 있다.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말하는 아이는 부모를 반대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와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고 생각이 존중받지 않는 아이는 자신의 정신 발달을 완료할 수 없다. "다 커서 이야기하라!"라고 침묵시키는 아이는 논리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얻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모범 행동들을 보도록 합시다. 그분은 그의 손자와 주변의 다른 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고려하셨었다. 어느 날 그는 음료를 대접하기 위해 그의 오른 쪽으로 돌았다. 오른쪽에는 아이가 있고 왼쪽에는 교우 중에 노인들이 있었다. **그는 "음료수를 먼저 노인에게 줘도 될까?"**라고 아이에게 물었다. 그러나 이 똑똑한 아이는 "안 됩니다. 맹세코 당신에게서 온 저의 축복을 놓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이에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그 아이부터 시작하셨다.[16]

존엄성이 보호되어야 할 권리

"모든 아이는 존엄성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인간이 되는 것은 품위 있는 삶의 권리를 갖기 위해 충분하다. 아이를 부르거나 그와 대화를 나눌 때 일을 맡기거나 징계할 때 아이를 경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친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쓰는 애를 대부분의 경우 아이를 위해 쓰지 않는다. 우리는 친구의 실수를 쉽게 용서하지만 자녀의 어색함과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어린 아이들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 인내심과 돌봄과 자비와 친절을 누릴 자격이 있다. 존엄이 상처 나고 경멸을 느끼는 아이는 자신감을 잃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7 살 때부터 자기와 함께 자라는 아나스 이븐 말릭을 `우리 아나스` 또는 `내 아들` 이라고 부르기도 하셨다. 그는 거칠게 행하지 않고 실수했을 때 고함을 지르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저주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을 잡고 그를 맞는 길로 인도하셨다. 아나스 이븐 말릭이 전하길: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 10 년 동안 봉사했다. 맹세코 그는 한 번도 "어휴!"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 어떠한 이유 대문에도 "왜 그랬냐?" 또는 "그렇게 했더라면..."라고 꾸짖지 않았다."[17]

배울 권리

"모든 아이는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소설 영웅들 같이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이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먼저 가족에서 알게 되고 삶의 시험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부모로부터 배울 것이다. 스스로 돌봄 및 음식 예절과 같은 간단한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학령기에 가르치는 더 복잡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린이는 배움과 습관을 습득할 때까지 지원할 권리가 있다.

놀이 할 권리

"모든 아이는 놀이를 할 권리가 있다." 놀이는 단순히 시간 보내기 및 오락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놀이는 어린이에게 아주 소중한 학습 수단이다. 놀이는 규칙을 지키고, 줄을 기다리며, 지고 이기고, 인내심을 갖고, 사회적 역할, 의사소통,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놀이를 하는 동안 배우는 아이들을 위한 삶이다. 부모는 어린이의 놀이를 용납해야 한다. 자기의 어린 시절, 연의 흥분, 공기 놀이의 결정, 소꿉놀이의 행복, 땅의 열기, 공의 자유, 구슬의 반짝임을 기억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로부터 멀어진다. 또한 좋은 부모는 자녀의 놀이를 허용하거나 놀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에 참여하기도 해야한다. 놀이 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아이와 부모에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가족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드문 시간이다.

마흐뭇 이븐 라비가 전하길 **"내가 다섯 살 때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기대어 물통에서 입으로 물을 가져 와서(장난으로 놀기 위해) 내 얼굴에 뿌린 것을 기억합니다."** [18]

학대 및 소홀함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아이가 하나님의 기탁이라고 말했었다. 그런 이유로 성인들은 모든 종류의 악, 소홀 및 학대로부터 그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부모는 자녀의 물질적 및 정신적 필요에 대해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모들은 형평이 없을 수 있으나 아이를 방치하지 않는 것은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며 그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소홀하지 않다는 것은, 신체적인 필요만큼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필요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해서 아이를 소중히 하는 것이다. 때로는 몇 마디 애정을 담은 말은 비싼 초콜릿보다 더 맛있고 장난감보다 더 가치가 있다.

어린이 교육은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다. 양육한다고 해서 아이를 때리거나 비명을 지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몸때리고 영혼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함으로써 처벌하는 것은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생활 방식에는 절대 맞지 않다. 아버지, 할아버지와 무슬림들의 지도자인 자비의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어떤 아이에게든 상처를 주지 않았으며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심하게 경고를 하셨다. 그의 원리는 분명하다: **"아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며 장로들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19]

아이의 노력은 남용될 수 없다. 18 세 미만의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 아동으로 간주된다. 아이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고용되어서는 안되며 배움과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된다. 책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손은 공업에서 변색 되어서는 안되며 게임에 만족해야 할 마음은 작업 부하로 인해 부서지지 않아야 한다.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여 일을 하고 있다면 노동의 대가가 완전하게 전달 되어야 하고 그의 힘을 넘어가는 일을 시키면 안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아이들은 악의적인 사람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체적 경계를 지키는 것(프라이버시)과 신체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한계를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모든 어린이는 자신의 문화를 알고,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고, 종교와 국가를 인정하고 사랑하기 위해 어른들의 인도를 받을

것을 필요로 한다. 텔레비전, 잡지 및 인터넷과 같이 쉽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영역에서 아이를 안내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 결과로 오늘 보호받고 교육 받는 어린이는 내일의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1 부카리, 아답, 81.
2 알 이므란, 3/38.
3 알 안팔, 8/28.
4 슈라, 42/49-50.
5 이븐 마제, 아답, 6.
6 티르미디, 비르, 33.
7 부카리가, 제나이즈, 92.
8 아부 다우드, 85.
9 부카리, 아답, 18.
10 부카리, 아답, 22.
11 알 이스라, 17/31.
12 나흘, 16/58-59.
13 아부 다우드, 아답, 61.
14 아부 다우드, 탈라크, 28-29
15 티르미디, 부유, 52.
16 무슬림, 아쉬르리바, 127.
17 무슬림, 파자일, 51.
18 부카리, 일므, 18.
19 티르미디, 비르, 15.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군대는 룸(로마 제국) 땅을 향한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그를 어머니처럼 돌봐주었던 움무 아이만과 해방된 노예 자이드의 결혼에서 태어난 우사마를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젊은 교우에게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는 것에 대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청년이 이러한 심각한 의무를 수행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게다가 사령관으로 임명받은 군대에서 교우들 중 게다가 사령관으로 임명받은 군대에서 교우들 중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돌아다니는 말하고 걱정하는 것을 본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교우들을 모아서 말씀하셨다."너희들은 지금 우사마의 명령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예전에 그의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도 의심하고 있었다. 맹세코 자이드가 이 임무에 합당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것처럼 의심 할 여지 없이 우사마는 그의 아버지 다음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 중 하나이다[1]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이 말씀으로 그날 이후의 반대 의견은 모두 삭감되었고 젊은 우사마는 용감해졌다.

가족에 한 젊은이가 있다

바이락타르 카라한 파트마 박사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말씀하시길:

"다섯 가지가 오기 전에 다섯 가지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노인이 되기 전에 젊은 시절, 질병 전에 건강, 무언가의 부재 전에 존재, 바쁜 시간 전에 여유 그리고 죽음 전에 삶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하킴, 무스타디락, IV, 341)

청소년이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대…어린 시절에서 나온다는 흥분으로 돋아 나는 희망의 샘…매일 발전하고 강화되는 신체, 풍부한 감정, 발견되는 영적 호흡... 어느 날이 되어서 얌전해지고 성숙해지고 성인으로 인간 가족에 합류할 성격의 구축되는 해...

청소년... 인생의 서두르는 걸음으로 경험하고 잃고 싶지 않은 시간이다... 인간의 행복 나라는 천국이며,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대는 젊은이들로 묘사되어 있다.[2] 사람들에게 모든 축복과 같이 다른 모든 축복이 요구될 것이다. 하나님께서"**그런 후 너희는 너희가 탐닉 했던 향락에 관하여 질문을 받을 것이라.**"[3]라고 말씀하신다. 어디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냈는지, 재산을 무엇을 위해 썼는지, 아는 지식과 일했는지, 어떻게 몸의 기운을 빠지게 하며 젊음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인간에게 질문될 것이다.[4] 왜냐하면 이 시대는 가장 아름다운 시대를 잘 사용하고 전체를 소비해서 인생에 준비해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청소년 에너지가 전달 될 때, 역사 전체에서 본 것처럼 큰 아름다움이 나타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혼자서도 우상 숭배자와 싸우지 않았나?[5] 모든 부정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유수프는 정직하고 순결로 본인 욕망에 "멈추라"라고 말해서 어린 나이에 이집트에서 수상이 되지 않았나?[6] 그리고 아삽 알 카흐프(Ashab al kahf)... 동굴의 사람들... 그들은 꾸란에서 주제가 되지 않았나? 그들은 어린 나이에 믿는대로 살 수 있기 위해 고향을 떠났다. 그들은 옳은 것을 믿는 것과 정직한 자세로 꾸란의 찬양을 받았다.



"보라 젊은이들이 동굴로 은신하여 말하길 주여 저희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라고 하였더라. 하나님은 그들을 듣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년간 그곳에 있게 하노라. 그런후 하나님은 그들을 잠에서 일깨웠으니 이는 두 무리중 어느 무리가 그들이 지체한 수년간에 대한 계산에 우월한지 알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그대에게 진리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노라. 그들은 믿음을 가진 젊은이들이었으니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었노라."[7]

에너지, 힘, 흥분이 절정에 이르는 젊음의 시대는 "성장, 성숙" 의 뜻이 있는 청소년기부터 시작된다. 어린 시절이 이제 끝난 것이다. 젊은이의 성장하고 있는 몸과 발전하고 있는 정신으로 삶에 더 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먼저 인생을 위해 준비해야 하며, 그렇기에 자기 자신과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자기 한계를 모두가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며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항소를 하고 반란하고 때때로 모든 것을 거절하고 "안 된다" 라고 말을 한다. 이러한 반대 의견은"나는 다르고 성인이야!"라고 말하는 것의 또 다른 형태이다. 더 이상 아이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 당신의 존재에 대한 존중과 신뢰함은 실제로 젊은이를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이슬람을 비밀로 알려주는 메카에서 초기 때 하나님의 꾸란 구절을 알려주기 위해 열일곱 살 된 아르캄의 집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슬람은 청년의 집에서 돋아났다. 알라(하나님)의 예언자(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젊은이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면서 스스로를 개발하고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청소년들을 배정할 때, 그들에게 또한 경험이 없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지식과 신뢰를 심어주었다. 예를 들어, 그가 예멘에 카디(재판관)로 임명되었을 때 젊고 미숙한 이유로 소심하게 행하는 알리를 격려하고, **"하나님, 그의 마음에 인도하고 언어를 확고히 하십시오!"**라고 두아(기도)를 하며 마음을 안심시켜서 사건을 판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하나님의 예언자(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이러한 두아와 독특한 지원을 받은 알리는 "그 후로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판단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때 느끼는 자신감의 가장 좋은 예이다.[8]

마디나에 마스짇 바로 옆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교육을 주고 직접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였다. 과학에 전념하는 이 젊은이들은 Ashab-al Suffah (사면이 열려 있고, 상이 대추 야자 나무 가지로 덮여 있는 차광막)로 알려져 있다. 압둘라 이븐 우마르, 압둘라 이븐 마수드, 압둘라 븐 압바스, 무아즈 이븐 자발 그리고 아나스 이븐 말릭은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와 함께 젊음을 사는 가장 유명한 동료 중 일부이다.

젊은이들의 필요는 단지 경험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얼마나 격동적인지 감정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음을 원한다. 그들은 감정을 집중적으로 경험한다. 따라서 그들은 터키어 단어 중에 `미친 피`라는 뜻으로 `delikanl ı ` 라는 단어로 불린다. 그들이 바람, 욕망, 흥분, 자부심, 폭력과 같은 감정을 절정에서 느끼는 것은 좋지만 위험이 있다. 부정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은 실수의 배경을 설정한다. 감정 파열은 때로는 옳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상황에 빠지게 한다.



이런 이유로 예언자 무함마드 (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청소년의 감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를 그들의 마음이 상처 받거나 아프거나 굴욕을 주지 않으면서 막았었다. 비난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하고 설득시키면서 그들을 실수에 대해 인식시키고 죄에 대하여 강화시켰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언어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의식으로 자라고 젊음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하람(금지 되는 것)을 하지 않은 젊은이는 하나님의 그림자 외에 다른 그림자가

없는 참혹하는 종말의 날에 왕좌의 그림자에 의해 가려질 7 부류의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닌가?[9]

어린 시절에 성인으로 전환하는 동안 젊음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복음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과 민감한 세대를 키우려면 먼저 그들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 젊은이는 누구일까?

나는 젊다!

내 감정은 다양하다. 항상 불안정하고 때로는 변덕스럽게 보이는 것은 그렇기 때문이다.

젊은이는 사춘기와 함께 빠른 변화를 따라야 한다 이 신체적 변화는 그에게 정신적,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종종 신경질 상태를 보여주거나 짜증내거나 민감하게 행동할 수 있다. 굴곡이 많은 삶을 산다. 한 관용구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면, 노인들이 할 수 있다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의 감정은 종종 그의 판단 능력을 무시한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것,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지만 그가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목표에 대한 가끔 분노를 느낀다. 상대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특히 이성의 의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모든 것보다 중요하게 보일 수 있다.

"나는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고 싶다.

청소년기로 시작한 시기에 체계적인 사고 기능이 발전한 젊은이는 자기 자신, 삶과 모든 규칙에 대한 심문이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는 원래 있는 체계 내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는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새롭고 다른 사람,

개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는 의복, 말투 및 머리 스타일로 다르게 보이려고 실험을 한다. 어떨 때 깔끔하고 어떨 때 당신과 완전히 다르고...

어떤 목적을 얻고 이와 부모가 기대하지 않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분야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꿈을 꾼다. 그날까지 그는 어른들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건축 자재로 사용하고 자신을 만든다. 그는 호소하고 비판하고 가장 올바른 생각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다. 그는 조언을 듣고 싶지 않은 것도 이런 것 때문이다. 우리가 조금 인내심을 가진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그의 시련을 용인할 수 있다면 그의 향로를 찾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친구를 사귀고 한 그룹에 속하고 싶다.

젊은 시대는 스스로를 증명하는 시대이다. 젊은 사람은 존재를 보여줄 공간은 만들고 싶어한다. 그에게는 소속감이 중요하다. 더 이상 가족으로 제한되지 않는 넓은 지역에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지원을 받기 시작한다. 신원을 만들 때 그룹에 속하는 것, 그 그룹에서 자신이 존재하는 것, 에너지를 이러한 분야에서 쓰는 것은 젊은이들이 선택하는 태도이다.

젊은이들은 이 소속감을 종종 친구 그룹 내에서 느낀다. 동료들에 의해 인정 받는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을 향상시키고 친구들 덕분에 그는 자신이 더 존경 받고 신뢰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 느낀다. 그는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같은 문제와 경험을 가진 친구들과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를 이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복하고 자유롭다.

나는 독립하고 싶다.

젊은 사람들 생각에 자유란,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사람이 된다는 것과 단순히 다 자랐다고 인정 받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내가 새롭게 무엇을 생각할까?", "다른

창에서 어떻게 삶을 볼 수 있을까?",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노력을 한다. 반대하는 것과 언제든지 토론하기 위해 준비 되어 있다는 것은 자유를 위한 투쟁 때문이다. 부모님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더라도 이것이 자기 독립을 방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독립의 표시이다.

그가 "아니요"라고 하지 못하게 되면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느리게 움직이고 절망하며 무관심한 태도는 젊은이들의 수동적 저항을 반영한다. 그는 말한 내용을 무시할 수 있으며 장로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젊은이는 자신의 세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심각한 희생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것을 이제 배우고 있다. 토론, 아이디어 제안, 사회적 규칙…

이제 어린 시절을 떠난 젊은이는 가족, 학교, 이웃 및 친척 사이에서 더 많이 등장하고 사회 생활에서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회적 규칙을 배우고 이해하려고 하고 다른 반면에서 심문하고 변경하려고 시도한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어린 시절 때 배우고 나이가 들면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인생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미래에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가끔 그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다.

젊은이들은 또한 사회적 수용이 필요하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젊은이를 위해 종종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과 자신을 위한 자리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그는 책임을 져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해도 대부분의 경우 성인은 이것을 위해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젊은이는 존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해되는 것, 인정 받는 것과 자기를 중요하게 느끼는 것을 원한다.

젊은이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의 말을 들어봐라.

건강한 방법으로 젊은이들과 의사 소통하고 싶은 성인은, 비록 그가 말하는 것이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그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방해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내야 한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의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젊은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를 듣는 자와 유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건강한 의사소통의 존재와 효과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에게 충성심을 가진다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어느 날 자신의 욕정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간통을 범하고 싶다고 말하며 허락을 요청한 청년과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사이의 대화는, 놀랍게도 부모와 성인에게 매우 귀중한 예이다. 젊은이의 고통과 요구에 대해 들었던 일부 교우들은 즉시 그를 침묵시키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신저는 그들을 허용하지 않으며, 젊은이를 자기 옆에 앉게 해서 그에게 차례로 물어보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이 그 젊은이의 어머니, 딸, 자매, 고모나 이모와 간음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냐고 물었다. 젊은이는 매 번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다. 하나님의 메신저는 매 번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을 차분히 설명하셨다. 드디어 이 의도를 포기했다고 말하는 젊은이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두아(기도)로 영광을 받았다. **"나의 하나님, 이 젊은이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하여주시고 강간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시오!"**[10]

청년이 대화하기로 결정하는 것과 문제나 요구를 말하는 것은 부모에게 그와 연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대부분의 경우 젊은이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기를 꺼릴 수 있다. 문제를 듣지 않는 젊은이들이 우리가 찾은 해결책을 듣지 않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라. 비교하지 말고 인정하라.

모든 인간은 다르고 또 다른 세계이고 하나뿐이다. 젊은이들은 형제 자매, 친척, 친구, 심지어 부모와 비교하면 그들의 성격이 손상될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대하고 그를 자신의 방식으로 그를 받아 들여야 한다. 모든 젊은이들은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오거나 나중에 노력으로 발전시킨 아름다운 특성들에 대해 칭찬 받을 가치가 있다. 그가 한 일에 관심 가지고 우리가 그를 정말 칭한할 수 있는 기회를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는 절망을 느껴서 노력을 포기하거나 당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자신을 찾고 삶의 길을 만들려고 갈망하는 청년은 보통 조언에 귀를 막고 있다. 젊은이와 함께 그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엎지르고 놀리고, 상처 주지 않고, 건설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가 만들려고 하는 성격을 거스르지 않고 이야기해야 한다. 비록 우리는 일생 동안 다른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최고의 창조자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되는 영광" 에 대해 평등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차분하고 인내심 있게 행동해야 한다.

부모로서 젊은 사람과 긴장을 경험하는 것은 쉽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젊은이와 충돌할 때 진정해야 한다. 우리는 나이가 그보다 많은 것을 기억하면서 최소 저항선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와 큰소리로 논쟁하면 안되고 그를 위협해서도 안된다. 긴장을 높이는 것은 단지 우리의 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다. 우리의 지속적인 고집을 부리면 그는 버틸 것이며, 우리 사이의 사랑과 존중의 유대가 닳아 떨어질 것이다.

부모는 젊은이가 부상할까봐 두려워한다. 사고가 발생할까봐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마음이 떨리면서 걱정한다. 같은 식으로, 마음이 상처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조심해야 한다. 때때로 젊은이는 눈치 채지 못하고 당신이 그의 선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없다. 인생은 때때로 고통스럽게 배워야 한다. 그럴 때 부모가 해야 하는 것은 인내심과 두아(기도) 하는 것이다.

실수 말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부모는 열정적이거나 내성적인 젊은이를 참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의 위법 행위에 대해 화를 내고 슬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젊은이의 잘못이 아무리 커도 부모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자녀에게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모든 상황에서 계속될 것임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젊은이는 실수를 해도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부모의 도움으로 실수를 시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아마도 가장 사랑을 느껴야 할 시대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이 실패나 실수의 슬픔을 겪는 날에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젊은이는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이 실수를 포기하고 올바른 길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받은 사랑 덕분에 매일 도덕적 가치를 점점 더 많이 받아들일 것이다.

부모 뿐만 아니라 젊은이 모두가 배워야 할 근본적인 원칙은 인생에 실수와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 또는 실수를 깨닫고 올바른 길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수를 깨닫게 되면 그 실수는 중요한 교훈을 포함한다.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책임을 주어라.

젊은이는 자신감이 발달해야 한다. 결정을 내리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리더가 될 수 있기 위해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먼저 우리가 그를 신뢰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생각을 물어보고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명령에 의해 억압 받고 성격이 무시되는 청년은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결정을 고수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성인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제안이 잘못되어도 정신적인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미래에는 자신감이 있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능력을 쓸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어야 한다. 집에서 말할 권리나 책임이 없는 젊은이는 사회 생활에서 약화될 것이다. 부모가 지속적으로 실수를 감추고 부족함을 보상하고 무책임함의 결과를 견딜 수 있게 허락을 받지 못 하는 젊은이는 강해질 수 없다. 그러나 젊은이의 삶이 독립과 책임과 균형을 이룰 때 성공의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그에게 당신의 한계, 규칙 및 기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부모는 젊은이에게 올바른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과 도덕적 경계를 보여주고 그 기대에 대해 일관되어야 한다. 인생의 초보자인 젊은이는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기회를 승인하거나 거부 할지 결정하기 위해 한계를 배워야 한다. 명확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기대는, 젊은이들에게

방향을 부여하는 것 대신에, 갈팡질팡하고 잘못되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된다.

반면에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비일관성적 규칙은 젊은이들이 가치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준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늘 환영하는 것을 내일 용서하지 않는 것, 오늘 허용하지만 다음날에 금지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정직하고 성실할 때 어려움을 줄 것이다. 가족은 평화롭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경계와 규칙은 탄탄한 표준으로 결정하는 환경이어야 한다. 변동성, 불확실성, 불일치가 부모가 아니라 젊은이에게는 정상일 수 있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라.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청소년기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도 젊은이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시기이다. 사실은, 조언을 듣는 것은 젊은이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일이며, 젊은이에게 다가가는 길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이 되는 것이다. 젊은 사하바(교우) 압둘라 마수드는 말씀하시길: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설교와 충고를 우리를 당황하지 않기 위해 특정한 날에 하곤 하셨다." [11] 길고 지루한 연설을 하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항상 행위 및 태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주었다. 우리의 행동도 다른 사람들에게 얻게 하고 싶은 행동이어야 한다. 우리의 말과 행동, 행동은 가치와 일치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 의미를 찾게 하고 젊은이의 우리에게 존중이 유지될 것이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명령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받았다: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면서 입으로만 말하느뇨. 너희가 말하고 행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증오스러운 것이라."**[12] 왜냐하면

행동에 맞지 않은 말은 쓸데없고 말에 맞지 않은 행동은 거짓이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는 말이 의미 있고 행동이 진실해야 하는 것이다. 부모의 올바른 행동은 그들의 말을 효과적으로 만든다. 말이 영향력적인 부모와 젊은이 사이의 관계는 힘을 얻는다.

긍정적인 친구들을 사귀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의 친구를 알아야 한다.

사춘기로 시작하는 청소년기에서 우정과 친구가 모든 것보다 우선이다. 사회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젊은이들은 이것을 친구 그룹에서 가장 쉽게 달성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연대, 자기 표현, 달래는 것, 자신의 권리를 찾고, 사과하는 것을 친구들 사이에서 배울 것이다. 따라서 그는 다른 사람보다 친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행동해야 한다. 아이가 친구를 사귀도록 격려하고 자기들의 "아들 / 딸의 친구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한다.

다른 한편으로, 젊은이의 친구의 가족을 만나는 것은 그가 상호 작용하는 환경을 탐구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가족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혼합해서 공통의 문화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의 친구를 만나는 부모는 이런 식으로, 그와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세우고 경계를 흔들지 않고도 물질적, 영적 위험으로부터 젊은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경고를 기억하는 것이 유용하다: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의 예는 사향 소지자와 풀무를 부는 자와 같다. 사향 소지자는 사향을 대접하거나 당신은 그 소지자에게 사향을 사거나 좋은 향기를 맡는다. 풀무를 부는 자는 당신의 옷에 불 붙이거나 그로부터 안 좋은 냄새를 맡는다!"**[13]

젊은이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젊은이들의 힘과 생명 에너지가 절정에 달했다고 말했다. 젊은이란 에너지이다. 그러한 이 시기에 사람은 선과 악 모두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알라(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에너지를 억제하지 말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넘쳐가는 에너지를 쓸 수 없을 때 그들은 분노의 폭풍이 생길 수 있다. 극단적인 활동과 죄의 유혹 위험을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폐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에너지는 스포츠 활동, 정신 및 신체 활동, 문화 및 예술 활동으로 유용한 영역으로 옮겨져야 한다.

젊은이들은 이상주의자이며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 통제하기 어려운 에너지와 이상주의적 구조로 젊은이들은 쉽게 학대 그룹의 대상 그룹이 될 수 있다. 역동적이고 흥미 진진한 구조로 유망한 젊은이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은 그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부여하고 그를 옳고 유익한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젊은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모든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없다. 슬픔과 실망이 우리 마음에 나타날 수 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 운, 젊은이, 우리가 사는 시대를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 보일지라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묘목이 자라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열매를 주는 성숙한 나무가 되려면 지속적이고 결단력 있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야곱의 후손의 두아(기도)와 마찬가지로, 수년이

걸려도 알라(하나님)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젊은이의 선과 행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라고 해서 젊은이로부터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의 근심과 슬픔을 하나님께 호소 할 뿐이라 또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노라. 아들들아 가서 요셉과 그의 동생 벤자민에 관해 알아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포기하지 말라. 실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실망치 아니 하나니 불신하는 백성들은 그렇지 아니 하니라." [14]

[1] 부카리, 메가지, 88.
[2] 알 와끼이, 56/17.
[3] 타카쑤르, 102/8.
[4] 티르미드, 스야툴 알 끄야마, 1.
[5] 알 안바야, 21/51-70.
[6] 유스프, 12/23-56.
[7] 알 카흐프, 18/10-13.
[8] 이브니 마자흐, 아흐캄, 1.
[9] 부카리, 아단, 36.
[10] 이븐 한발, V, 257.
[11] 부카리, 일므, 11.
[12] 사프, 61/2-3.
[13] 무슬림, 비르와 슬라, 146.
[14] 유스프, 12/86-87.

한 노인은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를 보러 왔었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하는 말을 듣고 질문을 하고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의 평화를 느낄 것이였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주변이 군중이었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아름다운 얼굴, 달콤한 말을 감탄한 메디나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노인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으며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를 위한 자리를 찾을 때 너무 느렸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상황을 눈치챘다. 한 노인이 서 있는 상황, 수년을 오늘까지 옮긴 자의 마음이 상하는 것에 눈을 감지 못했고 군중에게 소리 쳤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자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구성원이 아니니라."[1]

가족에 한 노인이 있다.

악타쉬 무루벳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말씀하시길:

"한 젊은이가 나이 때문에 노인을 존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나이가 들면서 그를 존중할 사람들을 준비하실 것이다."

(티르미디, 비르와 슬라, 75)

노년이란 무엇인가?

터키 문화에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에게 "ihtiyar(이히티야르)" 즉 "노인"이라고 부른다. "ihtiyar(이히티야르)" 이란 단어는 "중요한, 선택된, 경험이 많은 자"라는 뜻이 있다. 사회에서 자기 의견을 문의하고 그 의견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의 정체성을 가진 노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예이다. 노년은 모든 피조물의 공통된 운명이다. 어린 시절, 젊음 및 성인이 된 후에 인생 여행의 새로운 정점에 들리는 것이다. 이 정점은 저녁과 계절 중에 가을과 비슷하다.

늙으면 변한다. 얼굴에 깊은 흉터가 생긴다. 안타깝게도 이 변화는 우리의 얼굴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반영된다! 그러나 수년 동안 쌓인 경험으로 새로운 창을 통해 삶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뒤에 늙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 그들처럼: 건축가 시난이 쉴레이마니예 모스크를 완성했을 때, 갈릴레오는 달의 일간 및 월간 그림을 만들었을 때 이미 70 살을 넘었었다. 파스퇴르는 광견병 세균을 발견했을 때 60 세였고 사디는 귤리스탄 (Gulistan)을 썼을 때 80 세였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한다. 우리의 기억력이 약해지고, 오감이 감소하고, 신체의 이동성이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질병에 익숙해져야 할 수 도 있다. 수년간의 피로를 느끼고 때로는 힘이 빠진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이 무기력이 생명을 마비시키는 단계에 이르지 않기를 위해 기도를 하셨다. **"오 나의 하나님! 게으름, 무기력한 노인이 되는 것, 죄와 빚에서 당신에게 도피합니다."**[2] 우리 몸과 마찬가지로 가족, 친척 및 이웃과의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가장 성숙한 시간을 산다. 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청소년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노년은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말씀하시길 :**"인간은 자라면서 물건에 대한 사랑과 장기적인 인생의 희망도 함께 자란다."**[3] 실제로, 노년기에 인간의 상실은 때때로 부정적인 특징이 나타날 수 있게 한다. 부와 돈에 빠지면서 호전적이고 무능하며 극도의 세심함, 무관심, 촉감 같이. 다른 한편으로, 모든 사람과 동등한 거리에 있는 사실이 무시되는 죽음에 다가가는 감정은 원망, 삶에서 벗어나는 것, 미래의 불안, 절망과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불멸의 삶에 하는 만남의 인사이다. 죽음은 영혼을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노화는 또한 축복이다.

오래 사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더 경험이 풍부한 정신으로 더 성숙한 마음으로 더 많은 아름다움을 생산하고 살 수 있는 기회이다. 노년 시기를 잘 사용할 수 있다면 큰 기회와 은혜로 바뀔 수 있다. 잉마르 버그만(Ingmar Bergman)은 "늙는다는 것은 등산하는 것과 같다. 올라갈수록 피로가 커지고 숨이 막히지만 시야가 넓어진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시기는 더 넓은 관점에서 일을 볼 수 있는 시기이다. 선과 악으로 과거를 분석하면서 시간의 풍요, 건강의 가치가 이해된다. 어떨 때는 노인들은 한 움큼의 약을 먹는다. 노년기에 가장 좋은 약은 지식이 풍부하고 덕이 있는 것이다.

노년기는 인생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년기는 하얀 것이다. 사람은 "내 관자놀이에 눈이 내렸나요? 오 나의 알라(하나님), 이 주름진 얼굴이 내 얼굴인가요?"라고 말한다. 알라(하나님)와 그의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알라의 길에서 모발을 표백했다는 것은 그에게 보상으로 쓰여지고, 죄의 용서 그리고 알라(하나님)의 눈에서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큰 기쁜 소식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누군가 알라(하나님)의 길에서 그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표백하게 한다면 심판의 날에 그 하얀색이 그에게 빛이 될 것이다."**[4] 라고 말을 하셔서 노인들을 영예롭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 머리카락은 괜히 표백한 건가? 당연히 아니다! 젊은 시절에 얻은 정보 및 경험과 수년 간의 성숙을 합치는 늙은이는 이 귀중한 축적을 다음 세대로 옮긴다.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의 꿈과 젊은이들의 희망에 닿는다. 이런 식으로 인류를 돕는다.

마련하고 있는 죽음은 우리에게 결혼식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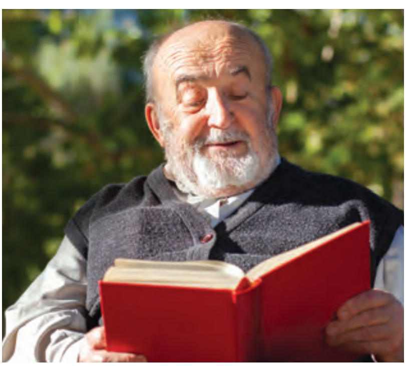
신성한 율법에 따르면, 사람은 삶의 단계를 하나씩 올라간다. 그는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다. 꾸란은 이 모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너희를 허약한 상태로 창조하신 후 허약한 너희에게 강함을 주시고 강한 너희에게 다시 허약함과 백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분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창조하시니 그분은 아심과 능력으로 충만하도다."**[5]

노년기에 가장 심각한 위험은 희망의 상실, 삶의 기쁨이 없어지는 것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려는 불안은 때때로 노인들에게 견딜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는 데 신앙과 정신력은 가장 큰 도움을 준다. 모자람과 실수의 보상을 회개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입에서 쏟아지는 감사한 말, 눈에서 흐르는 애원이 가득 찬 방울, 알라(하나님)의 신뢰로 열리는 문으로 영혼을 상쾌하게 한다. 우리는 죽음과 화해를 한다. 메블라나가 죽음을 "결혼식"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노인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개인으로서 자유롭게 느끼기를 원한다.

아무에게 불우하지 않고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영양, 피난처, 의복 및 건강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요구를 공급하기 위해 우선 가족과 사회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노인을 지원하는 것과 그의 삶을 방해하고 독립을 제한하는 것 사이에는 얇은 선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하며 노인들이 가능한 한 그들의 필요를 직접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결정, 아이디어 및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며, 자신의 성격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가정이나 가족 환경에서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숙으로의 여행을 계속하고 싶다.

오늘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인생을 보내지 않기로 결심한 "새로운 노인들"이 있다. 그들은 여행을 좋아하고 기술을 따르고, 취미에 시간을 내며, 새로운 경험을 잘 받아들이는 개인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그들이 사는 환경과 재정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들은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자격이 있다. 그들 중 일부는 학원에 가고 일부는 책을 쓰거나 유치원에서 자원 봉사를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으로 그는 자기를 발견한다는 것을 즐기며 하나님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평화와 사회에 유익하다는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은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 및 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발적인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는 과거와 미래를 만나게 하고 싶다.

오늘날의 문제 중 하나는 현대인이 노인들을 삶의 속도에서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물론 노인들이 젊은이들의 생활의 빠른 템포를 따라갈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도 전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하는 많은 노인들은 곳곳에서 불행하고 절망적인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노인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에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를 되돌릴 수 없고, 부족한 부분을 보상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사람에게 충분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우리는 노인들이 슬픔으로 가득 찬 것을 동의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의 사회와 관계의 지속을 지원해야 하며, 대화와 동정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이 시기 때 그들을 차가운 황폐한 곳에 두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모여서 고통을 털어 놓아서 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류에게 유익할 나이가 없으며 젊은 세대는 성인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노인이냐? 비키고, 나타나지 말고, 걸어 다니지 말고, 무언가에 참여 하지 말고, 조용하게 죽음을 기다리라!"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이가 들기를 두려워 한다. 그들은 오랜 시간과 큰 돈을 써서 노령의 영향을 미루고 운명을 연기하려고 한다. 하지만 두려워 하는 것 대신에 똑똑한 태도로 어린 나이 때부터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성숙한 인간으로서 처음부터 길의 끝을 보고 예방책을 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물질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의식을 준다면... 우리가 행복하고 자급자족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건강하고 현명하며 사랑이 많은 노인이 되도록 준비한다면... 잃어버린 것에 대해 슬퍼하는 것 대신, 기존의 있는 것과 살기로 동의한 사람들을 키운다면... 노인이 없는 삶 대신,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풍부한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면...

그는 건강하고 희망적인 날을 기대한다.

시인은 노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날이 지났고, 시간을 피할 수 없었다. / 거울을 보았고, 스스로 알아보지 못 했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과 신체적 요구가 변한다. 특히 신체의 움직임이 느리거나 줄어드는 것은 노인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 65 세 이상 10 명당 8 명 이상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 노인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 서비스를 받고 보호 및 재활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늙은 마음을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늙은 신체를 육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그는 명예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당신 생각에는 "선행"이 무슨 뜻인가? 수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살고 있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말을 할



수 없으며 차 한 잔조차 혼자서 마실 수 없는 사람에게 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행은 그들을 위한 마음에서 나온 따뜻한 미소, 사랑스럽게 내밀어지는 손, 아마도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노년기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대한다. 그들은 찾아지는 것, 기억되는 것과 소중히 생각되기를 원한다. 그들은 특히 자녀들이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방문하기를 원한다. 조그마한 선물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기쁨을 부여한다. 외로움이 노인들을 매복시키는 도시에서는 이러한 미덕의 중요성이 커진다. 왜냐하면 인생의 바쁜 흐름에서 그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이다.

젊을 때 명예와 품위를 좋아하는 인류는 또한 나이가 들을 때 존중 받고 대우 받을 필요가 있다. 터키 속담 중에, "늑대가 늙으면 양들이 그들을 놀립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실제로 얼마나 슬픈 사실을 표현하는지...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 (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노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회색 머리와 수염을 가진 늙은 무슬림을 존중하는 것은 알라(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뜻한다."**[6]

우리의 의무

그들이 평화롭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라.

사람들은 인생의 두 번째 봄을 평화롭게 살고 싶어한다. 그들은 긴장이 없고 갈등이 없고 고요한 날을 갈망한다. 그때 바쁜 삶의 속도는 느려지고 서두르는 것과 스트레스가 끝난 것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 관심을 더 가지기 시작한다. 노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평화에 대한 이 탐구를 존중하면서 노인의 행복을 어렵고 힘들게 하지 않고 편하고 쉽게 하는 것이다.

노인이 행복하다는 사실이 그에 대한 모든 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이가 들어서 이미 늘어지는 노인을 한 곳에 움직이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은 좋지 않다. 젊은이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일을 완전히 맡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동안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든지 도와주는 것이다. 노인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면 산책하거나 원예를 하고 움직임의 축복을 계속 맛보아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건강한 영양과 필요할 때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들을 삶에 집착하게 할 것이다.

인생의 목표는 "자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인간이다. 몇 살이든 자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자비를 보고자 하는 만큼 자비를 보일 책임이 있다.

자비를 느끼고 보면서 배운다. 그러므로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자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그대들 중 가장 훌륭한 자는 가족에게 가장 잘 하는 자이니라."**[7]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젊은인, 노인, 어린 아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가족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자녀의

마음에 사랑과 애정을 심는 부모는 나이가 들면 자비를 보상 받을 것이다. 폭력과 두려움에 의해 지배된 집에서 자라는 어린이는 오랜 세월 동안 분노를 겪어 그 쌓인 분노로 연로한 부모에게 자비를 보일 수 있을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들은 어릴 때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될 때도 자비롭고 인내하며 관대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내가 하는 말대로 될 것이다! 안 그러면 배려하여 용서를 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요하는 부모나 "당신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내 말대로 해야 한다!"라고 고집 부리는 아이는 원하는 것을 얻더라도 행복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자비의 다리로 노인을 젊은이와 어른을 아이와 연결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사랑과 보살핌을 모자람 없이 가득 주어라.

사실은 노년과 사랑은 서로 비슷하다. 노년도 사랑과 같다, 숨길 수 없다. 사람은 늙으면서 관심과 사랑을 더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현재 살고 있는 기간은 그들을 민감하게 만들고 감정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꾸란에서 우리의 노부모는 애정과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한다. **"하나님은 명령하사 그분 외에는 경배하지 말라 했으며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셨으니 그들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나이들 때 그들은 멸시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고운 말을 쓰라 하셨노라. 부모에게 공손하고 날개를 낮추며 겸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하나님 두분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두분은 어려서부터 저를 양육하였나이다."**[8]

우리의 일상에서 노인들에게 전화하고 그들에게 안부 인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그들의 명맥을 이어 가고 그들의 지지와 기도로 우리도 명맥을 유지하자. 노인을 위해 보낸 시간과 노력은 시간 낭비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미래에 가장 귀중한 투자인가? 잘 생각해보아라!



먼저 그들을 들으라.

터키 사람들은 "이 머리카락은 방어에서 표백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다. 노인들의 안장은 지혜로 가득하다. 그들은 경험이 많았고 많은 것을 겪은 사람들이다. 어린이들에게 알려줄 이야기와 젊은이들에게 줄 인생의 교훈이 있다. 그들은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 많은 기억과 조언의 예를 모았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말을 방해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지혜에 만족하는 것이 큰 이익이다! 그들이 말을 할 때 불평하고 그들의 말이 고대 말이라고 생각하고 약간의 인내심을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대이자 큰 불충이다!

잘 생각하면...그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입에서 나올 모든 단어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끝없는 질문에

대답하고 우리의 유치한 생각을 작은 미소로 듣는 사람들이 아닌가? 혹시나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알지 못 했었거나 깨달을 수 없었다. 이제 우리는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그러면 노인들의 말을 들어 보자.

그들이 인생에서 정체되지 않도록 하자

괴테는 "늙는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늙는다는 것은 실직하고, 유용하다는 느낌을 잃고 홀로 있는 것이 되면 안 된다. 반대로, 늙은 자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일을 얻었다는 뜻이다. 그들은 인생에 대한 경험과 많은 기억을 모았을 것이다. 이제 인류의 이익을 위해 그 것을 전환시킬 시간이다!

노인들을 믿읍시다. 그들과 같은 환경에 있는 것을 피하지 맙시다. 자녀들을 노인을 두려워하고 지루하며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로 키우지 맙시다. 전통과 관습을 아는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는 세대를 원한다면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데 노인들의 지원을 받도록 하라. 그들은 그렇게 할 때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반대로 그들이 호의를 베풀고 있음을 알아라. 손자의 사랑은 그들에게 삶의 에너지를 주고 그들이 유용하다고 느끼게 할 것이다. 할머니가 되는 기쁨을 누리며 할아버지가 되는 영광은 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인들과 화해하도록 도와주어라. 저녁에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화하는 마음이 잠 들어서는 안되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는 자녀일 때 그들의 귀중한 두아(기도)를 받는다.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받아들여질 두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세 가지 두아(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받아들여질 것이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자의 두아, 손님의 두아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두아이니라."[9]

이슬람은 노인에게의 존중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책임은 자녀가 부모의 물질적과 영적 필요를 제공하는 데 자녀와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명령하여 부모를 존경하라 했거든 그의 어머니는 태아를 가짐과 이년간 젖을 먹이므로 말미암아 허약하여 지니라 내게 감사하고 그리고 네 부모님에게 감사하라 내게로 옴이 최후이니라."**[10]

건강한 사회는 함께 사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세대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노인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노인의 축복의 기도를 얻는 것은 그들 중 하나 일 뿐이다. 그러므로 어느 날 자비의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그의 코가 밑 바닥까지 낮추었으면 좋겠다!"** 라고 비난적인 말을 하셨다. 이렇게 무거운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자 교우들 중에 한 명이 놀라워하면서 물어본다. "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같이 살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또는 둘다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할 사람."**[11]

우리의 힘든 시기에 그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다. 이제 우리 차례이다!

가치관들이 거꾸로 된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노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노인들을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노인들은 핵가족 구조에서 자신을 잉여로 본다. 친숙한 환경의 변화, 지인의 죽음으로 점점 외로워진다... 아마도 그들은 노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인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느낌"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한때 자녀에게는 고통이 아니고 신뢰의 원천이었다. 그는 먹지 않았고 먹였으며 입지 않고 입혔다. 많은 고생을 참으며 자녀를 키웠다.

이제 우리 차례이다! 우리 노인들이 인생의 마지막 투쟁에서 평화롭고 희망적이며 평판이 좋은 날을 보내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충실함과 인류의 의무이다! 우리가 내일의 노인이라는 인식으로 우리가 취할 단계는 우리와 노인 모두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들을 알라(하나님)의 위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선과 자비를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의 세계, 비슷한 취향이나 생활 양식을 채택하지 않았어도...

노인을 위한 관심과 사랑의 첫 번째 주소는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가족에 대한 따뜻함, 우정, 신뢰의 분위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 티르미디, 비르와 슬라, 15.
2 이븐 마자, 두아, 3.
3 부카리, 리카크, 5.
4 나사이, 지하드, 26.
5 로움, 30/54.
6 아부 다우드, 아답, 20.
7 티르미디, 마나킵, 63.
8 이스라, 17/23-24.
9 아부 다우드, 비트르, 29.
10 루끄만, 31/14.
11 무슬림이, 비르와 슬라, 10.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교우에게 선을 행하고 자선을 제공하라고 충고하셨다. 그는 알라(하나님)의 종들의 가장 귀중한 증여 중 하나인 건강 축복을 위한 심지어 인체의 모든 관절을 위한 자선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교우들은 조금 놀랐고, 조금은 걱정했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자선을 할 만큼 부유한 것은 아니였다. 그들은 슬픈 말로 고백했었다."오 알라(하나님)의 메신저! 우리는 매일 자선에 기부할 자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시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자선은 돈에 대한 도움을 의미 할 뿐만 아니라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선을 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맹인을 인도하는 것은 자선입니다.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자선입니다. 필요에 대해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을 안내하는 것과 고통 받는 사람을 돕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자선입니다. 또한 걷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팔을 껴서 지원하는 것과 말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대신 표현하는 것도 자선입니다."[1]

가족에 한 장애인이 있다

카라불르트 할림에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말씀하시길: "진실로, 알라(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외모나 재산으로 너희를 판단하지 않으시니라. 그 분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보시고 너희의 행동을 들여다보시니라."

(무슬림, 비르와 슬라, 34)

장애인이 되는 것

사람을 우주의 가장 귀중한 존재로 만드신 알라(하나님)는 "누가 더 아름다운 일을 할지 시험하기 위해" 죽음과 생명을 창조하셨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려움, 굶주림, 재산 손실 또는 질병; 모든 사람의 시험 문제는 다르다. 그러나 꾸란에는 변함이 없는 진실이 하나 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맛보게 되며 하나님은 너희를 악과 선으로 시험하리니 이때 너희는 하나님에게로 귀의하노라."**[2]

사람은 부재중인 사람 또는 어떤 것이 박탈당한 사람들만이 시험을 견뎌낸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실제로 존재의 시험은 부재 만큼 무겁다. 장애는 때로는 보이고 때로는 숨겨져 있다. 알라(하나님)께서는 종들을 가끔 자신이 주는 축복으로 가끔은 자신이 안 준 것으로 시험을 하신다. 보이는 것에 속고 "모든 사람을 시험하고 누구에게도 불공평하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알라(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면 됩니까?

어떤 면에서 축복은 짐을 의미한다. 어쨌든 믿는자가 유리한 것은 그의 존재와 부재시에 그가 시험을 이점으로 돌린다는 사실은 알라(하나님)의 메신저의 말에 따르면 놀라운 아름다움이다. : **"무으민(진심으로 믿는 자)의 상황은 참으로 흥미롭다! 모든 상태는 본인에게 좋다. 이 상황은 무으민에게만 생긴다. 그는 행복할만 한 일을 당하면 감사한다. 그것은 그에게 선으로 되어 버린다.**

그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는 참는다. 그것도 그에게 선으로 되어 버린다."[3]

그렇다면 어려운 시험을 보는 사람은 실제로 처벌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가? 문제와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알라(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인가?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무슬림들이 내가 당한 재난을 보고 자신의 재난에 강해지게 하십시오."**[4] 알라(하나님)께서 자신를 위해 메신저로 선택한 가장 귀중한 종인 예언자들은 가장 가혹한 시험의 수취인이었다. 시험이 어려워질 수록 그의 보상은 높아질 것이다…

처리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삶의 시험처럼 장애인이거나 장애인과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시험이다. 우리는 이 필멸의 세상에서 우리가 정해져 있고, 우리의 호흡은 정돈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티끌만한 선이라도 실천한 자는 그것이 복이 됨을 알 것이며,[5] 시험의 성공은 영원한 행복으로 보상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6] 결과적으로, 사람은 알라(하나님)의 눈에서 가치를 얻는 것이 육체적 특성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와 행동으로 가능할 것이다.

장애인이 되는 것은 장애가 되지 말아야 한다.

선천적이거나 그 이후에 어떤 이유로든 신체적, 정신적, 영적적, 정서적과 사회적 능력을 다양한 수준으로 잃은 사람들은 사회 생활에 적응하고 일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더라도 그 이유는 그들이 생명을 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인간인 것은 `장애물이 없는` 삶에 자격이 있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고유의 가치를 가지며 인간으로서 창조됨으로써 이 가치를 얻는다. 인간은 명예롭고 품위있게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여성이나 남성,

어린이 또는 노인이 되거나 아프거나 건강하다고 해서 인간에게 더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으며 명예에 그림자를 드리지 않는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이 상황을 여러 시대전부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오, 사람들이여! 너희들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조상(아담)도 한 분이니라. 아랍인이 비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비아랍인이 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느니라. 백인 또한 흑인 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흑인 또한 백인보다 우월하지 않느니라. 우열은 오직 알라(하나님)를 경외하는 데 있느니라.**"[7]

가족이 되는 것에 장애가 없다!

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 인간을 서로 다른 재능, 성별, 색상과 다른 언어를 하는 자로 창조하셨으며 수많은 아름다움으로 꾸미고 차이점을 각각 부유로 만드셨다. 우리 서로 같지 않아서 얻은 큰 이익, 중요한 저축과 기회는 있다! 장애가 있거나 없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자기들과 화해할 때, 그들의 희망은 신선하고 생명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인류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신에 원래 존재하는 감정을 경험하고, 여러 세대 동안 배운 행동 패턴을 반복한다. 흑인도 고통을 느끼고 백인도 느낀다. 발이 있는 사람도 기쁨을 느끼고 발이 없는 사람도 느끼고... 눈이 보는 사람들은 행복을 맛보고 싶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러고 싶어한다.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마음이 평화롭고 신뢰와 애정이 있는 가족은 모든 인간의 필요이다. "**오,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아내와 자손들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정직한 사람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8] 라는 두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라(하나님)에게 간청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가족 구성원의 지원으로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없는 어머니의 감각은 똑 같다. 눈물은 똑 같고 자비, 동정심과 따뜻함이 똑 같다... 장애가 있는 아이도 장애가 없는 아이도 어머니를 필요로 한다. 장애가 있는 아버지의 책임은 장애가 없는 아버지의 책임보다 적지 않다. 장애를 가진 젊은이들도 장애가 없는 사람들처럼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인생에서 기대하는 것, 희망과 절망도 건강한 젊은이보다 적지 않다. 요컨대 가족이 되기 위한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어린 시절을 살기에는 장애물이 없다!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은 인생의 일부에서 아이이다. 모든 아이처럼 기본 권리로 태어난다.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야 하고, 조심스럽게 자라야 한다. 모든 자녀처럼, 그는 부모에게 알라(하나님)의 신탁이다.

장애를 가진 아이는 특별하다. 특별한 교육과 관심이 필요하다. 아이로서 기쁨을 느껴야 하고 사회 생활에 참여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 그들의 재능을 알아채고 지원해야 한다. 인생은 아이들을 위한 게임이라면, 이 게임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고통을 받는 자라면 안된다.

그의 가족은 모든 경우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받아들이고, 항상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교태를 견뎌내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녀에게 인생의 사실을 가르쳐야 하며 장애가 없는 형제나 친구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부담으로 보는 것은 큰 실수다. 반대로 전능하신 알라(하나님)는 약한 아이들과 노인들 덕분에 가정의 생계를 축복하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신다.

젊은 시절을 사는데 장애물이 없다!

청소년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다. 인생의 봄과 젊음의 꿈을 막는 것은 어렵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존재는 젊은 사람의 에너지를 파괴하지 않는다. 장애를 가진 젊은이들도 모든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싶어한다. 어쩌면 그는 힘들어 할 것이고 때로는 마음이 상할 것이지만 손을 잡으면 성공할 것이다. 지지 받지 않고 왕따 당하고 침묵하게 된다면 그는 폐쇄되고 신성한 정의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왜 나야?" "내 죄는 뭔데?" 같은 질문으로 숨이 막히고 그의 부모를 비난할 것이다.

대부분의 시간 깨닫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으로 인해 뚫을 수 없는 암석은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가 사회 생활에서 외로울 때, 자신이 쓸데 없다고 빗댔을 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불쌍하게 봤을 때, 환경을 가꾸는 동안 자신이 잊혀진 것을 목격했을 때... 그는 그때 자신이 방해 받고 있다고 느낀다. 그는 삶을 감옥 생활로,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들로, 사회를 무자비로 부르며 화를 낸다. 우리 누구도 무시를 당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방해 받지 않는 에너지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가족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

성공적인 성인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어린 시절부터 장애가 있는 경우, 성인 개인은 이제 이 상황을 인정 받고 있을 것이다. 그는 이 상황에 대해 알라(하나님)의 재량인 것과 인생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최선의 방법으로 삶을 살려고 노력해서 아무것도 끈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

사회가 그들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된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회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Âşık Veysel(아쉬크 베이셀)의 민요, Cemil Meriç(제밀 메르치)의 생각, Eşref Armağan(에쉬레프 아르마안)의 그림, Çiçero(치체로)의 연설, Stephen Hawking(스티븐 호킹)의 발명들... 이 모든 이름들이 감각 기관이나 신체 부위가 아니라 감정과 생각의 힘으로 역사에 그들의 흔적을 남겼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인류에게 남긴 희귀한 도서, 중요한 관념, 영원한 민속 노래, 웅장한 그림, 발견 및 발명은 장애들이 사실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장애인의 가족의 경험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두려움, 분노, 무력감, 절망, 죄책감 및 권태 같은 감정들이 있을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부모는, "왜 하필 나야? 내가 무엇을 잘못 했어? 지금 어떻게 해?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 등의 질문에 처음으로 답변을 찾으려고 한다. 아이의 장애 상태에 따라 적거나 많은 방해를 받는 부모는 물질적 마모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아이에게 붙어 있고,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사랑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사회 생활에서 벗어나는 등의 과정을 겪은 가족은 여러 단계를 경험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충격, 거부 및 슬픔이 우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감정 대신에 죄책감, 분노 및 수치심은 차지한다.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과 반대하는 반응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극복하면 수용, 조화, 삶의 재구성 및 노력의 단계가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가족에게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상담 및 치료 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 뿐만 아니라 배우자, 친구, 친척 및 이웃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나는 권리가 있다.

나는 장애인이다. 나는 인간이자 지구 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존재이다. 이 영광에 마땅한 권리가 있다. 나는 이 권리를 보호할 힘이 없더라도 그대들이 내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장애인의 권리를 알고 어떤 나이에 있어도 그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종교적이고 양심적이며 인도주의적인 책임이 아닙니까? 장애물을 함께 제거할 수 있도록 이제 내 권리를 기억시킬 것이다.

나는 생활 권리와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중 하나는 자녀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자녀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그 만큼 큰 시험이다.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임신 중에 배우는 부모는 심한 트라우마를 겪는다. 그들의 흔들림과 슬픔은 의심할 여지없이 자녀에 대한 동정심과 자비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감정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에너지를

무력감이 아닌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참을성 있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부모를 포함하여 아무도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은 이상 엄마 배 속에 있는 아이를 장애가 있다고 해서 죽일 권리가 없다. 영혼들의 소유자는 알라(하나님)이시다.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대로 언제 어디에서나 창조할 권한이 오직 알라(하나님)께만 있다. 그분이 창조하려는 삶을 끝내는 것은 범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죄이기도 한다. 그러한 태도가 시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큼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를 가진 아이와 함께 사는 것은 쉽지 않기 마련이다. 그러나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태도와 직면하더라도 아이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 그 아이를 집에 감추지 않고 산책시키는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 기분도 좋아질 것이다. 사람에게 건강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자존심의 원천이 아니며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갖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된다.

건강에 관한 필요를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장애인은 장기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장애가 있는 아이의 가족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기 위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배우고 관련 학과와 전문가의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유명한 말이 있는데, "사람의 자기 정복이 가장 큰 승리이다."라는 말이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은 자신이 가지는 것과 능력을 실현하고 교육을 통해 개발함으로써 가능하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한편으로는 건강과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체를 알고 사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는 사회에 적응하고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재능을 인류의 이익에 제시하기 위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장애인이 특히 일상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결단력과 인내심이 있는 이러한 훈련은 또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할 것이다.

여기에서 유명한 이름을 기억할 가치가 있다. 학자인 이븐 압바스(Ibn Abbas)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삼촌의 아들이며 꾸란의 통역사로 알려져 있으며 수년간 시각 장애인으로 살았다. 수세기 동안 저명한 작곡가인 베토벤은 인생에 마지막 26 년을 청각 장애로 보냈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개인 개발 및 동기 부여 세미나로 잘 알려진 Nick Vujicic은 손과 발없이 삶에 눈을 떴었다.

나는 고용될 권리가 있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정신 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장애인 그룹이 권위 있는 직업에 고용되고 있다. 자신을 위한 특별 작업실을 만든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비장애인이 용납하지 못하는 일을 참을성 있고 부지런히 수행할 수 있다. 정신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근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 불우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유익한 개인이 되려면 고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청각, 시각 및 정형외과적인 장애가 있는 자들은 일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많다.



장애인 교우의 고용에 관하여 자비로운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삶에도 인상적인 예가 있다. 예를 들어,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한쪽 다리에 문제 있는 젊은 교우 무아즈 이븐 자발을 예멘으로 회사 공무원과 카디(재판관)로 보냈다.[9] 메디나로 이주한 최초의 무슬림 중 한 명인 시각 장애인 교우 압둘라 이븐 움무 막툼을 꾸란 교사로 임명하였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예언자 성원의 무에진의(기도시간을 알리는 아단을 부르는 사람) 영광으로 여겼다.

나는 예배할 권리가 있다.

알라(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평화에 도달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구걸하는 것은 장애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불리는 아단을 이해하고 금요일 설교를 이해하고 집단 예배에 참여하며 꾸란을 읽고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말씀과 삶을 배우는 것은 모든 무슬림의 소망이다. 청각 장애인은 들을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게 기호가 있다. 시각 장애인은 볼 수 없지만 손으로 만지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언어 장애가 있는 자는 자기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 밖에도 이야기하는

다른 많은 방법이 있다. 그러므로 알라의 종으로서 숭배의 맛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없다.

정신적 장애인을 제외하고 장애인들은 숭배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일부 장애가 있다는 것은 예배, 단식, 희사, 성지 순례, 자선 또는 희생과 같은 숭배를 포기할 변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의 힘만큼 책임이 있다. 성 꾸란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탱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짐을 주지 않으시도다."**[10] 알려진다. 따라서 장애인과 그의 가족은 이 문제에 대해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장애인 친구 중 하나 이븐 후사인은 그의 오랜 병에도 불구하고 계속 숭배한다는 사실이 그 내용에 대한 예이다. 장애를 가지고 예배를 하는 방법을 물었을 때,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가능하면 서서 드리라. 예배를 서서 드릴 힘이 없다면 앉아서 드리라. 앉아서 드릴 힘도 없다면 옆으로 누워서 드리라."**[11]

물론, 발이 없는 사람은 우두(세정)를 할 때 발을 씻으라는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예배에 민감하고 최선을 다할 때,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의 기쁜 소식으로 만날 것이다. 장애로 인해 숭배의 모든 세부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장애인은 가능한 한 최선을 할 때 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요컨대, 선행에 대한 보상은 방해 받지 않는다.

우리의 의무

그들이 예민한 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장애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을 더 민감하고 취약하게 만들기 마련이다. 특히 교통 사고나 산업 재해와 같은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인한 장애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과민성과 상처 및 당혹감을 더 심하게 느낀다. 이러한 감정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방해된다는 느낌으로 인한 긴장을 이기는데 관심과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사치스럽고 과장된 관심사가 아니고 친근하고 단순한 친분이어야 한다. 자기를 강하게 만들 영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사실을 더 짧은 시간에 받아들이고 인생에 더 편안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다.

그를 말 상대로 하자.

전능하신 알라(하나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에게 수세기 전에 장애인의 인간 존엄성과 호환되는 방식으로 말 상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의 뜻을 가르치셨다. 어느 날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다신교를 믿는 자 중 메카의 명망가들에게 이슬람을 설명하고 계실 때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옆에 와서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한 소경 교우 압둘라 이븐 움무 막툼에 관심이 없었지만 즉시 내려 오는 꾸란 구절들로 크게 경고 받았다."**선지자께서 눈살을 찌푸렸고 등을 돌리셨나니! 그가 스스로를 순결케 하려 하는지를 무엇이 그대로 하여금 알게 하리요. 그가 교훈을 받고 그대의 교훈이 그를 유익하게 할련지도 모느리라. 스스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자 있나나 그대여 그를 경계하라. 그가 스스로를 순결케 하니한 것은 그대의 책임이 아니라. 그러나 진실로 열망하여 그대에게 다가오는 자와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는 자에게 그대가 그를 소홀이 하였으매 결코 그래서는 안되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게 그로 하여금 교훈을 간직하다록 하라.**"[12]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이 일 후에 압둘라를 볼 때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경고 받은 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그의 마음을 잡았다. 물론 이러한 경고는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장애인을 소중히 느끼게 하는 방법은 그를 말 상대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가 있는 자와 대화할 때 우리는 온 몸을 가지고 그에게 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의 성격에 따라 행동하라.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에 주의하라. 대충 듣지 않고 질문에 대답하라. 말하는 데 어려워해도 그의 말을 잘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나 상황이 있다면 이해하는 척하는 대신 반복하도록 요청합시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관용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장애 상황을 조롱하지 맙시다.

사람의 신체적 특성을 조롱하고, 소문을 한 후 뒤에서 웃거나, 자신 앞에서 속삭이거나 좋아하지 않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결코 이슬람 도덕성과 양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다. **"믿는 사람들이여!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웃지 않도록 하라. 후자가 전자보다 훌륭할 수도 있노라. 여성이 다른 여성을 비웃지 않도록 하라. 후자가 전자보다 훌륭할 수도 있노라. 서로가 서로에게 중상하는 것과 저속한 변명도 아니 되니라. 믿음을 가진 후의 저속한 이름은 사악한 것이며 회개하지 아니 한 자 실로 죄인이라."**[13]

장애가 있는 자의 흉내를 내고 비웃는 것이 이슬람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이와 같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대가로 많은 것을 주었더라도 나는 누군가에 흉내를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14] 또 자비로우신 알라(하나님)의 메신저의 표현으로는, **"무슬림 형제를 멸시하는 것은 사람에게 악행으로 충분하니라."**[15]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절름 발이", 쉽게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더듬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맹인", 정신 장애 때문에 "미친"이라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다음날 건강한 사람들도 비슷한 시험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그의 결정을 존중하자.

우리 모두는 존중 받고 자신감 있는 시선을 받고 싶어한다. 장애인의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를 지원하고 경계을 존중한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애가 있는 자에게 도움을 제안하지만 도움을 원치 않거나 도움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그의 결정을 존중하라.

재능을 지원하고 성과를 보상합시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재능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개발할 기회가 있는 장애인은 자신과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그가 몇 번이나 시도했는지가 아니라 결국 성취한 것에 초점을 두어라. 우리는 매번 그를 격려하고 그의 작은 진보에 대해 보상합시다.

교제가 되게끔 기회를 주어라.

일부 능력을 잃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모두 잃은 것처럼 대우를 받는다는 것과 특성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어 사회 생활에 화나게 해서 수감되어 가정에서 투옥되는 것은 잔인하다. 사회에 들어올 때 기분이 상하게 되었을 때, 장애인과 그의 가족은 편견을 없애는데 힘들어할 것이고 자기 자신을 안 보이는 벽 밑으로 밀려 드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사회적 압력은 장애인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의식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러나 종종 불쌍한 호기심 많은 표정조차도 충분히 혼란스러워한다.

그러므로 장애물이 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

사실, 우리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께서는, 눈이 보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하기 위해 허락받은 압둘라 이븐 움무 막툼에게 아단을 들었다면 성원에 와야 된다고 말씀 하셨으며 이렇게 하면서 사회에서 그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셨다.[16]

편하고 쉽게 하고 어렵고 힘들게 하지 마라.

기술 시설을 사용하여 사회에 환자, 장애인, 노인 및 어린이와 같은 소외 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라. 휠체어나 보청기가 장애인의 삶을 변화 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양각 책 또는 작은 보도 경사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봅시다. 알라(하나님)의 메신저께서의 "**편하고 쉽게 하시오, 어렵고 힘들게 하지 마시오.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시오, 미워하고 싫어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마시오!**"[17] 라는 말씀을 인생의 모토로 삼아 장애인의 삶을 편하게 해줄 서비스를 개척합시다.

자신의 위로뿐만 아니라 같은 하늘, 같은 물, 같은 도시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의 편함을 고려하는 사람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그 말로 자신을 볼 것이다. "**무으민들이 서로에 대한 동정심, 사랑, 애정을 보여줄 때 몸이 하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기관이 불편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몸의 다른 기관들은 불면증과 발열로 인한 펄럭이는 것 같이...**"[18]

방문합시다.

메카가 정복된 날 아부 바크르(Abu Bakr)는 나이가 많고 시각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업어서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앞에 데려갔었다. 그날 무적의 겸손과 함께 승리의 사령관으로 도시에 들어온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께서는 "**당신이 그를 집에 두고 우리가**

그에게 갔다면 좋았을텐데..."[19] 라고 말씀하셔서 그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그의 존경을 표명했다.

우리가 병이나 장애로 인해 자리를 떠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안부에 대해 물어보고, 급한 삶에 잠시 멈추고 우리를 기억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환자들을 방문하십시오."**[20] 라고 말씀하신 알라(하나님) 메신저의 말씀을 들어 보자. 선한 것이 보답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과 그의 가족 모두에게 사기의 원천인 우리의 방문을 방해하지 마라.

그들이 치료를 받도록 도와줍시다.

개인의 장애는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일 수 있다.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찾고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알라(하나님)의 재량을 말함으로써 장애나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구하지 말고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인내와 신뢰가 아니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알라(하나님)의 종들아, 치료를 받아라 알라(하나님)께서 병을 만들 때 그 병에 대한 치유도 같이 만드셨다."**[21]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고 절대 치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영적 지원을 합시다.

치료가 불가능한 장애인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리 치료와 심리적 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것에 대해 가족과 가까운 환경은 의식이 있어야 하며 장애가 있는 사람의 공립 또는 사립 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 및 지도 서비스 권리를 박탈하면 안된다.

심리적, 경제적, 의학적 지원 외에도 영적 지원은 장애인에게 없어서는 안될 가치 중 하나이다. **"아플 때 그분께서 저를 회복시킬 것이다."**[22] 이 신념을 가진 종은 이 신념의 관련이 있는 제안이 아마도 장애의 가장 어려운 측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아(기도)로

알라(하나님)에 대한 신뢰 덕분에 인내, 끈기, 신뢰와 감사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기억할 것이다.

방해를 당하는 친구, 친척이나 이웃을 인내심으로 달래줍시다. 우리가 곤경에 빠진 순간에 알라(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인내의 보상을 주겠다고 설명합시다. **"몸에 껄끄러운 가시가 있더라도 무슬림의 실수는 모든 비극에 대해 용서 받을 것이다."**[23] 라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복음으로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하라. 치료가 없다는 고통으로 수년간 살았던 예언자 아윱이 인내와 두아(기도)의 결과로 알라(하나님)의 자비로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상기시켜 주어라.[24]

두아는 사람을 강하고 결단력 있게 하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멀어지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을 믿어 봅시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사기가 높아지고 희망이 다시 살아 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목격하라.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입에서 쏟아지는 두아로 장애인 친구를 위해 두아하자. **"모든 사람의 주여, 알라(하나님)! 이 환자의 고통을 끝내고 치유해주시오! 치료를 오직 당신만이 주신다. 당신이 주실 치유 외에는 치유가 없다. 이 환자에게 병의 징후가 없도록 치료하십시오!"**[25]

1 이븐 한발, V, 168-169.
2 안비야, 21/35.
3 무슬림, 주후드와 라카이크 64.
4 무와따, 제나이즈, 14.
5 질잘, 99/7.
6 따하, 20/75-76.
7 이븐 한발, V, 411.
8 푸르깐, 25/74.
9 부카리, 지하드, 164.
10 바까라, 2/286.
11 부카리, 탁수르 알 살라트 19.
12 아바싸, 80/1-12.
13 후즈라트, 49/11.
14 티르미드, 스야툴 알 끄야마, 51.
15 무슬림, 비르, 32.
16 이븐 한발, III, 423.
17 부카리, 일므, 11.
18 부카리, 아답, 27.
19 이븐 한발, III, 160.
20 부카리, 메르다, 4.
21 아부 다우드, 틉, 1.
22 슈아라, 26/80.
23 무슬림, 비르와 슬라, 49.
24 안비야, 21/83-84.
25 부카리, 메르다, 38-40.

우리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태어나고 자라고 많은 추억들이 있는 메카를 떠나고 메디나로 이주할 수 밖에 없었다. 그가 그를 포용한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친척 관계를 유지하는 것" 즉 "슬라 알 라힘(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친척을 방문하며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도 있었다. 당시 이슬람을 선택한 이전의 유대인 학자들 중 한 명인 압둘라 이븐 살람이 말씀하신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가 메디나에 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만나러 나갔다. "알라(하나님)의 메신저가 오셨다." 비명 소리를 들었을 때, 나도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갔다. 그의 얼굴을 보자 거짓말을 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서 들은 첫 명령은, "오, 사람들이여! 인사를 펼치고, 음식 제공을 하고, 슬라 알 라힘(Silat Al Rahim)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잠 자고 있을 때 예배를 하고 평화롭게 천국에 들어가라."[1]

친척들이 있다

부교수 이이트 야샤르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말씀하시길:

"알라(하나님)와 심판의 날을 믿는 사람은 친척 관계를 유지하라."

(부카리, 아답, 85)

슬라 알 라힘(Silat Al Rahim)은 무엇인가?

슬라 알 라힘은 혈연 관계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형성된 친척과 알게 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관심 가져서 돌보고 친척 관계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슬라 알 라힘은 종교적 개념이며 이 개념에서 라힘이라는 단어는 알라(하나님)의 라흐만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신다. **"자비로운 사람은 라흐만(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다. 하늘이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당신도 땅에 자비를 베풀어라(재확인) `라힘`(친척 관계) 라흐만의 어근에서 유래된다. 누가 그 친척 관계를 유지한다면 알라(하나님)께서도 그와 관계를 유지하신다. 누가 그 관계를 깨뜨리면 알라(하나님) 께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신다."**[2]

그러므로 친척 관계는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하나님)까지 확장되는 극도로 가치 있고 의미있는 관계이다. 친척들과 맺는 유대는 알라(하나님)와 종의 유대에 영향을 줄만큼 중요하다. 그들과 함께 선행, 관용, 동정심과 정의로 발전시키는 건강한 관계, 모든 면에서

자비로 이어질 것이다. 이 자비와 동정에 개인으로 사회와 전 인류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는 분명하다.

시간이 흐릴수록 사람들은 외로워지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친척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약해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린 외부 사람들과 그들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해진다. 우리는 평화, 기쁨, 슬픔, 존재 및 부재를 혼자서 경험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 슬픔은 공유됨으로써 적어지고 기쁨은 공유할 때 더 의미가 있어진다. 우리의 윤리, 무역, 예술, 쉼 및 오락 문화, 인간 관계가 부패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대 세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생활 방식과 우리 자신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삶의 방식일 것이다. 도시에 가까워질 수록 일반 생활 속에서 가족과 친척의 관계가 약해지는 것과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 이슬람은 한편으로 가능한 한 친척의 관계를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명령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친척과 관계를 끊는 것을 금지한다.

성 꾸란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되 다른 것과 비유하지 말라.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척과 고아와 불쌍한 사람들과 이웃 친척과 친척이 아닌 이웃과 주변의 동료와 방랑자와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종복들에게 자선을 베풀라. 하나님은 오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사랑하시지 않으시니라."**[3]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외에도, 우선 부모로부터 시작해 관심이 필요한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의무라는 점이 강조된다. 자기 자신을 친척보다 우월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는 오만한 사람은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많은 외로운 부모는 친척이나 친구 또는 자녀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자신의 상태를 물어보고 잠시 동안 그의 문제를 공유할 친척들을 갈망하고 있다.

친척 방문은 친척에게 유리한가 자신에게 유리한가?

친척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들의 상태와 안부를 묻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꾸란에 따르면, 이러한 방문의 우선은 부모에게 하는 방문이다. 또한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과 같은 친척은 여전히 우리의 방문, 만남 및 융합을 받을 권리가 있다. 참으로 우리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는"**사람의 삼촌은 아버지의 절반입니다.**"[4]라고 말씀하시고 기억하게 하신다: **"이모는 어머니와 같은 위치에 있다."**[5] 그는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묻기 위해 온 한 남자에게 회개하고 나서 부모에게 호의를 베풀라고 조언하셨다. 그러나 그 남자는 "엄마와 아빠는 돌아가셧다." 라고 말하자 **"그렇다면 이모에게 호의를 해라."**라고 말씀하셨다.[6]



방문은 우선 친척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원한을 없애준다.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되고 문제를 해결할 때 도와준다. 신뢰를 만들어준다. 오늘날 아쉽게도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과 교통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및 그들의 자녀인 사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들이 알고 있어도 자녀에게 소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다! 그 결과로, 결혼식, 장례식, 기쁨과 슬픔에서 우리에게 지지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친척을 방치하며 자신도 홀로 남아서 자비를 박탈 당한다. 우리와 친척 사이의 거리에 따라 일주일, 한 달 또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 방문하자.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 소통 도구가 많이 발달한

오늘날의 다른 기회들을 이용해 친척의 상태와 안부를 묻고 관계를 유지하자.

도움은 먼저 친척에게

친척들 중에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슬라 알 라힘이다. 희사와 자카툴 피트르(라마단의 단식을 마치고 즉시 하는 특별 자선)를 우리의 가난한 친척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의 보상이 많아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한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사다까(자선)이다. 친척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에 대한 보상은 두 개이다. 그 두 개 보상 중에 하나는 사다까(자선)의 보상, 나머지 한 개는 친척에게 관심 가지고 봐주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7]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건강한 친척 관계에서 가장 좋은 것은 가난한 친척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영적 지원을 제공하고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생계를 완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돌봐야 할 의무 이외의 친척들에 대한 재정 지원의 정도는 친근함 정도, 필요 사항 및 우리의 재정력에 따라 달라진다. 슬라 알 라힘은 물질적 및 영적, 말과 행동으로서의 연대와 친척과의 통합의 표현이다.

친척에 대한 선행은 가난한 친척의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달콤한 말이나 미소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표현으로는, **"좋은 말은 사다까(자선)이다."**[8] 게다가 좋은 몇 마디는 사람들을 해치거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재정 지원보다 더 가치가 있다. **"겸손한 말 한 마디와 관용은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희사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며 관대하시니라(즉각 처벌하지 않고 시간을 취함).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네가 바치는 희사를 상기시키거나 모욕하여 이를 헛되게 하지 말라. 이는 곧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희사를 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하나님과 심판의 날을 믿지 않는 것과 같노라."**[9]

친척들과 유대, 창조주와의 유대를 바탕으로 보기

슬라 알 라힘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를 무(無)에서 창조하시고 셀 수 없는 많은 접대로 지상에서 대접하는 창조주와의 슬라 즉 유대를 유지해야 한다. 친척과 함께 하는 슬라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슬라가 있을 때 더욱 중요해진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연결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절대 혼자 나두지 않으며 모든 종류의 축복을 수여하는 최고 창조주와의 유대를 끊지 않을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애정과 감사의 관계를 어긴 사람은 더 이상 붙잡을 곳이 없고 피난처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유대와 연합은 본질적으로 가치를 의미할 수 없다. 하나님과 친구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진정한 우정을 맺을 수 있을까? 강제적 만남 또는 세상의 이익 때문에 만난 공동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충성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 시대에 이 입장에 있는 개인이나 사회가 경험한 큰 문제와 사회 위기의 실제 원인이 알라(하나님)와의 연대를 끊은 것이 아닐까? 알라(하나님)와 우리 사이에 있는 연대라면 그분의 존재와 유일성을 믿고 그 믿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연대는 연대 중에 가장 강하다. 성 꾸란에서는,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자 끊기지 않는 단단한 동아줄을 잡았노라."**[10]라고 하면서 그러한 강한 유대를 언급한다.



특히 전능하신 창조주와 함께 있는 유대, 인생에서 확립되고 유지되어야 할 관계를 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 꾸란에서 매우

심각한 경고가 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 외로움과 절망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도 후회와 좌절감은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율을 어긴자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결합하라 하였으나 거역한 자이며 지상에서 해악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니 저들은 스스로를 멸망케 하도다."**[11]

요컨대, 슬라 알 라힘의 핵심은 알라(하나님)께 숭배 또는 그분에 대한 믿음의 유대이다. 신앙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알라(하나님)와 있는 마음 연결을 끊는 사람들, 즉 "슬라"를 끊는 사람들이다.

슬라와 함께 축복해지는 생활

시간은 분쇄기와 같이 인생을 분쇄한다. 늙든 젊든 모든 사람은 제 시간에 죽는다.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그 인생을 어떻게 보냈는지 중요하다. 함께 접힌 비옥한 시간을 추구해야 한다. 사람은 인생에 축복을 초대할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는 친척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다. 친척 간의 관계는 견고하고 따뜻하며 연속적이는 것과 친척은 서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서로를 지원하는 것은 은혜와 자비의 문을 열어준다. 자비의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누가 생계의 풍요로움이나 그의 죽음이 지연되기를 원한다면 친척 관계를 계속하면 된다."**[12]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에 대한 힌트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삶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숭배와 좋은 행동으로 수명이 연장될 것이라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복음은 몇 달의 확산이나 몇 년의 연장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숭배와 선한 일을 알고 계시며 이 선한 일 덕분에 좋은 사람들의 삶을 늘림으로써 칭찬하신다. 또한 친척을 돌보는 사람들은 삶을 생산적이고 건강하며 평화로운

생활로 보낸다. 물론, 그러한 비옥한 삶은 길지만 고약하고 불행한 삶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

친척 관계의 성격

꾸란에서, **"후에 믿음을 갖고 이주하여 너희와 함께 성전하는 자 있었으니 이들도 너희 가운데 있어되 혈족 친척의 일부는 하나님의 성서 안에 있는 일부보다 우선이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13]라고 하고 있으며 창조와 관련해서 친척된 사람들은 가까운 정도에 따라 다른 사람들보다 서로에게 더 관심이 있고 서로를 더 보호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라힘 연대, 혈액 연대 및 가족 연대와 같은 생물학적 및 사회학적 요소는 친척을 상대적으로 더 가깝게 해진다. 간단히 말하자면 자신의 친척을 먼저 돕는 것이 창조의 법칙이다. 이 상황에 대한 다른 아야(꾸란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친척과 불쌍한 사람과 여행자에게도 자선을 베풀되 낭비하지 말라!"**[14] 이 꾸란 구절에서 먼저 친척을 언급하는 것은 친척의 먼저임을 상기시켜준다.

친척에 대한 친밀감을, 세대를 자부심과 오만의 이유로 만드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사실은, 그러한 열정은 자힐리야(이슬람 전의 무지의 시대)부터 계속되며 이슬람이 열심히 싸워온 실수이다. 잔인하거나 억압된 사람이라도 자신의 부족, 씨족, 부족의 가족 구성원을 변호하고 호의를 베푸는 습관은 우리 종교 이슬람의 정의 원칙에 위반이다. 반대로, 사람은 친척과의 관계를 이해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비, 사랑, 상호 권리 및 책임을 통해 봐야 한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더라도 증인과 판단에 정직을 두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믿는자들이여! 정의에 강하여 하나님을 위한 공정한 증인이 되어라. 너희 자신들에게도 부모님과 친척들에게도 부유하건 또는 가난하건 그러하니라."**[15]

친척과의 관계를 끊었을 때…

우리의 어르신들은 친척들 사이의 적대감은 숲에 떨어지는 불과 같다고 말했다. 통제가 불가능한 불은 모든 사람을 태우고 삶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태울 것이다. 그러므로 친족들과의 관계를 끊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종교 이슬람에는 많은 신성한 경고와 위협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성약을 한 후 이를 깨뜨리는 자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함께 하라 함에 거역하며 지상에서 해악을 퍼뜨리는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요. 그들을 위해서는 무서운 거처가 마련되리라."**[16]

친척 관계는 나침반과 같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친척과의 관계에 따라 형성된다. 친척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친척을 사랑하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행복을 공유할 수 없는 사람은 평화로운 사회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을까? 사회에서 사랑과 연대의 유대의 부패는 가족에서 시작하여 이웃과 다른 부분으로 퍼져 결과적으로는 사회의 조화가 파괴된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 관계의 상실을 막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사회가 살아 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선을 넘어 친척들과의 관계를 끊을 만큼 현세에서 알라(하나님)께서 벌하실 다른 죄가 없다."**[17]라고 말씀하셨다. 친척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친척이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무슬림은 그들 사이에 있는 친척 관계 때문에 그들을 잘 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종교의 차이조차도 친척 관계 유지에 고려되지 않는다. 알라(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위반하는 문제에 대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그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요구된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명령하여 부모를 존경하라 했거늘 그의 어머니는 태아를 가짐과 이년간 젖을 먹이므로 말미암아 허약하여지니라 내게 감사하고**

그리고 네 부모에게 감사하라 내게로 옴이 최후이니라. 그러나 부모가 그대로 하여금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을 숭배케 하여 나를 불신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현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게로 향해 회개하는 자의 길을 따르라 그후 너희는 내게로 귀의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행한 일들을 알려 주리라."[18]

성꾸란의 이 경고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태도에 반영된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자기를 키울 때 많은 노력을 하신 삼촌인 아부 탈립이 무슬림이 된다는 것을 너무 많이 요망을 하셨고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촌의 마지막 숨까지 삼촌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셨다. 마찬가지로 아부 바크르의 딸 아스마는 우상 숭배자인 어머니가 그를 방문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 상담을 받자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어머니께 관심 가지고 그녀에게 접대를 하라."**[19] 라고 말씀하셨다.

잊혀지지 않는 방법은 기억하는 것이다.

터키 문화에는 슬라 알 라힘에 도움이 되고 친척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귀중한 전통과 풍습과 활동이 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명절은 이러한 활동 중 첫 번째이다. 다시 말하자면 명절이 기본 목적을 잃지 않는 한, 친척들과 다른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접합과 연대가 분명히 드러나는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다. 명절 때 하는 방문 덕분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랑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된다.

명절은, 개인이 느끼는 평화를 파도처럼 대량 크기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오늘날에 명절이 이 분위기로 실현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떠오른다. 인간 관계는 이득에 기초하여 구축되며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얻을 이득 정도에 관심을 보여주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먼저 알려고 하는 시간을 지내고 있다. 우리는 신앙과 도덕에 대한 감수성이 감소된 시기에 살고 있으며, 그 결과 위층 이웃은 아래층을 알지 못하고, 가족과 친척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두꺼운 벽이 세대 사이에 세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때 슬라 알 라힘의 효과와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명절은 서로를 피하는 순간이 아니라 친밀한 순간이 되어야 한다. 성 꾸란에서는 여러 차례 알라(하나님)를 잊어 버린 사람들도 알라(하나님)에 의해 잊혀 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날은 너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망각했던 것처럼 그분은 너희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거주지는 불지옥이며 너희는 구원자도 갖지 못하노라."**[20] 이 아야는 알라(하나님)를 잊어버린 사람은 또한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날에 알라(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실 것이며 즉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을 한다. 이 상황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본인이 잊어 버린 사람은 잊어 버린 사람들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잊혀질 것임이 분명하다. 힘든 날에 사람들 옆에 있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힘들 때 그와 함께 있을 사람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잊혀지고 싶지 않다면 부모님, 친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무슬림들 사이에 형제애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친척들 사이에서 슬라 알 라힘 내에서 다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말로 슬라 알 라힘은 사람들을 구슬처럼 모이는 실과 같다. 이 유대를 깨면 사람들이 구석에 흩어져 있는 구슬처럼 서로 분리되어 무의미한 공허함에 굴러 갈 것이다.

가장 쓴 증오는 친척에게 느끼는 미움이다. 우리가 대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친척들을 잘 대해야 하며

기분이 상하는 일에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친척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가족이 다른 각도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과는 인생의 전환점과 같은 출생, 죽음, 결혼식 같은 날에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인사와 기도를 계속 할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서로를 거부하고, 삶에서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저주와 나쁜 두아(기도) 같은 행동이 우리의 상대나 우리를 약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비를 얻는데 심각한 장애가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친척 관계에서 타협은 없다. 우리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경고를 기억해야 한다. **"친인척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자는, 친인척이 자신에게 잘해주어서가 아니라, 친인척이 그와의 선행을 단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자이니라."**[21]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은 자비의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를 친척들이 키웠다.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항상 친척들에게 충실했으며 결코 배은망덕하지 않았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아내 카디자는 그의 이 상태를 표현한다. 그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로서 계시를 받은 첫날에 떨며 와서 그를 덮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카디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맹세하는데 알라(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친척을 항상 돌 봐주는 사람이다."[22] 이슬람교가 왔을 때, 알라(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먼저 친척들을 종교에 초대하고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노력을 했었다. 우리는 슬라가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삶의 모범이며 순나(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이고 예언자의 윤리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 생활에서의 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때때로 친척들 사이에 불쾌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우리의 친척이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거나 심지어 우리에게 친근한 태도를 취하지 않더라도, 의식적인 무슬림으로서 우리는 친척 관계를 어기지 말아야 한다. 어떤 상황이든 친척들과 관계를 알라(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동정심과 자비에 대해 맺도록 하라.

> 가족이 단지 어머니, 아버지 및 자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친척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자녀에게 자손을 소개합시다.
>
> ---
>
> 출생이나 결혼식과 같은 아름다운 날이나 병이나 장례식과 같은 고통스러운 날에는 자녀와 함께 친척들 옆에 있어야 합니다.
>
> ---
>
> 우리의 유대를 어기는 것은 우리를 홀로 둘 것임을 기억합시다.

친척과 친구들을 방문하는 것을 절대 줄이지 맙시다. 슬라 알 라힘(친척 유대)을 하나님의 동의를 얻고 사회적 연합을 강화할 수 있는 단계로 봅시다 만일 기회가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친척들에게 재정적 도움과 지원을 제공합시다. 노인 친척의 안부를 수시로

물어보고 그들의 좋은 두아를 받고 그들의 경험을 활용합시다.

우리의 친척들에게 친절하고, 미소 짓는 얼굴로, 참을성 있게 관대해 봅시다. 우리 사이에 있는 작은 문제와 작은 불일치가 커져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지 않게 바로 해결합시다. 인사를 끊지 말고 우리 자기를 위해 원하는 아름다움을 그들을 위해서도 기원합시다. 친척들과 관계을 끊고 나쁜 행을 하는 것은 큰 죄 중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꾸란의 경고를 들어 봅시다."**너희가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면 지상에 해악을 퍼뜨리며 혈연관계를 단절하려 하느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사 그들의 귀는 들리지 않게 하고 그들의 눈은 장님으로 만드시노라. 그들은 꾸란을이해하려 추구하지 아니 하느냐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단 말이냐!**"[23]

[1] 티르미드, 스야툴 알 끄야마, 42.
[2] 티르미디, 비르와 슬라, 16.
[3] 니싸아, 4/36.
[4] 티르미디, 메나큽, 28.
[5] 티르미디, 비르, 6.
[6] 티르미디, 비르, 6.
[7] 나사이, 자카트, 82.
[8] 부카리, 지하드, 128.
[9] 바까라, 2/263-264.
[10] 바까라, 2/256.
[11] 바까라, 2/27.
[12] 부카리, 아답, 12.
[13] 안팔, 8/75.
[14] 이스라, 17/26.
[15] 니싸아, 4/135.
[16] 라아드, 13/25.
[17] 아부 다우드, 아답, 43.
[18] 루끄만, 31/14-15.
[19] 부카리, 아답, 8.
[20] 자씨야, 45/34.
[21] 부카리, 아답, 15.
[22] 부카리, 베디울 와히, 1.
[23] 무함마드, 47/22-24.

모든 집과 마찬가지로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집에는 삶의 색조가 다양했다. 고통, 기쁨, 분노, 사랑 ... 때로는 새로운 날이 평화롭고 때로는 참을성 있게 생겨날 것이였지만 상황이 어떻든 가족 내에서 친절하고 정중한 의사 소통을 계속하고 있었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가족 구성원들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길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이 상황에 의해 방해 받지 않는 우리의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한 번 그의 아내 아이샤에게 "당신은 나에게 기뻐할 때나 나에게 화났을 때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다. 아이샤는 "이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힌트를 주었다: "당신이 나에게 만족할 때, '나는 무함마드의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 나에게 화가 났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 이런 말을 듣고 아이샤의 응답은, 남편의 이름이 입에서 떨어져도 그의 사랑은 마음에서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신 말이 맞다. 그러나 알라(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알라(하나님)의 메신저, 나는 당신의 이름에서만 멀리 할 수 있다."[1]

가족의 의사소통 언어

오레신 후세인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말씀하시길:

“무으민은 자애로운 사람이다. 사람들과 친밀감을 가질 수 없고 그와 친밀하게 연결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없다.”

(이븐 한발, II, 400)

가족 내에 의사 소통이라면...

독신이고 독특한 것은 알라(하나님)에게 특이하다.

우리는 짝, 가정, 신뢰와 소속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원과 공유, 사랑과 보살핌, 평화와 애정이 한마디로 가족이 필요하다.

가족은 피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가치가 부족한 "관계, 공생 및 동점"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성스러운 제도이다.

가족은 크거나 좁은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하고 광대하며 풍부한 완전성이다. 부모, 조부모, 자녀, 소녀, 이웃 및 친척은 이 완전성의 필수 요소이다.

가족은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격, 믿음 및 생활 방식이 형성되는 교육의 집이다.[2]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절묘한 표현으로 "서로에게 옷이 된다."는 것이다.[3]

- ▶ 복장과 같은 덮개,
- ▶ 복장과 같은 보호대,
- ▶ 복장과 같은 아름답게 해주는 것,
- ▶ 복장과 같이 조화롭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은 관계의 분야가 아니라 다면적인 의사 소통의 분야이다.

그렇다면 의사 소통이란 무엇입니까?

의사 소통은 두 생물간에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세상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우리가 발견한 의미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우리는 문제, 감정, 생각, 요구 및 기대를 전달하는 것을 의사 소통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다치거나 다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거나 건전한 의사 소통이라고 한다.

의사 소통은 때때로 말해서 때때로 외침으로... 때로는 비언어적일 수도 있다. 자세, 표정, 미소 또는 눈썹으로. 때때로 우리는 말하지 않고 포옹하고 때로는 얼굴을 돌린다. 말을 하지 않아도 신체 언어와 의사 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결과로는 매일 수백 가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메시지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가족 내의 의사 소통이란 무엇인가?

가정 내에서 어른과 어린, 남성과 여성, 젊은 사람과 노인의 서로 연결하는 관계와 이 관계 통해 전송된 메시지는 가족 내 의사 소통을 형성한다. 가족 내에서 건강한 의사 소통 방식을 채용하면 가족 구성원은 서로를 해치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문제가 괴저가되기 전에 말하며 해결할 수 있다. 갈등이 있을 경우 바로 절망하지 않고 모든 통신 과정에서 통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건강한 의사 소통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존중한다. 상대방이 다른 생각, 즐거움, 욕구, 이상 및 계획을 갖는 것은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약점과 실수가 있음을 인정한다. 다치지 않고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리산(Lisan), 라프즈(lafz), 켈람(kalam), 딜(dil) 그리고 라프(laf) 일상 생활에서 연설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이다. 아랍어에서 '리산'은 날카롭게 하다,

`라프즈`는 던지다, `켈람`은 다치게 하다 같은 바탕의 뜻이 있다. `언어`라는 단어는 페르시아어에서 우리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마음을 의미한다. `잡담`이라면 또 페르시아어에서 왔으며 빈 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 내에 의사 소통은 날카롭게 해서 던지는 빈말이 마음에서 만들 수 있는 상처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가족 내에 의사 소통은 우선 `언어`를 뜻 하며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고칠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 **"나의 종들에게 일러 가로되 가장 좋은 말을 하도록 하라. 사탄은 그들 사이에 불화를 조성하니 실로 사탄은 인간의 적이라."**[4] 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라며 모든 말이 기록되었음을 상기시켜주신다.[5]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알라(하나님)와 심판의 날을 믿는 사람은 선의 말을 말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6] 그러므로 가족 안에서의 의사 소통은 사탄(악마)의 방해에 기회를 주지 않고 말하고 선과 진실을 말하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다.

평화로운 가족은 어떤 문제나 고통에 직면하지 않으며, 어떤 논쟁과 긴장의 현장이 아닌 가족이 아니다. 평화로운 가족은 건강한 의사 소통을 구축함으로써 인간적으로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가족을 말한다.

마음의 언어, 가치의 언어, 감사의 언어, 사과의 언어, 두아(기도)의 언어 및 침묵의 언어로 6 개 언어로 가족 의사 소통 과정을 구축하는 이 책자는 가족 내에 의사 소통 지식과 기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에게 보이는 아름다움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에 반영하는 능력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마음의 언어

꾸란은 가족의 기초에 `mawaddah(마와다)`과 `rahman(라흐만)`이라는 말을 배치한다.[7] 마음의 언어의 어휘는 이 두 단어로 구성된다. Mawaddah은; 사랑, 연정, 애정이다. Rahman(라흐만)이란 자비, 동정심, 친절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mawaddah(마와다) 즉 마음에 대한 사랑을 하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마음에 자비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마음의 언어가 지배적이게 함에 달려 있다. 마음의 언어가 주된 가정에서는 가정 폭력이 언급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가족은 안팎으로 자비를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가족 내에 마음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로부터 배운다. **"그대들 중 가장 훌륭한 자는 자신의 가족에게 가장 잘 하는 자이니라. 나도 가족에게 가장 잘 하는 자이다!"**[8] 라는 자비의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의 입에서 절대 모욕, 욕설, 안 좋은 두아(기도), 저주와 같은 더러운 말은 쏟아지지 않는다. 반대로 동정심과 관용은 마치 그의 입에서 살아난다. 아이샤의 표현으로는 **"그는 거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시장에서 소리 지르지 않았으며, 악으로 악에 반응하지는 않았으며 반대로 용서하고 관용한 것이였다"**[9]



마음의 언어를 Ifk(으프) 사건에서 즉 아이샤를 중상의 사건에서 우리의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태도에서 볼 수 있다. 아내의 가장 힘들고 곤란한 순간에 참을성 있게 꾸준히 행동하고 그와의 의사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우리에게 이 언어의 가장 좋은 보기를 제시한다. 그는

아이샤를 다치게 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그 당시에 겪었던 심한 질병을 고려하여 중상 모략의 주제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아이샤는 한 달 후 순결에 대한 중상을 당했다는 것을 하녀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10]

그는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내 아이"라고 말하면서 말을 시작했고 서비스에 몰려 드는 작은 메디나인에게 "귀여운 아나스"라고 부르며 그를 한 번도 꾸짖지 않았다. 지식인 학자인 루끄만은 아들을 "우리 아가"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11]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12]

▶ 마음의 언어로 대하는 가족에서는 자비는 말하고 폭력은 침묵한다.

▶ 마음의 언어로 대하는 가족에서는 사랑은 말하고 증오는 침묵을 한다.

▶ 마음의 언어로 대하는 가족에서는 친구는 말하고 적은 침묵을 한다.

▶ 마음의 언어로 대하는 가족에서는 손목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은 말한다.

가치의 언어

가족은 가치와 가치의 원천이다. 정직, 정의, 연민과 같은 인류의 많은 공통된 가치는 가족을 통해 세대에 전달된다. 그래서 가치의 언어를 사용할 때 칭찬의 표현에서 가장 관대하게 표현할 곳은 우리 가족이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 주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주택은 "평온이 우세한 평화가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사람들이 존중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평화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집이 주택 즉 평화의 곳이 된다는 것은 상호 가치의 언어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데 달려 있다.

가치의 언어 또한 소속감의 기초이다. 사람은 존중받고 칭찬을 받는 곳에 소속한다고 느낀다. 그의 생각이 과소 평가되고 그의 말과 행동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면, 그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발할 수 있다. 이 언어가 어떻게 우리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삶에 구현되어 있는지 봅시다.

그의 가장 힘든 순간에 옆에 있는 그의 아내 카디자를 "가장 귀중한 여성 중 한 명"으로 칭찬하셨다.[13] 죽음 이후에도 수년 간에 카디자는 우리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에게 별도의 가치가 있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충성으로 그를 기억하고 그의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셨다. 그리고 때로는 이 상황을 질투하며 "카디자 이외의 세상에 여자가 없네!"[14]라고 말을 하는 아이샤에게 **"모든 사람이 나를 믿지 않을 때 그는 나를 믿었다. 모두가 내게 거짓말을 했다고 할 때 그는 나를 확인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그는 나를 지지했다."**라고 말을 한다.[15]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가족에서 이 가치와 칭찬의 언어가 상호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시가 처음에 내린 순간에 놀랍고 무서운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에게 카디자는 다음과 같은 독특한 문장으로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를 지지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맹세하는데 알라(하나님)는 당신을 부끄러워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친척을 항상 돌 봐주고 올바르게 말을 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약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겪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당신은 손님에게 대접을 하고 피해자를 도와준다."**[16]

몇 년 후, **"파띠마는 나의 일부이다. 그를 슬프게 하는 사람은 나를 슬프게 하게 된다."**[17] 라고 말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예시에서 우리는 자녀가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가치가 되는지를 목격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모든 아버지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자 하산을 안고 **"나의 알라(하나님)! 나는 이 손자를 사랑한다, 알라(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18]

돌어가신 아버지 뒤에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아버지, 천국으로 가신 아버지,우리가 가브리엘에게 맡긴 아버지…"라고 고통을 말하는 파띠마는 [19] 아이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아버지의 가치를 가르쳐준다.

가치의 언어는 "당신" 이라는 말을 그만 하고 " 우리"라는 말에 달하고 익숙해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 무가치함, 부족함과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당신" 언어와는 달리, 그것은 함께 함, 신뢰 및 충성을 강화시킨다. 편이 되고 다시 들어 내릴 수 없도록 선반에 들어 올리는 것을 강조한다. 이 언어가 있는 곳에 이제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가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동생`이 아니라 `우리의 동생`이 있다.

- ▶ 가치의 언어가 지배적인 가족에는 `당신`이라고 제외하기가 아니라 `우리`라고 포위와 포옹은 있다.
- ▶ 가치의 언어가 지배적인 가족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 같은 수치스러운 범죄는 존재할 수 없다.
- ▶ 가치의 언어가 지배적인 가족에는 모든 사람은 아름답고 아름답게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게 한다.
- ▶ 짧게 말하자면 가치의 언어가 있으면 경쟁이 아니라 호위가 있다.

감사의 언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인색함의 마지막 수준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알라(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말하는 말씀이다.[20]

"식초 이외의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아이샤에게 **"식초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다!"** [21] 라고 말씀하신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우리에게 감사와 고마움의 또 다른 차원을 보여주신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그렇다면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감사를 받을 권리가 있을까?

부모님은 우선으로 온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부모님 뒤에는 배우자가 온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인생의 약이기 때문이다.

감사의 언어는 가장 작은 친절과 아름다움, 가장 작은 도움과 대우의 가치를 알아서 부모, 배우자 및 자녀들로부터 어떠한 감사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감사하고 칭찬하면 응석 부릴 줄 안다. 그러나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우리를 다음과 같이 경고하신다. **"자기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기회가 있을 때 선으로 보답하라. 기회가 없다면 그분께 칭찬을 해라. 왜냐하면 선행을 칭찬하는 자는 감사의 빚을 갚게 된다. 선행을 숨긴 자는 배은망덕을 하게 된다."**[22]

가족에게 감사의 언어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존재한다는 것과 존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부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조언으로 우리는 항상 다수가 아닌 결석을 바라보고 배은망덕을 하지 말아야 한다.[23] 가장 위험한 실명은 감사하지 않고 배은망덕을 하는 것이다.

▶ 가족에서 감사의 언어가 있다면 부재가 아니라 풍요가 있다.

▶ 가족에서 감사의 언어가 있다면 슬픔이 아니라 행복이 있다.

▶ 가족에서 감사의 언어가 있다면 결함이 아니라 자부심이 있다.

사과의 언어

인간은 실수를 의미한다. 잠시 실수를 할 권리가 없거나 첫 번째 실수에 대해 가장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 알라(하나님)께서 어떻게 될지를 꾸란에서 이렇게 말을 하신다: **"인간이 행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케 하신다면 땅 위에 어떤 생물체도 남을 것이 없을 것이라."**[24]



이 시점에서 인간의 책임은 무엇인가? 또 다시 꾸란에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한다. **"하나님은 무지하여 악을 저지른 죄인들이 회개하고 반성할 때 이들을 받아 주시나니."**[25]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실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에

대한 실수와 잘못이 있다는 것은 불가피하다. 알라(하나님)에게 즉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처럼 서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예,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 구하는 것. 우리가 실수를 할 때 용감한 만큼 회개하고 사과할 때도 그 만큼 용감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는 환경이 우리 가족이라면 사과를 가장 많이 받는 자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다.

사과하는 것은 실수를 변호하는 것과 같은 더 큰 실수로부터 우리를 구할수 있다. 사과하는 것은 변호하기 위해 낭비될 노력을 수리해서 쓸 수 있게 해준다.

사과하는 것은 원한의 연장, 토라지는 것은 마음의 침략하는 것, 가족내의 멀어지는 것을 막는다.

사과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며, 사과를 하는 자를 약하게 보지 않고 용서를 사과로 응답하는 것이 미덕이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게서의 표현으로 "**용서에 있는 실수는 처벌에 있는 실수보다 덜 해롭다.**"[26]

사과의 언어를 사용할 때 배우자, 자녀 및 친척을 비난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 편으로는 사과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상대를 비난하면서 하는 사과는 처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고 수리가 아니라 파괴를 만든다. 건전한 사과에서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해 고백하고 후회를 표명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말을 해야 한다.

▶ 가족에서 사과의 언어가 지배적이라면 부끄러움과 상실을 다루지 않는다.

▶ 가족에서 사과의 언어가 지배적이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고 특기가 생산된다.

▶ 가족에서 사과의 언어가 지배적이라면 실수는 용서된다.

▶ 가족에서 사과의 언어가 지배적이라면 빈말이 아니라 용서가 길어진다.

두아(기도)의 언어

두아(기도)의 순간은 우리의 가장 은밀하고 특별한 순간이다. 우리는 이 소중한 순간에 가족에게 매우 관대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꾸란은 우리에게 종종 예언자들의 가족을 위한 두아를 상기시켜준다.

예언자 아브라함이 카아바를 만들자 그는 가족과 세대가 무슬림이 되기를 위해 간청하셨다.[27]**"하나님! 저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저의 자손에게도 그렇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받아 주소서."**라고 말한다.[28] 예언자 사가랴는 알라(하나님)께 깨끗한 세대를 위해 기도한다.[29]

가장 자비로우신 분의 종들, **"기뻐할 수 있는 아내와 자손들을 주옵소서."**[30]라고 두아를 하신다. 한 사람은 마흔 살이 되면 그는 자신과 부모와 자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구걸한다.**"하나님 당신께서 저와 그리고 저의 부모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은혜에 저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하여 주소서. 그리고 당신이 기뻐하실 의로운 일을 하고 저의 후손도 의로운 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소서."**[31]

꾸란에서는 부모님에게 불만이 있게가 아니라 두아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나님! 두분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두분은 어려서부터 저를 양육하였나이다."**[32]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우리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 두아 보물이 있는지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 **"3가지 두아(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받아들여질 것이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자의**

두아, 여행자의 두아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두아이니라."[33]

천사들의 두아에서도 우리 가족은 잊혀주지 않는다. **"하나님! 당신께서 그들과 그리고 그들의 선조들과 아내들과 후손들 중 의로운 자들에게 약속한 아덴의 천국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34]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도 가족을 위해 두아의 언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각 예배의 맨 마지막 앉은 자세에서 읽은 앗 쌀라투 알란나비 두아에서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가족에게 감사하며 감사로 기념한다.[35] 우리에게 예배 중에도 가족을 잊지 않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가 있다. 또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예배를 할 때 다음과 같이 두아(기도)를 한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고 내 집에 평온과 평화를 주고 내 생계를 축복하여 주소서."**[36]

가족을 홀로 놔두지 않도록 주의 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두아가 부어진다.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들의 하나님! 저와 저희 가족을 현세와 내세에서 매 순간 믿음이 진실한 자로 허락하소서. 위대하시고 관대하신 하나님!"**[37]

두아하기를 위해 특별한 날과 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식사 시간에, 자기 전에, 집에서 나갈 때, 아이들과 배우자를 배웅할 때 항상 두아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여행을 나가실 때 하는 두아에서 가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원을 하셨다. **"하나님! 내가 집에 돌아갈 때 나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나쁜 상황에 처한 가족을 찾는 것으로부터 당신에게 피한다."**[38]

때때로 화난 순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우리의 입에서 저주가 나와버린다. 우리 입에서 나온 저주가 우리에게 문제로 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경고는 매우 인상적이다. **"자신, 자녀, 하인 및 재산을 저주하지 마라. 혹시나 알라(하나님)께 요구가 거부되지 않을 때 저주한 것이라면 알라(하나님)가 당신의 나쁜 기도를 받아 들이실 수도 있다."**[39]

우리 가족에서 행복과 평화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분노와 고통의 시기에도 두아의 언어를 작용해야 한다.

- ▶ 두아의 언어가 자리 잡는 가족에는 저주가 아니라 두아가 있다.
- ▶ 두아의 언어가 자리 잡는 가족에는 악담이 아니라 초대가 있다.
- ▶ 두아의 언어가 자리 잡는 가족에는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부름이 있다.
- ▶ 두아의 언어가 자리 잡는 가족에는 불만이 아니라 간청이 있다.
- ▶ 요컨대, 두아가 계속하는 가족에는 알라(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침묵의 언어

언뜻보기에 침묵의 언어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모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이, "내 손에 있는 침묵의 맥박을 들어라 / 듣고 마음을 놓아라!" 라고 말했듯이, 귀를 기울이는 자를 위한 침묵은 때때로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를 준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말을 눈이 말한다. 그래서 가족에서 건강한 의사 소통을 위해서 이전 5 개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침묵의 언어가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추천과 마찬가지로 **"알라(하나님)와 심판의 날을 믿는 사람은 선을 말하거나 침묵하라."**[40]

한 하디스에서 사람은 통제력을 잃은 분노의 순간에 침묵하는 것이 추천된다.[41] 후회하고 가족의 평화에 해를 끼칠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을 지키고 말하기 위한 올바른 순간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꾸란에서는 가족 내에서 말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냉철한 친척이 중재자로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추천된다.[42] 따라서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면 침묵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거나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 침묵의 언어가 사용되는 가족에서는 빈말 하는 것이 아니라 유쾌한 말을한다.

▶ 침묵의 언어가 사용되는 가족에서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분노를 들어내지 않고 침묵을 한다.

▶ 침묵의 언어가 사용되는 가족에서는 생각에 나온 것이 즉시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가족의 안전과 건전한 관계를 보장하는 의사 소통 언어의 공통점은 자비이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폭력과 증오의 언어를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의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께서는, 아이샤에게 경고할 때 **"알라(하나님)는 모든 행동에서는 `r ı fk`, 즉 부드럽고 이해심으로 행하는 것을 좋아한다."**[43]라는 것을 표현한다.

"이해와 양심이 없이 모든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박탈 당할 것이다."[44]라는 하디스를 여기서 기억하자. 요컨대, 우리가 가족 안에서 완벽한 언어를 개발하고 싶다면;

▶ 정착된 의사 소통을 위해 마음의 언어

▶ 건강한 의사 소통을 위해 가치의 언어

▶ 지속적인 의사 소통을 위해 감사의 언어

▶ 재 의사 소통을 위한 용서의 언어

▶ 지나친 의사 소통을 위한 두아의 언어

▶ 나쁜 일들에 불구하고 의사 소통을 위한 침묵의 언어

나의 알라(하나님)!

우리 집에서 우리 마음의 아름다움과 대화
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우리와 우리의 혀를 서로의 가치를 더럽게
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조서.

주인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의식을 주소서.

우리 모두를 사과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두아가 우리 집과 혀에세 계속 있게
해주십시오.

인간답게 말을 하지 못할 때 얌전하게
침묵할 수 있는 의식을 주소서.

아민!

1 부카리, 니카흐, 109.
2 부카리가 전함, 제나이즈, 92
3 바까라, 2/187.
4 이스라, 17/53.
5 까프, 50/18.
6 부카리, 아답, 31.
7 로움, 30/21.
8 티르미, 멘아큽, 63.
9 티르미디, 비르와 슬라, 69.
10 부카리, 샤하다, 15.
11 루끄만, 31/13-19.
12 마리아, 19/42-48.
13 부카리, 마나큽울 안사르, 20.
14 부카리, 니카흐, 108.
15 이븐 한발, VI, 118.
16 부카리, 베디울 와히, 1.
17 부카리, 니카흐, 109.
18 무슬림, 페이하일 알 사하바, 56.
19 부카리, 메가지, 83.
20 아부 다우드, 아답, 11.
21 무슬림, 아시리바흐, 166.
22 티르미디, 비르와 슬라, 87.
23 부카리, 리카크, 30.
24 파티르, 35/45.
25 니싸아, 4/17.
26 티르미디, 후두드, 2.
27 바까라, 2/128.
28 아브라함, 14/40.
29 이므란, 3/38.
30 푸르깐, 25/74.
31 아흐까프, 46/15.
32 이스라, 17/24.
33 티르미디, 비르와 슬라, 7.
34 무으민, 40/8.
35 부카리, 안비야, 10.
36 이븐 한발, IV/63.
37 아부 다우드, 테프루 에브바비르 위뜨르 , 25.
38 무슬림, 하즈, 425.
39 아부 다우드, 테프루 에브바비르 위뜨르 , 27.
40 부카리, 아답, 31.
41 이븐 한발, I/239.
42 니싸아, 4/35.
43 부카리, 아답, 35.
44 아부 다우드, 아답, 10.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의 날에, 아무 종도 자신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보냈는지, 지식으로 무엇을 했는지, 물건을 어떻게 획득하고 소비했는지, 몸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해서 노후화하게 했는지에 대해 심판을 받기 전에 어떤 곳으로도 이동할 수 없을 것이다."[1]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심판하고 내세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약한 사람은 자신의 욕구에 따라 자신을 이끌고 알라(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다."[2]

"자신의 부양가족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그 죄만으로도 충분하니라."[3]

기술을 의식적으로 사용한다

딘츠 메흐멧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말씀하시길: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를 무시함으로써 속임을 당하고 있다. 건강과 여가 시간."

(부카리, 리칵, 1)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언제든지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루 하루 새로운 발명, 새로운 작업, 새로운 연구, 새로운 응용이 등장하고 있다. 이 새로운 세계의 기본 요소 중 제일 첫 번째는 기술이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장소를 둘러싼 기술은 의심할 여지없이 개인과 사회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효과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다. 이것은 온전히 우리가 기술과의 관계를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하는 지에 달려 있다!

기술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과 의식적이고 통제된 관계를 구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뿐만 아니라 특히 가족 구성원에게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기술 중독의 쓴 결과로 직면하지 않는 것은 이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중독이라면...

가족과 기술의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하면 먼저 중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중독을 정의하기 전에 사회에서 중독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두 가지 기본 문제에 주목하자면:

첫 번째 문제는 중독이라고 할 때 종종 약물, 알코올, 담배 및 휘발성 물질과 같은 화학 중독이 제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중독성은 "약물 중독 " 및 "행위 중독"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약물 중독은 예시를 한 물질의 중독이며 행위중독은 도박, 쇼핑, 기술 중독과 같은 행동들이다.

우리는 약물 중독을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당하면 즉각적인 치료를 추구하지만, 행위중독을 보통 나쁜 습관으로 생각하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의 알코올 중독은 부모가 두려워하지만, 인터넷 중독은 임시적이라고 인식되어 무시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문제가 되고 사람의 삶의 많은 영역을 손상시키는 측면에서 약물 중독과 행위 중독은 차이가 없다. 따라서 행위중독도 약물중독 만큼 두려워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중독의 개념이 일상 생활에서 종종 잘못된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어떤 존재나 행동에 대해 과도하게 깊이 빠진 것을 중독이라고 정의되는 것을 듣는다. 그러나 중독은 의학적 진단이다. 중독이 언급되면 꼭 질병이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질병의 의미를 무시하고 "중독" 단어를 무작위로 사용하는 것은 일상 생활에 중독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눈에 중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질병 측면에서 중독을 과소 평가하게 만든다.

중독이란?

중독은 사람이 사용하는 어떤 대상이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그 없이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중독에 있어서, 이 사용과 행동은 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사람은 의무적인 일과 그가 유지해야 하는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과 신체 에너지를 자신이 의존하는 물질이나 행동에 투자한다.

중독을 이해하는 방법

중독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중독은 과정에서 발전된다. 따라서 중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따르는 것이 중독을 예방하거나 조기 치료를 받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어느 나이에나 중독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지 또는 중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판단하려면 다음 증상을 명심해야 한다.

- ▶ 사용된 물질의 양 또는 행동에 소요되는 시간의 증가
- ▶ 어떤 이유로 물질의 양이나 행동의 빈도가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경우 불안, 불면증, 식욕 부진, 분노와 같은 증상의 출현
- ▶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또는 사법적 문제 발생, 즉 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계속 사용하거나 특정 행동을 계속 보여주는 것.
- ▶ 물질 또는 특정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의도한 것보다 많은 물질을 사용하거나 어떤 행동하는 것.
- ▶ 실제로 또는 정신적으로 중독적인 물질이나 행동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
- ▶ 특정 물질이나 행동은 자신의 업무, 학교 및 가정 생활을 방해하는 만큼 심지어 개인 청소를 잊게 만드는 방식으로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기술 중독과 우리 가족

기술 관련한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때, 기술의 가능성을 사용하거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가 기술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터넷, 텔레비전, 휴대 전화

및 컴퓨터와 같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침투하는 기술 제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중독성 있는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 가족을 기술에서 정화해야 하는가? 아니면 편의와 이익을 위해 집의 문을 기술이 들어올 수 있도록 끝까지 열어야 하는가?

문제를 일방적으로 보고 단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측면을 보는 대신 양 측면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아이의 손가락을 빨아 먹는 문제에 직면할 때 손가락을 자르는 것이 해결책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기술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다른 한편으로, 기술이 우리의 삶을 무제한으로 침범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사용하게 하는지, 그리고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게 할 방법을 생각하고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



기술과 관련하여 가장 강조해야 할 그룹은 의심할 여지없이 어린 아이이다. 기술적인 도구가 더 일반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인보다 이 분야를 조금 더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이로 인해 기술과 기술이 제공하는 것 중에 올바른 것을 잘못된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측면에서 갈 길이 멀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은 기술 중독에 대해 의식하고 이러한 의식으로 아이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한다.

기술이 자녀 발달의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1- 사회의 유용한 구성원이 될 준비를 하고,

2- 개별적으로 자기 미래에 준비를 하고,

3-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지원하는가?

이 세 가지 기능을 지원할 정도로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기술 중독으로 단계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이 텔레비전, 비디오, 휴대전화, 특히 인터넷을 사용할 때 한 번에 중독에 빠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간다. 이 단계들은 중독이 깊어지고 있다는 심각하고 중요한 징후이다. 따라서 이러한 징후를 조회하고 확인하는 것은 중독이 시작되기 전에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을 통해 계속 설명하면 이러한 단계를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 실험적 사용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인터넷에서 사이트, 게임, 응용 프로그램을 보고 듣고 궁금해 한다. 이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는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게임을 하거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실험해보고 끝났으며 호기심이 해결된 것이다.

두 번째 단계: 사회적 사용

특정 게임을 하는 사람,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친구 그룹이 사람 주위에 있는 경우, 그 그룹에 참가하거나 그 그룹에서 계속 있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그가 이외 다른 행동을 하면 참가한 그룹의 안건에서 제외된다. 특히 젊은이들은 친구 집단에 적응하기를 위해서 꺼려하더라도 소셜 인터넷을 계속 사용한다. 중독이 주로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이러한 유형의 사용이다.

세 번째 단계: 운영 사용

의도적으로 하는 사용이다. 이러한 목표 중 첫 번째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여가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을 찾을 수 없거나 활동적인 사회 환경이 없거나 사람들과 실제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대개 지루함을 없애기 위한 가장 저렴하고 쉬운 수단으로 인터넷을 선택한다. 그들은 여유가 생기고 지루해지면 대안을 찾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한다.

또 다른 사용 이유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다. 살면서 일, 학교 또는 자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동안 문제를 잊고 싶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문제 없는 새로운 세상에 존재한다. 그러나 인터넷에 대피하는 것으로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지속된다. 그들은 단기적으로 방해하지 않지만 그대로 남지 않고 성장하고 다양해진다.

네 번째 단계: 중독 사용

이 단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인터넷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그는 궁금한 상황이 있든 없든, 사회 환경이 그를



강요하는지 여부, 인생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인터넷을 사용한다. 궁금한 것이 없다면 찾을 것이며 소셜 환경에 사용자가 없으면 사용자로 구성된 소셜 환경을 얻을 것이며 그는 인터넷으로 모든 시간을 채우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을 것이고 사용은 문제의 결과가 아닌 이유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중독자이기 때문이다.

중독의 발걸음은 인터넷 사용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휴대 전화 및 게임 콘솔과 같은 모든 종류의 전자 장치의 사용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부모님으로서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유아기부터 청소년기와 청년에 이르기까지 기술과 어떤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위험을 제시간에 대처함으로써 올바른 결정으로 그들을 안내하는 것이다.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아이에게 신체적과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술적인 도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에 기여하고 학습을 위한 무제한 환경을 제공해도 때로는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정보와 경험을 접하는 것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도구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은 부정적인 성적 정보를 얻고, 폭력적인 행동을 조회하고, 알코올, 흡연 및 도박 습관을 갖게 되고,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을 모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간과 같은 보물을 어떻게 쓰는지를 올바르게 안내하지 않으면 기술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 있다.

어린이에 대한 기술 사용의 신체적 및 정신적 영향은 부모가 일련의 부정을 다루어야 할 정도로 깊을 수 있다. 특히 컴퓨터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발달 연령의 어린이 자세 및 앉는 자세와 관련된 신체적 문제, 시력 문제, 언어 능력의 후퇴, 일부 어린이의 간질, 또한 뇌 발달 문제가 생기고 학업 성취도가 떨어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과 유사한 습관은 사회 생활에서 아동의 성공과 자신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력과 기선 부족, 집중 장애, 체력 부족, 욕심, 지루함, 조급함과 즉각적인 성취 욕구와 같은 문제는 기술로 인한 아동의 결과이다.

인터넷은 악을 평범하게 만든다.

아이들은 종종 인터넷을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사용하여 이러한 게임이 주로 폭력적인 게임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영역이다. 텔레비전 화면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폭력적인 이미지가 부적절하고 오락 수단으로 소개되는 것은 악과 폭력이 아이의 삶에 교활하게 들어 오게 한다. 심하게 다친 자, 살인자, 시체는 어린이 세계에서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되며 피를 보는 것과, 공포 장면은 어린이의 공포를 깨우지 않는 것으로 시작된다. 양심, 동정심, 자비와 같은

인간의 감정이 사라진 아이는 폭력의 그림에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무관심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게임과 이미지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적대적인 세상이 만들어지고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 공감 또는 인간 존엄성 존중과 같은 개념이 무시된다. 눈에 띄는 것은 폭력적인 행동과 끊임없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정의의 감각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당한 어린이들은 폭력으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장 작은 다툼이나 갈등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아이는 기술을 쓰는 습관을 가족내에서 가진다.

아이들과 기술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기술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족내에서 가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이가 부모로부터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아이들이 기술 도구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어떤 연령으로 무슨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사용 분야를 숨길 것인지의 여부를 부모님이나 그들의 반응에서 배우는 것이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는 어머니와 밤에 인터넷 사용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아버지를 가진 아이가 건강한 습관을 갖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휴대 전화는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이 아니라는 것부터 아이가 텔레비전 화면에서 떨어져야할 거리까지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자녀를 교육 시키는 것이 부모에게서 기대되지 않는가?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유산은 좋은 성품이니라."**[4] 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은 습관을 배우고 나쁜 습관을 피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주어진 교육을 의미하지 않겠는가?



기술 사용에 대한 부모를 위한 추천

기술, 특히 매일 확산되는 인터넷 사용의 혜택을 쓰면서 자녀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잘못된 태도로 인해 자녀의 기술 중독이 깊어지지 않도록 부모로서 다음 사항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언어를 배웁시다.

자녀를 나쁜 상태로부터 보호하고 자녀를 좋은 길로 지도하려면 먼저 인터넷 언어와 내용을 알아야 한다. 가족과 기술 사이의 건전한 연결을 목표로 하는 비정부 조직의 활동, 회의 및 세미나와 같은 교육 활동에 참여합시다. 이 내용에 대한 법규를 준수합시다.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웹 사이트 및 PC방에 대한 정보를 얻고 불법 관행을 해당 기관에 신고하라. 학교와 교사와 협력합시다.

인터넷 구매 시 보호 메커니즘을 준비합시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얻는 즉시 컴퓨터에 악성 사이트로부터 보호 프로그램을 설치합시다. 자녀가 인터넷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와 관행에 대한 지원을 받읍시다.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가르칩시다.

자녀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인터넷을 제어하는 방법, 즉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칩시다. 인터넷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공유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쓰거나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경고합시다. 집 밖에서 인터넷을 사용해야 할 때 전자 메일 주소나 암호를 저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상키시킵시다. 인터넷에서 말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실제 생활에서는 만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칩시다. PC방에 대해 알리고 합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는 PC방에 가도록 선택하게끔 합시다.

인터넷 사용에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시다.

자녀에게 일상에서의 실수, 기만적이고 비윤리적인 상황들이 인터넷 사용에서도 똑같다는 것을 알려줍시다. 일상 생활에서 누군가의 얼굴에 말할 수 없는 말을 인터넷에서 쓰거나 휴대 전화로 메시지로 보내서는 안된다고 설명합시다.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가는 것과 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들과 거부하는 모든 공간과 행동은 가상 세계에서도 나쁘다는 것을 가르칩시다. 인터넷에 쓰여 있는 것과 텔레비전으로 방송되는 모든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예를 통해 보여줍시다.

사용 계약을 합시다.

인터넷 사용의 규칙과 조건에 대해 자녀에게 말한 후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인터넷 사용 계약"을 준비할 수 있다. 계약을 준비하는 데 가족 회의를 하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면 계약이 강화되고 계약 준수가 보장된다. 계약은 가족의 모든 어린이에게 유효해야 하지만 계약서에 모든 어린이 나이에 적합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다. 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제재도 결정해야 한다. 계약을

마무리하고 모든 사람이 계약서에 서명한 후 모든 사람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컴퓨터 옆에 규칙을 걸 수 있다.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밖에 있을 때 어디에 간 것인지 아는 것과 같이 컴퓨터에서 하고 있는 일, 인터넷의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는지, 그가 어떤 게임을 하고 텔레비전에서 무엇을 시청하는지 알아야 한다. 인터넷을 사용할 때 먼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를 지켜보겠다는 것을 알려줍시다. 이것이 부모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을 상기시킵시다. 그 후 이 행동 때문에 당신과 자녀 사이에 불신을 일으키지 않고 자녀가 속상하게 하지 않도록 인터넷 사용을 지켜봅시다.

친구로 인한 영향을 조심합시다.

집에서 취한 조치는 어느 정도 효과적이어도 자녀의 친구들을 고려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특히 학업 시기 동안 자녀가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고 싶지 않아서 관심이 없거나 당신과 갈등이 생기더라도 인터넷, 영화 및 텔레비전 의제를 따라야 할 수도 있다. 스포츠에 시간 주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친구 그룹은 자녀의 건강한 기술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간 제한을 둡시다.

인터넷 사용 및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고 이 제한을 숙제나 프로젝트 준비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족의 구조, 집의 질서 및 대안 가능성에 따라 기술 도구가 사용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2 세 이하의 어린이는 인터넷, 컴퓨터 또는 텔레비전을 만나는 것은 옳지 않다.

취학 전 기간에는 인터넷 사용 시간이 하루 30 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그 사용 시간이 당신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초등 교육의 나이에 이 기간은 과제 준비를 제외하고 최대 45 분이어야 한다. 고등학생에게는 하루 2 시간 사용이면 충분하다. 이제 그는 **"나이가 들기 전에 젊음의 가치를 아는 것"**[5] 그리고 시간이 될 때 **"시간을 보내는 곳에 대해 심판 할 것을"** [6] 같은 예언자의 조언을 배울 수 있는 시대이다.

인터넷을 베이비 시터로 사용하지 마라.

일부 부모는 스스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위해서 집에서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사용할 수 있다. 한동안 작동하더라도 자녀가 오랫동안 화면을 보면서 노출될 위험을 고려하여 전자 기기를 베이비 시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집의 공용 공간에서 인터넷을 이용합시다.

자녀의 방에 컴퓨터나 인터넷이 있으면 컴퓨터를 제어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를 거실과 같은 공용 공간에 놓고 화면을 방 입구로 돌리면 좋겠다.

자녀와 인터넷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때때로 자녀와 함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자녀의 지식을 인식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다.

인터넷에 봉사하지 맙시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정성을 보여줍시다. 식사와 차 시간 때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자녀에게 서비스 하는 대신 그를 식탁에 와서 당신과 함께하게 하는 것이 좋다.

자녀의 말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야 한다.

집에서 관심 받지 않고, 말이 들리지 않고, 같이 놀지 않는 아이는 자신의 인생을 가상 세계로 옮기기 시작하고 인터넷에서 채팅하여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모든 종류의 세부 사항을 알려주기 시작한다. 그러나 부모로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와 건강한 의사 소통을 하고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로 삶을 공유하며 규칙적이고 양질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자녀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터넷 채팅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유에 주의해야 한다.

미래의 중독을 유발하는 심리적 문제를 알고 치료를 받는 것은 중독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연구들은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치료를 소홀히 한 결과로 인터넷 중독이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금지하지 말고 바쁘게 해주어야 한다.

자녀에게 텔레비전, 휴대 전화 또는 인터넷 관련해서 얼마나 금지를 해도 할 수 있는 더 좋은 것이 없다면 자녀를 막기가 어렵다. 그러한 경우, 그는 당신을 속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자녀가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에 집에서 또는 집 밖에서 그가 좋아하는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허락해주고 기회를 주면서 그를 바쁘게 하고 인터넷에서 멀리할 수 있다.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부모는 기술 중독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녀가 즐길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이 대안은 문화, 예술 및 스포츠 활동 또는 가족에서 가족 구성원들과의 시간일 수 있다. 요점은 아이가 활동을 즐겨야 한다는 것이다. 금지나 제한 사항을 배치하기 전에 대안을 생산하면 오래 지속되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의 대안은 무엇인가?

아이들을 위해 인터넷에 대하여 대안 활동을 추천할 때 자신을 위해도 꼭 다양하고 유용한 직업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행동은 말 앞에 있고 행동의 효과는 말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 말이 효과적이고 영구적이 되려면 기술에 대한 대체 활동을 생성할 때 모범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유해한 기술의 사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미리 시작하라

이 책에 나열된 모든 추천 사항은 기술 중독을 피하기 위한 해야 하는 준비이다. 만약에 가족 구성원 중 누구에게 중독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1] 티르미드, 스야툴 끼야마, 1.
[2] 티르미드, 스야툴 끼야마, 25.
[3] 아부 다우드, 자카트, 45.
[4] 티르미디, 비르와 슬라, 33.
[5] 하킴, 뮤스테드렉, IV, 341.
[6] 티르미드, 스야툴 끼야마, 1.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를 무시함으로써 속임을 당하고 있다: 건강과 여가 시간."[1]

"모든 취하게 하는 것은 음주이며 모든 취하게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2]

"많은 양이 취하게 하는 것의 적은 양도 금지되어 있다."[3]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권리가 있노라."[4]

가족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한다

오즈괴렌 이스마일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 자신과 너희
가족을
인간과 돌들이 연료가 되어 타고 있는
불로부터 구하라."
(타흐림, 66/6)

오늘날 지구 사람들을 다 붙잡고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물질 중독이다. 물질 중독은 나이에 관계없이 마약 중독, 대마초, 헤로인, 약, 시너, 담배, 알코올과 같은 물질의 빈번한 사용으로 인한 발생한 인간의 질병이다.

술과 중독성 물질 사용의 나이는 매일 매일 감소하고 있으며, 이 물질에 대한 관심은 젊은이와 성인 사이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면 도덕적, 문화적 가치가 약화되고 범죄율이 증가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유대가 손상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가족의 단합을 강화하고 가족의 모든 구성원을 해로운 습관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물질 중독과의 싸움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얻어야 한다.

위험한 시기: 청소년기

우리 모두는 청소년기가 어린 시절에서 청소년으로 전환하는 데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 생명 선에서 우리의 다른 발달 기간 중 하나인

청소년기는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성숙을 도달하기 위한 투쟁이다. 약 13 세의 용감하고 활기찬 소년은 이제 성인으로 대우 받고 싶어하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하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강하고 독립적이라고 믿으며 자신의 환경에 의해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반항적인 흥분을 느낀다. 그 자녀의 부모의 규칙은 자녀를 구속하지 않고 사회의 기대와 전통들은 그 자녀를 얽매이지 않게 한다. 그의 생각에 따라, 인생에서 새롭고 다른 것을 시도해야 한다!

이 분위기는 알코올 및 약물 사용, 특히 흡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학교와 가족에서 직면하는 제한은 때때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화를 내거나 지루하거나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자신을 물질 중독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이 시기에 가장 의지하는 사람들은 친구들이며 감정과 생각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그들의 변동성에 영향과 호기심이 더 해지면 위험의 크기가 증가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관심과 이해를 절대로 빼앗지 않을 만큼 민감하고 위험한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중독이 무엇이고 중독을 아는 방법

중독은 사람이 사용하는 물질이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두어 그것 없이는 삶을 계속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중독은 담배, 알코올, 마약과 같은 물질에 대하여 깊어질 수 있으며 도박 같은 행동 또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기술 장치에 대한 행동으로 깊어질 수 있다.

만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가 해야 할 일과 계속해야 할 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시간, 에너지, 돈 또는 관심을 어떤 물질, 존재 또는 행동에 기울이면, 그에게 도달 할 수 없는 경우 불안, 불면증, 식욕 부진 및 분노의 징후를 보이면,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또는 사법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물질을 계속 사용하거나 특정 행동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 학교, 직장과 가정 생활을 방해하고,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며, 심지어 먹고 마시고 청소하는 것과 같은 필수 필요 사항을 잊어 버리는 정도 물질이나 행동에 깊이 빠지는 경우 중독자이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

물질 중독의 원인은 무엇인가?

인생은 시험이며 시험은 어려움, 고통, 투쟁, 노동 및 인내심을 의미한다. 사람은 평생 동안 직면해야 하는 많은 문제와 만났을 때, 때때로 그가 원하는 만큼 강할 수는 없다. 믿음과 의지에 약점이 있으며, 실제로 눈덩이처럼 작은 그 문제는 눈사태 같이 커지는 것을 느끼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 가족의 믿음직한 목소리나 지지가 없으면 자기에게 다른 대피소를 찾는다. 특히 이 환경에서 받아 들여지는 느낌이 강렬한 이 시기 때 가족의 부정적인 태도는 정서적 문제를 유발하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는 청소년들은 유해한 물질을 피난처로 선택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반대로 문제에 더 깊이 묻힐 위험이 있다.

그런 다음 곤란한 과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수치스러워함, 파산, 가족과의 이탈, 사회로부터의 외로움, 외로움, 직장과 학교 생활의 악화, 도덕적 이단, 우울증, 치명적인 질병의 운반 또는 전염, 자살…

사람들을 이 어려운 여정으로 밀어 낸 이유를 살펴보면 개인 및 가족 문제 뿐만 아니라 호기심과 우정의 효과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물질 중독의 원인을 간단히 언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 호기심

젊은이들이 담배와 다른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호기심과 모방이다.

"한 번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은, 인간을 중독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 친구 환경

사람이 물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친구 관계이다. 사실 선은 물론이고 악도 친구들에 의해 전파되고 우리 종교 이슬람의 경고의 대상이 된 것은 사실이다. 사랑하는 우리의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 하신다: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의 예는 사향 소지자와 풀무질 하는 자과 같다. 사향 소지자는 사향을 대접하거나 당신은 그 소지자에서 사향을 사거나 좋은 냄새를 맡는다. 풀무질 하는 자는 당신의 옷에 불을 붙이거나 그로부터 안 좋은 냄새를 맡는다!"**[5]

특히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영향이 점차 감소하고 친구 그룹의 영향이 더 강해진다. 부모보다 친구들을 더 신뢰하는 젊은이들에 대해 그들의 요구에 반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친구 그룹에 포함되거나 배제되지 않거나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때로는 담배, 알코올, 마약과 같은 물질을 시도해야 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

아이들이 담배, 알코올 및 마약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제안과 위협에 주의를 기울여라!

"한 번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중독으로 안 만들 것이다, 받아서 마셔라."

"시도해도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제발, 내 부탁이라서 한번만!"

"너는 정말 나약하구나..."

"당신이 그것을 시도하면 나는 당신이 원하는 아이를 소개시킬 것이다."

"당신이 가면,이곳의 맛은 빠져 나간다."

"가면 나는 다시는 그대의 얼굴을 안 볼 것이다."

"당신에게 우리로부터 더 이상 구원의 손길이 없다!"

"마시지 않다면 아버지께 실수를 해명해야 한다!"

3. 가족 구성원의 모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담배 사용자, 알코올 또는 물질 중독자가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그를 모델로 삼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부모의 부정적인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말로 하는 경고보다 효과적이며 그들은 중독성 물질에 대해

경고하더라도,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적용하지 않고 하는 행동을 적용한다.

4 심리적 문제

젊은이가 슬프고 괴로워하고 화를 낼 때, 가족 및 학교 문제에 대처할 수 없을 때, 해결법을 물질 사용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가 유해 물질의 수감자이면 더 복잡해지고 더욱 커진다.

5. 사회 환경의 영향

물질 중독은 단지 경제 및 심리적 조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사회의 구조와 환경 조건 또한 사람들의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마약이 판매하는 가장 쉬운 곳은 약물 사용이 제일 일반적인 지역이다. 그 후에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는 물질 남용에 눈감는 지역이나 아마도 판매에 저항할 수 없는 사회가 사는 지역일 수도 있다.

6. 누가 더 많은 위험에 처해 있는가?

우선, 가족에서 물질 사용을 목격한 어린이들은 청소년기에 해로운 물질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하라. 가족과 가까운 친척 중에 담배, 알코올 및 마약을 사용하는 개인의 존재는 어린이에게 친숙성을 유발하며, 이 경우 유해 물질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가 어려워진다. 사랑과 동정심에 근거하여 건강한 의사 소통을 할 수 없는 폭력과 불안이 만연한 가족에서 아이들은 물질 중독으로 전환할 위험이 높다. 징계의 이름으로 자녀에게 과도한 압력을 가하거나 제한 없이 과도한 관용을 보이는 경우, 자녀가 성격과 자신감을 키우지 못하도록 과잉 보호 행동을 하며 불안정하고 결정적이지 못한 부모의 자녀들은 물질 중독하기가 쉽다.

반면에 깨진, 이혼한, 부모 중 하나를 잃은 가족에서 자란 아이들은 관심과 사랑을 외부 또는 물질 사용에서 구할 가능성이 높다.

위험 그룹에 있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 중 침략, 행동 장애 및 모순, 모든 경우와 모든 사람에 대한 반란 또는 반대로 내성 성격 및 과도한 순종,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것, 주변에서 하는 말과 행동에서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부모로서 자녀의 성격 특성, 경향, 관심 및 필요를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가?

담배와 알코올 같은 나쁜 냄새로 알려진 물질을 제외하고는 많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초기 단계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 수년 간 눈에 띄지 않고 살고 있는 마약 중독자가 있다. 또 물질 중독은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과 행동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 때 젊은이들은 보통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자녀의 불안정한 태도를 나이와 연관 짓는 부모는 때때로 경고 신호를 놓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징후를 아는 것은 초기 진단에서 필수적이다.

신체적 증상

물질을 사용하는 젊은이들의 옷과 헤어 스타일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옷에 화상과 찢어진 부분이 있는 것, 몸에 흉터나 벤 자국이 있는 것, 식습관의 변화와 과도한 체중 감소, 말할 때 어려움 또는 혀 짧은 발음, 둔한 시선, 초점 및 인식 문제, 과도한 이동성 및 에너지 폭발과 같은 증상은 젊은이가 물질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손 떨림, 땀 흐림, 불면증, 불안, 분노, 지속적인 불면증, 지속적인 메스꺼움, 식욕 부진 또는 배부름, 빈혈 및 중독과 같은 신체적 증상은 무시해서는 안된다.

행동 변화

젊은이의 모순된 말과 결단력 없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 반응성과 긴장감, 가족과 학교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 미래의 꿈과 계획이 없는 것, 거짓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가 해로운 물질에 중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집에서 물건이 사라지거나 집에 늦게 오는 것, 화장실에 오래 머무르는 것, 방과 가방에서 가루 같은 물질이나 알 수 없는 내용의 알약을 찾는 것, 갑자기 생긴 돈이나 빚이 걱정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가족은 젊은이의 친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 취미에 대한 관심 상실, 팔과 다리의 바늘 자국을 덮기 위해 소매 옷을 지속적으로 착용, 술 취한 외모, 절망적이며 의지가 없는 행동을 간과하면 안된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청소년이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모발, 소변 및 혈액 검사이다.

물질 중독에 관하여 가족과 젊은이의 관계

가족은 인생에 눈을 뜨는 순간 사람을 사랑과 애정으로 포옹하는, 성격, 신앙 및 도덕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고유한 조합의 이름이다. 아이들은 삶에 관한 규칙을 가치와 행동 모델을 가족에서 부모를 보고 들으면서 배운다. 그러므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좋은 사람을 키울 때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책임을 다음과 같이 알려준다. **"귀하는 모두 목자 / 책임자이며 귀하가 관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국장이 책임자이며 자신이 관리하는 자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가정의 아버지는 책임자이며 자신이 관리하는 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가정의 어머니는 책임자이며 자신이 관리하는 자에 책임이 있다."**[6]

사람은 자신의 자녀가 건강하지 않고 조화롭지 않은 성격을 갖기를 원하는가? 물론 우리 모두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의미 있는 태도를 나타내는 좋은 사람을 키우는 것을 원한다. 우리는 자녀의 교육과 개발을 위한 희생을 피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 하나님 그리고 사회와 평화로운 사람이 되려면 한 아이를 먹이고 입히는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어느 나이에나, 우리의 자녀는 사랑, 관심 및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자신의 생각을 듣고 자신의 개성을 존중하는 관대하게 바라보는 부모를 필요로 한다. 사랑을 보이지 않고, 실수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태도를 취한다면 자녀가 어떻게 어려움을 함께 나누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 존재에 대해 걱정하고, 때로는 낯선 사람을 우리보다 더 가까이 느끼고 마음을 털어놓는 젊은이가 우리 손을 잡을 수 있는 기대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젊은이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그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다. 때때로 자녀에게 건설적인 조언을 하고, 실수를 고쳐 주고, 그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부모는 실제로 물질 중독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호 시스템이다!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중독성이 있는 물질은 우리 가족과 관련이 없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이다."라고 말을 하지 마라! 마약 중독자는, 마약 또는 흡연 및 알코올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들, 그들은 생각만큼 모순적이고 미친 유형이 아니다. 모든 종류의 가정에서 모든 분야의 직업과 지위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 그들이 독이 있는 손을 잡기 전에 우리가 가족의 손을 잡아야 한다.

물질 중독에 관한 부모님을 위한 조언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다음과 같이 조언하신다. "**만일 그대들**



중 한 사람이 악을 본다면, 그것을 손으로, 손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을 혀로 변경하십시오. 그것도 감당 할 수 없다면 마음으로 (그에게 원한과 미움을 줘라). 이것이 이만(믿음)의 최소 요구 사항이다."[7] 악을 막는 것은 악과의 싸움은 인도주의적 의무이다. 유해 물질이 우리 자신에서, 우리는 가족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파괴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좋은 모범이 되어라.

자신의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는가? 당신의 조언이나 규칙이 당신의 삶에서 유효하나요? 자녀가 물질 남용에 대해 의식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 자신의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만일 문제에 대한 가족 장로의 태도가 즉시 화학 조력자에게 의지한다면 자녀가 문제를 겪을 때 물질에 망명 가능성이 높아진다.

질적인 관계를 발전시켜라.

당신의 자녀에 대해 알고 있나? 자녀의 취향, 꿈, 계획, 걱정, 어려움을 알고 있나? 부모로서 자녀와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이를 악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이에 대해 알기 위해 시간을 내어 함께 시간을 보내라. 특히 격렬한 젊은 시기에서 살아남고 건강한 성인으로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칭찬하고 그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자유롭게 보여주어라. 당신의 관심 및 사랑의 공허를 독으로 채우지 않도록 해라.

성인이 해로운 습관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단서 중 하나는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의 중요성이다. 자녀는 자신에게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확신해야 한다. 그것이 당신을 힘들게 만들더라도, 그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방해하지 말고, 그의 기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당신을 놀라게 하거나 겁나게 하는 것들을 말해도 지나치게 반응하지 마라. 침착하고 절대 폭력을 사용하지 마라. 당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않으면, 그가 침묵할 것이고 당신은 너무 가까이 있는 위험을 인식할 기회를 잃을 것이다!

가치를 가르치고 영성을 강화시켜라.

우리의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가치를 알면 청소년이 중독성 물질을 거부할 논리적인 이유를 쉽게 만들 수 있다. 그의 영성은 강해서 공허한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결정을 자신감 있게 지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의 신체 발달 뿐만 아니라 영적인 발달에도 신경 써야 되고 자녀의 물질적인 필요와 더불어, 그들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정직, 충성, 충실, 책임과 같은 미덕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하고 할랄(허용 된 것)−하람(금지 된 갓) 의식을 주입시켜라. 그의 몸은 알라(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가장 귀중한 유물 중 하나라고 가르쳐라.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경고를 상기시킵시다.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권리가 있다!"**[8]

가족내에서의 규칙을 정하라.

젊은이들은 인생의 초보자이다. 그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제안을 수락하고 거부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한계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분명한 규칙을 정하라. 담배, 알코올 및 마약에 반대를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을 하라. 집에서 절대 흡연 및 다른 비슷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고 이 규칙을 따르게 하라. 약물 중독을 피하기 위한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당할 것인지 설명하라. 비현실적인 위협,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반응 대신 침착하고 현명한 조치를 취하라.



약물 중독에 대하여 자녀에게 인식을 심어주어라.

중독성 물질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 자녀에게 알려라. 가족 관계 및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인식하게 하라. 물질을 제안하는 사람을 거절하는 방식에 대한 방법과 전술에 대해 이야기하라. 만약 이에 대해 충분히 알릴 수 없다고 생각되면 전문가와 이야기하게 하라.

젊은이에게 물질과 그 결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호기심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반대로 올바른 정보를 얻지 못하면 과장되고 잘못된 정보에 관심을 갖게 된다.

호기심을 자극하지 마라.

어린이와 청소년 옆에서 중독성 물질의 상쾌한 효과에 대한 대화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가 주변 사람들의 격려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언론의 광고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을 보는 경우, 호기심이 생긴 젊은이를 올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일은 가족이 먼저 해야 한다. 그에게 이 물질들이 먼저 웃게 하고 그 후에 죽이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라.

그의 친구를 알아라.

마약 중독자 두 명 중 한 명이 친구를 통해 마약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마찬가지로, 두 젊은이 중 한 명은 18 세가 되기 전에 흡연을 시작하고 시작 이유로 친구들을 가리킨다. 연구 자료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다음 말을 상기시켜준다. **"사람은 친구의 종교에 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누구와 친구 될지 주의하라."**[9]

마약 거래와 같이 더러운 직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과는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물질을 한 번만 소개하는 것이다. 마약은 처음에는 보통 "무료로" 또는 "친구의 손으로"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가 여가 시간을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보내는지 지켜보아라. 친구와 친구들의 가족을 만나라. 이를 통해 상호 작용하는 환경을 탐색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내부 규율 개발을 보장하라.

한 아이가 삶을 배우는 데 부모의 권위, 한계 및 사랑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이들은 스스로를 믿고 독립적인 성격을 키우기 위해 홀로 남겨질 것 또한 부모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자기들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환경에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자녀에게 교육하는 것이다.

외부 규율로 하루 24 시간 젊은이를 통제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 즉 내부 규율 훈련을 가르쳐라.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말한 것처럼: "**선이란 너의 영혼을 안락하게 하며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악이란 사람들이 네게 파트와(이슬람 법률 해석) 해도 너의 마음을 편하지 못하고 하는 일에 대하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니라.**"[10] 자제력, 설명을 구하는 것, 그의 양심의 목소리를 듣고, 목표를 세우고, 자신과 경쟁하고 자신을 믿는 것은 자녀가 자신을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준다.

원인을 발견하고 대안을 만들어라.

자녀의 삶의 세부 사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독성 물질에 망명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나 상황을 놓치지 마라. 스포츠, 과학, 문화 및 예술 활동과 같은 대안을 만들어 시간을 건강한 활동으로 보내는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라.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그와 대화하지 마라. 알코올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 갑자기 말하려고 하지 마라. 당신이 그를 사랑하고, 당신의 목표는 그를 지원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의 옆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라.

공감함으로써 그들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비난, 욕설, 모욕, 나쁜 표시, 저주, 의절, 때리기와 같은 관계를 끊는 잘못된 태도를 꼭 피하라.

"중독의 치료가 있다는 것을" 먼저 당신은 믿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1 부카리, 리캌,1.
2 무슬림, 아시리바흐, 74.
3 티르미드, 아시리바흐, 3.
4 무슬림, 쓰얌, 182.
5 무슬림, 비르와 슬라, 146.
6 부카리, 이스틱라즈, 20.
7 무슬림, 이만, 78.
8 무슬림, 쓰얌, 182.
9 아부 다우드, 아답, 16.
10 다리미, 부유, 2.

유능하고 강력했으며 그의 주인이었다. 채찍을 올리고 내려 놓고 올리고 내려 놓았다. 그는 노예를 때리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뒤에서 목소리를 들었다. "아부 마수드, 이 것을 알고 있어라..." 그는 뒤를 돌아 보자 알라(하나님)의 메신저를 보았다."아부 마수드, 이것을 알고 있어라, 당신에 대한 알라(하나님)의 힘은 이 노예에 대한 당신의 힘보다 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유일하게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유일한 관리자로 느끼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경고이다!

메디나 사람인 아부 마수드, 즉시 손에 채찍을 놔두었다. 알라(하나님)의 메신저가 자기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경고하는지 설명하면서, 당신은 결코 노예를 때리지 않았고 그 노예를 알라(하나님)를 위해 해방시켰다고 말했다.[1] 왜냐하면 그는 하늘과 땅의 주인 알라(하나님)의 힘이 그의 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이제 알았었다. 우주의 유일한 장악이신 알라(하나님)는 또한 "가장 자비로운 분이시다." 자신의 종들에게도 폭력 대신 자비를 기대하고 계신다.

가족 내에서 동정심을 원한다

아르슬람 엘리프 박사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말씀하시길:
"그대들 중 가장 훌륭한 자는 가족에게 가장 잘 하는 자이니라. 나 또한 나의 가족에게 가장 잘 하는 자이니라."
(이븐 마자, 니카흐, 50)

폭력이라면...

굴욕, 학대 와 비하의 영향을 받은 폭력은 인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아담의 아들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죽였을 때, 사실 지구 상 최초의 가정 폭력 현장이었다. 폭력의 유독한 숨결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이 인류 사이사이 퍼져나갔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수백만의 사람에게 눈물, 고통과 고생을 안겨주었다. 단지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 내면의 세계, 정신력을 손상시켰다. 그리고 모든 모욕, 모든 주먹과 모든 총알은 새로운 폭력을 낳았다.

세계들의 주님이 **"나의 자비가 내 분노를 능가했다."**[2] 말하면서 그의 종들 중 일부는 잔인함을 선택했다. 수세기 동안 알라(하나님)의 사도들은 인류를 동정심과 공의에 초대했지만, 사람들 중 일부는 계속 잔인함을 택했다. **"하나님이 그대를 보냄은 만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라."**[3] 마지막 예언자인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동정심의 메시지가 세상에 퍼지지만 오늘날에도 폭력은 우리 삶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폭력은 대륙을 가로 질러 돌아 다니고 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적용되는 육체적, 정서적 폭력으로 시작하여 가족에게로 뛰어 넘는다. 그것은 이웃과 친척에게 이어 도시의 구조를 뚫고 마침내 국제 차원에 도달한다. 폭력을 멈추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모든 개성으로 자비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 가족의 자비와 정의를 실행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날마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맹렬한 폭력의 열 때문에 파괴적인 분노의 폭풍을 피하는 모든 영혼, 가정의 자비로운 지붕 아래에서 평화와 신뢰를 찾을 자격이 있다.

이것도 폭력에 들어가는가?

폭력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신체적 폭력 즉 때리기이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말대로 "물리적" 즉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일 수 있는가?

폭력은 안보인다면? 예를 들어,"인간이 되는 것"의 특성에 보이지 않는 막대기가 때리고 있다며 명예를 손상 시키고 있다면? 비밀리에 분쇄하고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한다면? 시선으로 때리고, 말로 치고, 모욕으로 영혼을 조금씩 죽게 한하면? 문을 잠그지 않고 손이나 발을 묶지 않고 의지를 조르면서 가둔다면? 그렇다면 폭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배우자에 의해 모욕을 당하고, 책망을 받고, 멸시 받고, 노력이 칭찬 받지 않는 사람, 오히려 끊임없이 비판을 받는 사람이 남녀 모두에게 폭력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집에서 때리는 일을 목격하는 아이는 자신이 맞지 않더라도 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폭력이 육체적이지 않으면 인생은 조용하고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심지어 폭력을 당한 사람조차도 자신이 경험한 상황과 당하는 태도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자기를 내심적으로 옥죄고 불안하게 만들고 슬프게 하는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에 이유가 되는 이 상황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경험한 것은 폭력이다.

생각해보라. 비방을 폭력 이외의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욕설적인 표현, 저주, 별명 폭력은 사람들을 짓밟지 않는가? 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서로 덮도록 존재하셨는데 배우자의 은밀함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그의 신뢰를 남용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가족, 친척 및 이웃과 만나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는 여성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가?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너의 어머니가 되지 않겠다."라고 위협하는 어린 아이의 불안과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월급이 압수된 할머니, 강제로 일을 시키는 젊은이, 학대를 당한 아이는 폭력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폭력은 가시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심리적, 성적, 사회적 차원으로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내 가족 중 누구도 폭력을 당해선 안된다.

"폭력" 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지는 최악의 수식법은 "가족"으로 같이 쓰일 때 현성된다. "가족내 폭력"… 얼마나 고통스러운 표현이다! 실제로 폭력은 확실히 가족과 함께 언급해서는 안되는 단어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꾸란의 표현으로, 서로 평화를 찾자[4], 배우자들은 서로 의상이 되어[5], 서로가 서로를 위한 보호자라 그들은 선을 행하고 사악함을 멀리하자는[6] 의미에서 가족을 만든다. 복장처럼 물질적, 영적 악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합시다.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지원하고, 통합하고 결점을 덮으십시다. 귀한 우리들의 자식, 우리들의 희망, 기쁨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은, 내세에서도 자본이 되었으면 한다. 함께 행복, 신뢰, 친숙과 대화를 맛보자.

우리는 이러한 느낌과 생각으로 가족을 짓는다.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찬 지붕 아래에서 어떻게 폭력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 특히 우리가 순나를(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언행) 기본으로 생각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종말에 형벌을 가장 많이 받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심한 고문을 하는 자들이다."**[7]라고 말씀하셨다. "고문" 이라고 하면 극단적이고 체계적인 고통은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신체나 성격에 대한 모든 공격은 잠시 후 고문으로 바뀔 수 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권리 침해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람이 살기 힘들고 고문으로 변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가?

가족 내 폭력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당하는 폭력이다. 그러나 이것은 폭력의 한 형태 일 뿐이다. 가족 내의 아이들도 폭력의 초점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아이들은 가족의 모든 성인들, 심지어 외삼촌과 삼촌과 같은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노인들 ... 그들은 고생하면서 키우는 자녀나 손자에게 폭력을 당할 수 있다. 가족 내의 폭력이라면 아마도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것은 남성들일 것이다. 그러나 말로, 심리적 또는 경제적 압박으로 남성이 폭력을 받는 상황에 직면 할 수도 있다. 우리는 가족 내에서 아무 사람에게도 폭력의 어떤 형태도 원하지 않는다.

가족 중 여성은 폭력을 당해선 안 된다.

우리는 배우자를 "평생의 반려자"라고 부른다. 결혼 관계에서 유대를 온화한 표현으로 묘사하는 참으로 따뜻한 말씀이다! 친구는; 외로움, 위험, 폭력에 대해 의지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언급되는 평생의 반려자라면 이러한 기능은 더욱 더 중요해진다. 알라(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한 서로를 보호하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희망이 될 우정...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여성들은 남성들과 함께 전체를 완성시키는 다른 반쪽이니라."**[8]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배우자 간의 관계가 우정의 보완적인 관계에서 권력의 관계로 바뀌면 신뢰가 손상된다. 배우자는 외로워지고 소외된다. 서로의 아름다운 면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무으민(진심으로 믿는 자)은 그 어느 누구라도 그의 아내를 싫어해서는 안되노라. 왜냐하면 그녀의 어떤 성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마음에 드는 다른 성품이 틀림 없이 있을 것이니라."**[9] 라고 말씀하셔서 선과 긍정에 집중할 것을 권장하신다.

결혼은 어깨에 부담이 아니라 눈에 빛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평생의 반려자에게 경쟁자가 아니라 비밀을 지키는 친구, 덮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자보다 육체적으로 약하게 창조된 여자는 남자의 힘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결혼으로 남자의 "재산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위탁된" 인생으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인생의 친구에게 거칠게 대하고 폭력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로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말씀이 충분하지 않는가?: **"아내들의 권리에 대해 알라(하나님)로부터 두려워 하시오(그분께 심판을 받을 것을 잊지마시오)). 왜냐하면 그대들의 아내들은 알라(하나님)의 위탁이며 알라(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하여) 그대들에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이오."**[10]

여성이 폭력을 당하면...

남자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은 널리 퍼진 사회에 이슬람의 메시지를 전하는 알라(하나님)의 메신저(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가족 내에서의 폭력을 엄격히 금지하고,**"알라(하나님)의 종들(여자)을 때리지 말라!...아내를 때리는 자는 훌륭한 자들에**



포함된다는 착각을 하지 마시오"[11]라고 말씀하신다. 그의 표현으로 가장 훌륭한 무슬림은 가족에게 가장 아름답게 행하는 자이다.

움마에게 자비를 추천하신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항상 자신의 삶에서 아내와 이해, 관용, 친절 및 동정심있는 관계를 가지셨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아내인 아이샤의 표현으로 **"그는 여자나 하인을 때린 적이 없으셨다."**[12] 그는 결코 무자비함을 용서하지 않았으며 가족내 폭력에 눈을 감지 않으셨다. 갈등이 있고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이혼을 적용하고 예를 들어 아내를 때리면서 팔을 부러뜨린 교우 사빗 이븐 카이스에게 관용을 하지 않으셨다. 사빗의 아내 자밀라는 비슷한 이유로 인해 오랫동안 불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때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사빗을 부르고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요청했다.[13] 이러한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움마는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집 밖에 나오지 않는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남편이라 때려도 되고, 예뻐해도 된다."라고 말을 해서 폭력에 둔감한 것은 모순이다!

협박, 강제 노동, 돈을 압수하는 것, 거칠게 밀치는 것이나 집에서 무시하는 것…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당하는 여성은 외로움, 무력감 및 무능함을 느낀다. 자존심은 상처나고, 분노 및 수치심을 느낀다. 그는 잠이 오지 않고, 건강이 나빠지고 삶의 기쁨을 잃는다. 심지어 폭력은 자녀와의 관계에도 반영된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가족 지붕 아래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 다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말씀하신다 :**"무슬림이란 다른 무슬림들이 그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평안함을 느끼는 자이니라."**[14]

명예 주장으로 살인 해도 됩니까?

가족 내 폭력의 가장 고통스러운 사례 중 하나는 명예 살인이다. 여성의 명예를 가족에서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오해의 흔적은 이슬람 이전의 무지의 시대로 이어간다. 그러나 꾸란은 이러한 이해는 사실이 아니며 남자와 여자는 인간의 존엄과 탁와(신앙심 두터움) 의식에 따라 자신의 명예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믿는 남성들에게 일러가로되 그들의 시선을 낮추고 정숙하라 할지니 그것이 그들을 위한 순결이라."**[15] 말씀 후에, **"믿는 여성들에게 일러가로되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니라."**[16] 라고 하신 알라(하나님)께서 명예에 대하여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감도를 기대한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는가?

명예 살인이라 불리는 잔인한 폭력은 여성이 이혼을 원하거나, 젊은 여성이 가족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거나 간음과 같은 이유들에 근거한다. 실제로 어떤 행동들은 "명예의 오점"이라는 형태로 일컬어지는 수수께끼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명예의 구실 아래 무자비한 압력은 여성의 존재와 존엄성을 무시하고 있다.

물론 한 남자가 가족의 여성과 어린 여성들의 안전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여성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고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이슬람과는 상관이 없다. 소위 여성의 명예 때문에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피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이슬람 종교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살인자가 된다. 순결에 대한 실수가 있더라도 합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며 가장 가까운 사람을 포함하여 처형에 대한 권리는 가진 사람은 없다. 명예 살인은 집행자나 선동자 또는 관중을 유치하는 가족 장로들에게 공통적인 주요 범죄이다.

가족에서 아이는 폭력을 당해선 안 된다.

어린이... 사람의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 우리는 자녀를 볼 때 "순도가 악화되지 않았으면..."라고 말한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들의 성장을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라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항상 이렇게 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아이는 자라날 것이다… 매일이 그를 어른들의 세계로 옮겨갈 것이다. 부모가 되는 것은 실제로 그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자녀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훈련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때로는 교육을 위해 주어진 노력에 실수가 섞인다.



훈련하기 위해 때려야 하는가?

아동 폭력의 이론적 근거는 종종 "교육"이다. 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때리기는 천국에서 나왔다." "딸을 때리지 않으면 무릎을 때린다." 아이의 교육에서 얼굴을 때리는 것, 모욕하고, 떨리는 주먹은 폭력이 아니라고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에서 비웃는 것이 깊은 흔적을 남긴다... 고함을 지르는 것은 복수, 원한과 같은 감정을 만든다.

교육할 때 폭력 쓴다는 것은, 교육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 아동의 정신 세계에 대한 성인의 분노, 서두름, 교육 방법 및 무지, 자녀와 의사 소통을 하지 못한 결과이다. 자녀가 진실을 배우기 위해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하는 것은 달콤한 언어로 그것을 자극하고 다시 시도하게 하는 것이 예언자의 방법이다.

대추야자 나무로 돌을 던지는 어린 아이와 자비의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사이의 사건은 아이를 훈련시키기(!) 위해라도 폭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의 가장 좋은 예이다. 이 아이를 잡는 사람들은 처벌하기 위해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에게 데리고 왔다. 그러나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그를 책망하는 대신, "왜 나무로 돌을 던지냐?" 라고 물었다. 아이는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때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대추야자 나무로 돌을 던지지 말고 밑에 떨어진 열매를 먹으라."** 하셔서 그 아이에게 올바른 행동을 가르쳐 주셨다. 화가나서 때리지 않고 반대로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기의 배를 부르게 해주십시오.**"라고 두아(기도) 하셨다.[17]

아이를 비난하기 전에 그의 행동의 이유를 알아내고 그에게 대안을 제공하는 이 태도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루에 10분씩 내면서 아이들과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마음 체조를 할

수 있다. 읽고 전문가와 상담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해치지 않고 훈련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화를 많이 내는 것은 폭력에 대한 변명인가?

아이들은 때때로 부모를 매우 화나게 하기 때문에(!) 폭력을 당한다. 때때로 어른들은 "내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났다."라고 말하면서 폭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려고 한다. 분노가 오면 정신이 간다! 이것이 실제로 아이를 해칠 이유인가? 주제를 다른 면에서 한 번 살펴 보자. 우리는 아이가 한 우리를 매우 화나게 만든 행동을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이 했다면 같은 가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같은 실수를 범했다면 그를 모욕할 것인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화낼 것인가? 아니면 못본 척 하고, 인내심을 보이고, 용서할 것인가?

이 모순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자. 분노를 멈출 수 없거나 그것을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가? 분노를 폭력으로 바꾸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상대보다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자녀의 주인으로 보는 것인가?

실제로, 자녀가 폭력에 노출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부모가 자신이 "자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 마땅하다. 아이는 "알라(하나님)의 신탁"이다. 특별한 축복, 희귀한 신탁...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며 언젠가는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마라.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낼 때 가족 구성원을 해치지 않는 효과적인 방법은 침묵하는 것일 수 있다.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당신 중 하나가 서있을 때 화났으면 그는**

즉시 앉으시오, 그의 분노가 사라졌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때 어디에 기대시오."[18] 라고 말씀 하셨다. 화를 내고 해를 끼치는 대신에 화를 내고 있을 때 "미활동"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가족 내의 관계를 위해 적용할 수 있다. 우리의 분노가 지나간 후에는 침착한 말로 말하는 것이 가족에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아이가 폭력을 당하면...

때로는 손이 일어나지 않고, 차기가 구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아이의 옷깃에 붙어 있다. 거칠게 꾸짖고 , 위협 받고, 굴욕하고, 친구나 형제 자매와 비교하는, 조롱되었을 수도 있다. 그는 가족 내에 싸움의 편을 드는 것에 강제 당하거나 가족 중 한 명이 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또는 그의 부모가 선택한 비밀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을 수 있다.

폭력에 대한 이 모든 상태는 어린이의 정서적 세계를 망치게 하고 정신 건강을 모욕한다. 자신감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유대를 약화 시킨다.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자신이 부적절하고 실패한 것을 믿게 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안좋은 것은 폭력을 행동 모델로 보고 폭력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유발하는 것이다. 심지어 고통스러운 날들, 구타, 모욕의 복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날이 와서 부모를 때리려고 한다.

그에게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지 마라. 자녀를 존중하고 도덕 있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온갖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라. 물론, 우선으로 알거나 모르면서 적용하는 우리 자신의 폭력으로부터... 우리의 행동, 말, 시선, 결정이 자비롭거나 폭력적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가족을 해치는 말과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자.

실수하고, 노력하고 잘못하면서 넘어지고 일어나서 인생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아이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는 인내하고 자비롭고 관대하게 행동함으로써 맺을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고 몇 년 동안 그와 함께 있었던 아나스 이븐 말릭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 봅시다. **"나는 알라(하나님)의 메신저를 10 년 동안 봉사했다. 맹세하는데 그는 한 번도 "어휴!"라고 말을 하지 않으셨다. 어떠한 이유 대문에도 "왜 그랬냐? " 또는 "그렇게 했었다면..."라고 꾸짖지 않았다. 그는 내가 한 일에 대해 나를 비난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았다."**[19]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 대해 이런 좋은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우리를 위해 동일한 것을 목격할 수 있는가?

가족에서 노인은 폭력을 당해선 안된다.

시인은 노년기를 "생명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봄"으로 묘사한다. 수년 간의 성숙함과 지혜와 온 노년기는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온다.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 질병, 사회 생활을 방해하는 것, 정신적 쇠퇴와 같은 문제가 노년기에 동반된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시절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역할이 바뀌었고 자녀를 자비로 둘러싼 팔이 자비를 기다리고 있게 된다.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보고 자녀를 아끼는 눈은 그들의 눈에 관심의 빛과 이제 반짝이는 사랑을 필요로 한다.

삶의 여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균형도 바뀐다. 이제 부모에게는 더 많은 권리가 있으며 자녀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신다. **"하나님이 명령하사 그분 외에는 경배하지 말라 했으며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셨으니 그들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나이들 때 그들을 멸시하거나 저항치말고 고운말을 쓰라하셨노라. 부모에게 공손하고 날개를 낮추며 겸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주여 두분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두 분은 어려서부터 저를 양육하였나이다."[20] 그러한 조치를 취한 후 노인 부모에게 신체적 폭력을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꾸짖거나 멸시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구실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폭력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노인은 가장 취약한 그룹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때리거나 두드리는 것과 같은 신체적 폭력을 당한다. 때때로 꾸짖고 침묵하는 것과 같은 언어적 폭력, 때로는 자신의 재산을 압수당하는 것 등의 경제적 폭력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사랑하는예언자무함마드 (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어린이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이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니라."**[21]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움마가 될 자격이 없다면, 그들에게 폭력을 알맞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노인이 폭력을 당하면...

부모의 노화로 시작된 시험에서 우선, 아이들이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부모가 그를 위해 희생한 것들이다. 성 꾸란은 우리가 부모에게 선행을 하는 것을 명령을 할 때 이러한 희생을 기억시킨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명령하여 부모를 존경하라 했거든 그의**

어머니는 태아를 가짐과 이 년간 젖을 먹이므로 말미암아 허약하여 지니라 내게 감사하고 그리고 네 부모님에게 감사하라 내게로 옴이 최후이니라."[22]

때때로 노인들은 무언가를 물어보고, 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면 아이들로부터 책망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녀가 어릴 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을 때 피곤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들은 자녀의 실수와 부주의를 보상했으며 그들은 그들의 미숙함에 인내심을 하고 교태를 참았다. 아플 때 밤에 잠 자지 않고 그들은 돌 봐주었다. 이제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자녀들의 애정과 자애심을 보아야 한다. 때때로 그들도 아프고 교태를 부릴 것이다. 그들은 사랑을 느끼고 듣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가치 있고, 일할 때 쓸데 있고, 그들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의미에서 가족의 장로들을 지원하고 "부담이 된다는" 느낌을 느끼지 않도록 합시다. 노인들을 소홀히 하지 마라. 그들은 자급자족하지 못할 때, 자신의 개인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시기 때 청소, 영양과 보살핌을 사랑하라. 그들이 놀라서 잊는다면, 떨어져서 깨면 반겨라. "이 나이 때 돈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돌보고 있다! 먹는 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먹을 것에 문제 없다." 같은 이유로 소득이나 재산을 양도하지 마라.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나이가 든 시기를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용납하지 않고 알라(하나님)께 봉사함으로써 알라(하나님)의 동의를 얻을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그가 밑 바닥까지 낮추었으면 좋겠다!"**[23] 라고 말씀하셔서 나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우리 가족은 자비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은 자비의 맛을 어머니의 품에서 알게 된다.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라 보고, 말을 듣고 행동을 모델링함으로써 자란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동정심과 폭력을 만난다. 어쩌면 처음에 우리가 말한 것을 반복해야 할 때가 왔다. 폭력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속하지 않아야 하는 곳은 가족이다. 알라(하나님)께서는 가족의 구성요소로서 배우자 사이에 사랑과 자비를 창조하셨다. 배우자들에게 폭력이 없으며 사랑과 동정심에 근거한 관계를 발전시키면 이 관계는 온 가족에게 퍼지고 거기서부터 사회로 퍼질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유대가 끊어지고 동정적인 정맥이 끊어지면 가족이 내면에서 풀리면서 사회가 약해지고 평화를 잃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잊지 마라. 알라(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갖는 것이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 알라(하나님)께서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니라.**"[24] 특히 이 사람들은 배우자, 자녀 또는 우리 가족 장로들이라면...

1 무슬림, 에이만, 34.
2 부카리, 타우히드, 22.
3 안비야, 21/107.
4 로움, 30/21.
5 바까라, 2/187.
6 타우바, 9/71.
7 이븐 한발, IV, 90.
8 아부 다우드, 타하라, 94.
9 무슬림, 라다아, 61.
10 무슬림, 핫즈, 147.
11 아부 다우드, 니카흐, 41-42.
12 무슬림, 파자일, 79.
13 나사이, 탈라크, 53.
14 부카리, 이만, 4.
15 누르, 24/30.
16 누르, 24/31.
17 아부 다우가, 지하드, 85.
18 무수넷, V, 152.
19 무슬림, 파자일, 51-54.
20 이스라, 17/23-24.
21 티르미드, 비르, 15.
22 루끄만, 31/14.
23 무슬림, 비르, 9.
24 부카리, 타위히드, 2.

자비의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항상 자신의 움마에 자비를 추천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분노 조절에 대해 가르치고 많은 인내심과 동정심으로 그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그러나 사빗 이븐 카이스는 그날 자신의 분노를 통제할 수 없었으며 아내와 논쟁할 때 아내를 때렸다. 남편에게 맞는 것 때문에 자밀라 씨의 마음뿐만 아니라 팔도 부러뜨렸다. 그리고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일어난 일을 숨기지 않은 자밀라는 오랫동안 불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때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사빗을 부르고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요청했다.[1] 알라(하나님)의 메신저는 폭력에 관용을 하지 않았고 경고를 무시하는 사빗을 용서하지 않았다.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집 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었다.

가족이 이산가족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즈칸 아이세누르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말씀하시길:
"알라(하나님)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할랄은 이혼입니다."
(아부 다우드, 탈라크, 3)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결혼해서 평화로운 가족을 만들고 건강한 가족을 사회에 추가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의 소망이다.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소망을 도달하는 것을 원하신다. 각 가정은 새로운 흥분과 행복으로 지어진다. 평생 계속될 동점은, 집을 즐겁게 할 아이들… 결혼을 시작으로 하는 건강하고 장기적인 관계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가 제안한 생활 방식에도 적합하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외로움이 아니라 가족 생활을 장려했다. 미혼 자에게 결혼을 용기를 북돋으면서도 그는 이혼에 대해 항상 조심스러웠다. 임의의 결정에 의한 집이 파편화되거나 부적합한 핑계로 인해 발생하는 분리를 절대 보증하지 않았다. 그는 가족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기회가 동원되기를 원했다. 사실, 꾸란의 독특한 두아(기도) 문구 중 하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구걸할 것을 권고한다. **"오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아내와 자손들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정직한 사람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자들이라."**[2]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여성들은 남성들과 함께 전체를**

완성시키는 다른 반쪽이니라."[3]라고 말씀하셨다." **결혼은 나의 순나(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언행)이고 나의 순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4] 라는 말씀으로 결혼과 배우자와의 통합을 장려한다. 결혼은 두 사람 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전으로 사회를 보장하고 세대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앞으로 이혼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시작하지 않는다. 평화와 신뢰를 주는 유대를 형성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사랑과 관계는 때때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사용되는 물건이 마모되는 것과 같이 깨지고 떨어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의 물건을 위해 보여주는 관심을 결혼 생활에 보여주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 관계를 교란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제 시간에 청소하지 않은 잡초처럼...

잡초는 특별한 주의와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자라고 간섭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원의 모든 아름다움을 파괴한다. 결혼 생활에서도 고려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연기된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 공으로 변한다. 요컨대, 결혼해서 가족을 만든 모든 사람은 실제로 정원사이다. 정원을 위해 노력하고, 시간을 내어 사랑을 보여야 하며 해충으로부터 꽃을 보호해야 할 정원사...

사람은 가족이 세계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족 구성원들의 주인이 아닌 "기탁자"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하고 같은 지붕 아래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그는 언젠가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해 알라(하나님)께 설명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행동해야 한다.

결혼은 한 사람과 일방적으로 지속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주의하라! 그대들이 아내들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실로 아내들도 그대들에게 권리가 있노라."**[5]라고 말씀하신 알라(하나님)의 메신저는 양측에도 책임을

상기시킨다. 배우자는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른 번에 **"아내들의 권리에 대해 알라(하나님)로부터 두려워 하세요. 왜냐하면 그대들의 아내들은 알라(하나님)의 위탁이며 알라(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하여) 그대들에게 허락된 것이니라."**[6]라고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말씀하신다. 이 경고는 가족 생활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남성에게 하는 진지하게 기억시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족 생계 그리고 지속을 위해 여성의 노력 또한 필수이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표현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여성은, 천국의 냄새를 맞지 못할 것이다.[7]

문제없는 집이 있을 수 있는가?

행복한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다.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사이에 생각과 필요의 차이로 인해 갈등은 불가피하다. 결과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삶이 결혼으로 연결 되었으며 관심사, 취향, 이상, 습관이 같은 지붕에서 공유되기 시작했다. 결혼 생활에 해를 끼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들의 의식적이고 건강한 단계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바탕으로 경험한 문제를 숨기려고 하고 서로에게 화를 내지 않는 배우자들이 아니라, 실망을 표현하고 문제를 파괴적인 토론보다는 건설적인 토론으로 바꾸는 배우자들이 있다.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결혼 생활을 흔드는 싸움으로 바뀌지 않으면 갈등이 생긴 상황에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배우자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 사실, 이 상황은 결혼 생활이 더 강해지고 배우자들이 더 연결되고 서로를 신뢰하게 해준다. 꾸란의 표현으로, **"부부 사이에 화해를 시킴은 죄악이 아니니 화해가 최선이라 비록 남성의 물심에**

의한 것이라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선과 정의를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8]

희망으로 시작하는 결혼은 좌절로 끝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혼은 인류 역사 만큼이나 오래된 사실이다. 평생의 행복을 위해 시작해도 때로 해결하지 않는 가족 문제는 극복할 수 없게 되며, 같이 잘 지내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노력이 소진된다. 그러한 중단 점에서 이혼 결정이 내려지고 도로가 분리된다.

꾸란의 한 구절에서 쓰라린 삶의 진실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 아내와 자손 중에도 너희 적이 있거늘 그들도 조심하라. 그러나 너희가 사랑을 베풀어 용서하고 관용을 베푼다면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9]

배우자와 자녀가 항상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없을 수 있다. 같은 생각의 세계를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갈등이 절정에 이르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랑과 동정심에서 먼 적으로 변할 수 있다. 알라(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그들의 악에 대한 선을 선택하여 우리에게서 용서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가족의 유대를 소중히 여김으로 용서의 길을 택한 사람에게 "알라(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 과 같은 보상보다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이혼 과정

이혼은 알라(하나님)에게서 혐오스러운 할랄이다. 집은 지옥으로 바뀌고 배우자는 잔인해지는 순간에 구원자이다. 예전에 결혼하기에 충분히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배우자는, 그들이 이혼 과정에서 생긴 복수심으로 서로를 파괴하려는 증오가 될 수 있다. 당사자의 긴장, 분노 및 분개하는 것은 이 과정이 고통스럽게 지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확실하게 이혼하기로 결정한

부부가 이 시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최소의 손상으로 이 과정을 어떻게 마무리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의와 미덕을 계속함으로써 이혼 과정의 끝에 관한 꾸란의 구절은 매우 분명하다.

"화해를 통한 두 번의 이혼은 허락되나 그 후의 두 당사자는 동등한 조건으로 재결합을 하던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 되며 너희가 그녀들에게 주었던 지참금을 되돌려 가져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두 당사자가 하나님의 율법 수행을 두려워 할 경우는 제외라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수행치 못할까 두려워하여 그녀가 그녀의 자유를 위해 되돌려 주었다. 하더라도 두 당사자에게는 죄악이 아니며 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러나 그 이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하나님의 율법을 초월하는 자는 우매한 자들이라.

아내와 이혼을 하고 법정 기간을 채웠을 때 그녀들에게 돌아오거나 또는 그녀들을 자유롭게 하여 줄 것이며 그녀들을 괴롭히기 위해 또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그녀들에게 돌아오지 말라. 그 것을 위반하는 자는 곧 자기 자신을 우롱한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지 말며 너희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서와 지혜를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를 권고하시니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니라."[10]

꾸란에서 이혼과 관련된 구절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단어는 "마루프(maruf)"이다. 이 단어와 가족 생활의 열린 부분을 전통과 관습에 맡기신 알라(하나님)는, 관련 꾸란 구절에서 남녀의 사회적 및 법적 권리를 설명한 후, 꾸란 구절 전후에 알라(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상기 시킨다. "마루프"라는 단어와 함께 "이흐산(선한 것)"과 "자밀(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이혼 관련 꾸란 구절은 분리 과정의 분쟁과 중상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성숙한 방식으로 결과를 얻도록 민감한 경고를 전달한다.

이혼을 향해 단계적으로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가족, 재산, 자손 그리고 이웃은 너희를 위해 마련된 시험이니라. 이러한 시험에 들어 죄를 짓게 됐을 때 예배나 단식 또는 희사 그리고 선행을 명하고 악을 멀리 하게 하는 것이 속죄되는 것이니라."**[11] 라고 말씀하신다. 가족 생활에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심어주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의 맛을 느끼게 하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이 인내를 깨는 시간도 있다. 경제적인 문제, 친척 중재, 질병, 바람 피기, 알코올 및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의복 스타일 및 돈 쓰는 방식 같은 습관에서 부조화, 물질적 및 영적적인 무책임, 신념과 전통의 차이, 질투와 정서적 소란은 배우자 사이의 관계를 약화시키며, 심지어 그것을 파산 점으로 가져온다.

잘 관리되지 않은 위기 상황은 반드시 배우자에게 흔적을 남긴다. 실수를 발견했을 때 제공되는 사과와 선물은 아마도 이 흔적을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여자나 남자가 모든 결혼 생활에 필요한 노력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쌓이고 슬픔을 시간 지나면서 계속 마음에 두면서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되기 시작한다. 이 요점은 감정적 균열의 시작이다.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는 배우자가 이 단계에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미 "정서적 이혼"이라는 첫 단계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가장 큰 희망의 기간이다...

많은 결혼 생활이 이 단계에서 몇 년 동안 기다린다. 가족을 파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 자신이 참을 수 있는 수준으로 단합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결혼 관련 문제가 괴저로 변하기 시작한 경우, 노력이 검은 구름을 분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이것의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의 말씀에서도 이해하듯이 **"알라(하나님)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할랄은 이혼입니다."**[12] 좋아하지 않으셔도 알라(하나님)께서 결혼을 끝내는 것을 허락하신다. 이 허가는 지루한 사람이나 하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해결이 아니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경고는 분명하다. **"세 가지의 농담은 진지하고 진지함도 진지하다: 결혼, 탈락 (이혼), 리잣 즉 여성이 이혼하고 나서 원래 남편에게 다시 돌아 올 수 있는 이혼."**[13]

정서적 이혼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은 배우자를 "법적 이혼"하게 만든다. 법적 이혼은 정서적으로 끝난 결혼의 공식 종료이다. 이 단계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는 끝나지만 자녀가 있다면 관계는 여전히 한 측면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의 이별이기 때문이다! 이혼 한 배우자는 아직도 부모이다. 서로에 대한 책임은 끝나도 최소한의 피해로 아이들을 이 파괴로부터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합법적으로 이혼하기로 결심한 배우자들은 "사회 이혼"이라는 또 다른 단계를 기다리고 있다. 친척, 친구, 이웃, 비즈니스 환경은 어떻게든 발전한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시간이 될 때마다 이 결과를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피곤한 마음에 매번 새로운 쓴 맛을 남긴다.

각 단계의 나름 어려움, 민감한 점, 무엇보다도 규칙과 방법이 있다.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이혼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지만 이 권리를 강력하게 사용함으로써 가족이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이혼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과정에서 배우자가 어떤 일을 겪는지 알고 통제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이 준비는 그들이 이혼 결정을 재고하거나 적어도 그들이 잘 수행할 수 없었던 그들의 결혼을 잘 정리하는 이혼 과정을 통해 끝내도록 해준다.

이혼하기 전에!

이혼은 마법의 손길인가? 이혼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이혼이 배우자를 새롭고 다른 문제로 직면하는가? 사실, 정서적 붕괴로 결혼을 끝내는 사람들은 결혼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물질과 영적 혼란, 실패와 불행의 느낌, 정신 및 신체 건강 문제, 자녀 양육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같은 새로운 문제 영역에 직면해야 한다. 따라서 이혼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실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혈연 관계가 있고 같은 문화에 속하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등 우리가 1 차 친척들과 동의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물론, 결혼을 통해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기 시작한 두 낯선 사람이 모든 주제에서 똑같이 생각하는 것을 기대할 수 는 없다. 이혼 결정이 다른 관점과 의사 소통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 관계에 시간을 내어 다시 기회를 주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것이 우리 알라(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다: **"그녀들과 의롭게 살 것이며 만일 너희가 그녀들을 싫어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선행의 일부를 증오한 것이라."**[14]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가?

이혼… 불행한 결혼을 없애고 동시에 가족의 붕괴를 승인… 터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1 년 592 천 775 명의 부부가 결혼한 반면 12 만 117 명의 부부가 이혼했다. 이혼 한 부부의 40%는 결혼 첫 5 년에, 24 %는 결혼 16 년만에 배우자와 자신의 길을 분리했다. 터키에서 1 위를 차지한 이혼의 이유는 갈등이 심한 것이다. 작고 간단한 변명조차 "심각한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다루는 것이, 인내는 미덕이 되는 것을 멈추고 "배우는 무력감" 과 혼동되는 것은 가족의 해체 속도를 높인다.

> 남녀 모두에 대한 이혼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권리 만큼 책임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문제의 실제 원인을 찾으려고 했는가?

이혼은 한 결과이다. 배우자를 이 결과로 이끌어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고백하지 않고, 축적된 감정이 있는 것이다.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지 않는 것은 분노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끌어 간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범죄자를 찾기 시작한다. 그러나 고발하는 것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무너뜨리는 대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핵심에 어떤 감정과 생각이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자신과 배우자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먼저 자기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교체 가능한 것을 바꾸기 위해 시작하는 것은 우리를 추측조차 할 수 없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 수 있다.

이혼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가득한"
결혼 생활을 또는

"다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혼을
끝내는지를
다시 생각해보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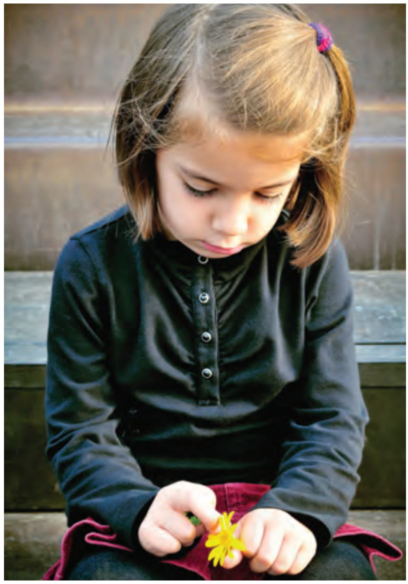
심판자, 현명한 사람들과 상담했는가?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부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적인 특성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컵의 채워 있는 부분을 볼 수 없으며, 사건을 공정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잃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 해결 및 의사 소통 기술이 높고, 가족 연합의 힘과 중요성을 믿고, 두 당사자 모두에게 신뢰를 받는 현명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알라(하나님)의 조언이다. 이 중재자들이 선의로 행동하고 객관적으로 행동하고 배우자를 화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꾸란의 한 구절에는 신성한 도움도 있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너희 부부사이에 헤어질 우려가 있다면 남자 가족에서 한 사람 여자 가족에서 한 사람 중재자를 임명하라. 만일 화해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 마음으로 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만사형통 하심이나.**"[15]

자비의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또한 가족 내 불안을 종료하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했으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중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가 시아버지로서 딸의 결혼을 지원하고 어려운 시기에 딸을 돕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어느 날

그는 딸의 집에 갔을 때 사위 알리를 찾을 수 없을 때, 그는 물었다. "삼촌의 아들은 어디에 있어?" 그의 딸 파띠마는 그들이 말다툼을 하고, 남편이 화를 내며 밖에 나가기 때문에 그는 점심 휴식을 위해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사위를 쫓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그가 성원에서 자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즉시 성원에 갔다. 알리는 여전히 정신이 나간 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자고 있었다. 그의 옷은 흩어지고 등에서 먼지가 붙어 있었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가 축복 받은 손으로 사위의 옷을 흔들어 털고 있으면서 반면에 그는 겸손한 목소리로 그를 진정 시켰다. "땅의 아버지, 일어 나라!" 그들이 함께 집으로 돌아 왔을 때, 그러한 사랑과 자비로운 아버지의 손길로 분노가 사라져 있었다.[16]

때때로 현명한 사람들의 개입은 결혼의 지속을 보장할 수 없다. 어떤 결혼을 끝내기로 한 결정은, 계속하기로 한 결정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 이러한 중재 사건에서 우마르의 아들 압둘라는 이모의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준다. 젊은 여자는, 유명한 교우인 우스만 이븐 마준과 함께 주장으로 결혼했다. 불안으로 시작한 이 결혼을 채택할 수 없었다. 동의도 평화도 없었다. 해결에 대한 추구는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끝낸다. 딸의 상태에 대해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에게 알려주는 어머니는 "맹세하는데 내 딸은 이 일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서 심판이 되는 것을 원한다. 알라(하나님)의 메신저는 청녀의 고통을 듣고 그 관계가 작동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다. 그는 우스만을 부르며 아내와 이혼하도록 요청한다.[17]



가족 상담사 또는 이혼 치료사에 지원했는가?

가족 내의 불안은 전염성이 있다. 그것은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와 잘 지낼 수 없는 사람은 집에 있는 청년과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와 의사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온 가족이 받아야 할 호의이며, 그러한 호의를 위해 가족의 내부 사정을 알고 가족의 균형을 잘 알고 있는 상담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귀중한 단계이다.

때때로 개인이 스스로 인식을 개발하거나 가족 및 친구를 지원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경우에 따라 훨씬 더 심각하고 복잡하며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해결책이 없음"이라는 착각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전문가는

가족 사이의 관계와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제안을 제공한다.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다른 창을 열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여부에서 확신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를 쉽게 만든다.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이혼하기로 결정한 경우 자녀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든 방법을 시도한 것을 확신하는가?

갈등이 있는 관계에서 배우자들은 해결책을 찾는 것을 멈추고 어떤 식으로든 행복하지 못하며 이혼도 받아들이지 않는 개인이 된다. 항상 같은 싸움이 일어나고 바꾸지 않는 지속적인 결과가 나온 악순환이다. 가족 관계는 닳아 없어지고 감정이 마모되고 관계는 가치를 잃는다. 탈출구가 없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강화된다.

그러나 장로들은 사람을 위해 "40 개의 문이 있는 집이다."라고 말한다. 때때로 우리가 들어 가려고 하는 문이 얼굴에 닫힐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말고 다른 문을 열려고 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

이혼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혼 과정과 그 후 단계를 더 평화롭게 보낼 수 있게 해준다. 포기하지 말고 모든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앞으로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이혼 과정에서 아이

이혼으로 배우자는 분리되는 반면, 자녀의 집은 파괴된다. 아이들은 큰 논쟁이나 부정적인 분위기가 없더라도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끝내기 전에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획득한 물건이 어떻게 나눠질 것인지 또는 얼마나 많은 부양 비를 받을 것인지가 아니라 어머니나 아버지 없이 살아야 할 아이들이어야 한다.

첫 5 년 내에 대부분의 이혼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터키에서는 가장 큰 고통을 "나이가 어린 아이"가 겪어 있다. 성격이 발달한 첫 5 년 동안,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요구는 신뢰와 사랑의 환경에서 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어머니–아버지–자녀 관계는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린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만든다.

부모의 태도는 어린이가 이혼 사건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법과 도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결혼이 끝나는 것과 부정직하고 불규칙한 방식으로 적대적으로 끝나는 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지켜 보는 아이에게 다를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존재와 관련하여 결혼이 종료된 경우에도 유대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녀의 교육, 건강 및 결혼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부모의 결정을 함께 해야 하는 일이다.

이혼 결정에 대해 자녀에게 말하는 방법

자녀에게 이혼 결정을 설명할 때 성장 기간에 적합한 문장을 선택하라. 아이가 5 세 미만인 경우 해당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간단하고 짧은 문장으로, 그의 부모로서 그를 사랑하고, 지금부터 별도의 집에 살 것이지만 그의 방과 장난감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설명하라. 자녀에게 질문이 없는 한 이 문제를 의제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5 세 이상의 어린이는 추가 질문을 하고 자세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내적 또는 고통과 분노와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배우자와 이혼 결정을 설명하는 것은 아이 앞에서 서로를 가능한 한 비난하지 않는 것은 이 어려운 과정에서 아이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에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지내지 못 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해주어라. 설명할 때는 희망적인 언어를 피하고 다시 화해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취학 연령의 어린이는 부모의 이혼의 원인으로 자기를 생각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화해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부모로서 결정이 당신의 것이며 자녀가 책임이나 실수가 없음을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

이혼 후 모든 아이에게 심리적 문제가 있는가?

당연히 아니다! 배우자가 매일 서로를 위반하는 나쁜 분위기에서 자라는 것보다 평화로운 환경에서 한 부모와 함께 자라는 것이 구원이다. 이와 함께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결혼 생활에서 이혼하기로 한 갑작스러운 결정, 또는 이혼 중과 그 이후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문을 열 것이다. 이혼 한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 수행된 연구의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하고, 이 아이들에게 특별하고 헌신적인 태도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음 제안은 부모로서 올바른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그를 이해한다고 말하라.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과 싸울 때 "자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이 그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이혼은 그를 한동안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심지어 그의 성공을 낮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라. 그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으며, 이 불쾌한 사건에 대해 죄책감, 불완전하고 외로워하며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하라.

* 건방지게 만들지 말고 또는 두려워하게 하지 마라.

아이가 이혼에 의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해서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심으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고, 실수에 대한 필요 이상 더 관대하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당신은 그를 이해하고 인내해야 하지만, 당신의 이 세심은 그를 조화롭지 않고 짐승 같은 성격으로 변하는 것에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당신이 그에게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다른 외딴 곳으로 보내겠다고 위협하지 마라.

* 배우자와의 갈등에서 그를 멀리 하라.

자녀의 이혼의 영향으로 인해 손상되는 신뢰의 느낌은 변수가 있거나 빈번한 방식으로 따로 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지 않고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고칠 수 있다. 자녀가 집을 주요 위치로 채택하게 하고 딜레마를 제거하라. 그 자녀가 어머니나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을 그 자녀에게 독살하지 마라. 경험에 부족으로 이혼에 대한 고생하는 어린 아이 또는 살고 있는 것을 받아들일 때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배우자와 경험하는 이 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편이 되기 위해 강요하지 마라.

* 변경을 연기하라.

이혼 후 가정, 학교, 도시, 간병인과 같이 몇 년 동안 습관이 된 장소와 사람들의 변화로 인해 아이들은 더 많이 노후화 된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한 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파하라.

*** 그를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박탈하지 마라.**

장로들이 말을 하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다. 더 이상 배우자가 되고 싶지 않더라도 헤어지는 사람은 영원히 자녀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 남는다. 그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녀는 그를 볼 권리가 있다. 전문 언어로 말하면, "자녀와 부모를 분리하는 것은 배우자가 주어진 처벌이 아니라 아니라 자녀에게 주어진 처벌"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감도를 보여주셨다. **"어느 누구든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떼어 놓는다면 알라(하나님)께서도 심판의 날 그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떼어 놓으실 것이니라."**[18]

이혼 후 당신을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법적 이혼 후에는 새롭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가 헤어졌다."라는 말을 큰 소리로 말을 할 때가 오면 결혼이 끝난다는 것이 친척이나 친구에게 통보된다. 결혼식 선언과 같은 행복한 소식은 아니다. 꼭 헤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개인조차도 이것을 표현하면서 떫은 맛을 느낀다.

배우자는 남편과 아내가 되지 않고 사회적 이혼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민감이 필요한 일부 기능과 규칙이 있다. 결혼 생활의 종료는 각 가족 구성원의 "생활 구조 조정"을 의미한다. 첫 번째 충격이 끝나면 해결책을 기다리는 문제가 나열된다. 배우자가 살 곳, 자녀가 있는 경우 그와 만나는 날, 새로운 재정적 문제... 우리 사회의 이혼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인 의미와 이 단계에서 이혼한 여성에 대해 발전된 부정적인 관점은 재정적 문제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여자가 이혼한 후에 가족에게 돌아 오거나 계속 혼자 살더라도, 그것 만이라도 해결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혼 할 때 이러한 부정 중에
최소한 몇 개를 경험한다!

- ▶ 매정함
- ▶ 하찮음
- ▶ 무관심
- ▶ 분쇄
- ▶ 외로움
- ▶ 폭동
- ▶ 죄책감
- ▶ 공허함
- ▶ 재무 책임 증대
- ▶ 절망
- ▶ 불신함
- ▶ 제외된다는 것
- ▶ 분노와 증오
- ▶ 경쟁

이혼이 주는 자유의 느낌으로 이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문제 영역을 다루는 데 노력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혼 후 발생하는 공허함과도 싸운다. 점차 결혼한 친구들의 배우자와 그들이 참석하는 공통 프로그램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은 한 부모 가족과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만들고 다른 사회 환경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혼 후 사생활의 프라이버시는 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영역이다. 배우자는 결혼 생활 동안과 마찬가지로 결혼이 끝난 상황에도, 사생활에 대한 그림자조차 내비쳐서는 안된다.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말에 따라서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모든 인간 중에**

가장 나쁜 인간은 아내와 성관계를 가진 후에 아내의 비밀 이야기를 하는 자이니라."[19]

반면에, 배우자는 이혼 후 서로의 사생활을 방해할 법적 또는 도덕적 권리가 없으며 종교 측면에서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없다. 특히, 남자가 여전히 그의 전처에 대해 권리가 있다는 믿음은 무지의 시대의 원시적 사고를 나타낸다.

이혼 단계에서 필요한 감수성이 나타나고 법과 미덕에 적절하게 행동하면 양 당사자는 결혼을 최소의 피해로 끝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알라(하나님)께서 이혼한 배우자에게 희망을 주셨다."**만일 그들이 이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그들 각자에게 보상하시니 하나님은 은혜로 충만하심이라."**[20]

1 나사이, 탈라크, 53.
2 푸르깐, 25/74.
3 아부 다우드, 타하라, 94.
4 이븐 마자, 니카흐, 1.
5 티르미디,라다아,11.
6 무슬림, 핫즈, 147.
7 아부 다우드, 탈라크, 17-18.
8 니싸아, 4/128.
9 타가분, 64/14.
10 바까라, 2/229, 231.
11 부카리, 메바키투스 쌀라, 4.
12 아부 다우드, 탈라크, 3.
13 티르미디, 탈라크, 9.
14 니싸아, 4/19.
15 니싸아, 4/35.
16 무슬림, 페이하일 알 사하바, 38.
17 하킴, 무스타드락, II, 181.
18 티르미디, 부유, 52.
19 무슬림, 니카흐, 123.
20 니싸아, 4/130.